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마태복음

MAT · 복음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8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마태복음 1장

MAT-001 · 복음서 · 헬라어

끝없는 "낱고"의 강물이 한 밤의 꿈에서 한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1-17절은 무대 없는 이름의 사슬, 18-25절은 요셉·마리아의 밤·꿈으로 무대가 생긴다.
- 배경 = 아브라함 → 다윗 왕조 → 바벨론 포로(11·17절)의 역사 축이 깔린다.
- 소품처럼 이름이 쓰임. 족보 안에 여자 넷(다말 3·라합 5·룻 5·우리야의 아내 6절)이 박힌다.
- 표제 = "족보"(biblos geneleos, 1절), 단힘 = "임마누엘"(Emmanuel, 23절).
- 인용 =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본문 안에 박혀 있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끝없는 "낱고"의 흐름(목록), 뒤는 한 사람의 장면(18절부터). 멀리서 한 곳으로 zoom in.
- "낱고"의 후렴이 16절에서 "나시니라"로 한 번 바뀐다.
- "열네 대"가 17절에 세 번 반복되어 셈의 매듭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이름의 표제로 열림.
- 25절: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한 아기의 이름으로 단힘.
- 표제로 부른 "예수 그리스도"(1절)가 끝에서 실제로 호명(25절)된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족보의 이름들 / 요셉(18·19·24) / 마리아(18·20) / 주의 사자(20) / 태어날 예수.
- 요셉 = "의로운 사람"(19절), 가만히 끊으려 함 → 분부대로 행함(24절). 말 없는 순종.
- 사상 = "함께 계심"(임마누엘, 23절), "죄에서 구원"(21절). 이름과 사명을 본문이 직접 이음.
- 본문이 의도를 직접 밝힘 —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2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아브라함 → 다윗, 약속의 시작.
- 컷 2 (7-11): 다윗 → 바벨론 포로, 왕들의 줄.
- 컷 3 (12-17): 포로 이후 → 그리스도, "열네 대" 셈 마감.
- 컷 4 (18-25): 요셉의 꿈,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

6 – (1) 원어 카드

- biblos geneleos(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 족보·세계(태어남)의 책. 1절 표제.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1·16·17·18절.
- Iesous(Ἰησοῦς) — 예수. 21절에서 이름의 까닭("구원")을 본문이 풀.
- Emmanuel(Ἐμμανουήλ) —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3절, 본문이 번역까지 제시.
- parthenos(παρθένος) — 처녀. 23절 인용.

6 – (2) 문학 구조

- 족보(1-17) → 탄생(18-25)의 두 묶음.
- "열네 대" 셈 3회(17절) — 아브라함~다윗 / 다윗~포로 / 포로~그리스도.
- 16절에서 "낱고"의 능동 행렬이 "나시니라"의 수동으로 한 번 전환.
- 본문이 인과를 직접 밝히는 대목 — 22절(예언 성취), 21절(이름의 까닭).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족보에 다말·라합·룻·"우리야의 아내"가 들어옴 — 부계 명단에 여자 넷이 기록됨(배경).
-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11·12·17절)가 족보의 분기점으로 표기됨.
- 23절의 인용은 처녀의 잉태와 "임마누엘" 이름을 본문 안에서 연결함 — 인용 위치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1 ↔ 창 5:1 (biblos geneleos 표제의 결)
- 마 1:1 ↔ 창 12 / 삼하 7 (아브라함 약속·다윗 언약)
- 마 1:23 ↔ 사 7:14 (처녀·임마누엘 인용)
- 마 1:21 ↔ 마 9:6 (죄 사함·구원의 결)
- 마 1:11 ↔ 왕하 24-25 (바벨론 포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이름의 강물이 이삭·야곱·유다를 지나 다윗 왕에게로 모인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들의 줄이 이어지다가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한 번 꺾인다. 포로 이후 다시 이름이 이어져 요셉에 이르고, "열네 대 셋"이라는 매듭으로 족보가 마감된다. 이제 장면이 밤으로 바뀐다. 마리아의 잉태를 알게 된 요셉이 의롭게 가만히 끊으려 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한다. 본문은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덧대고, 요셉이 깨어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한 줄로 동영상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긴 사슬의 끝, 함께 계시는 한 이름"
- 초벌 부제: "낱고 낱고의 강물이 임마누엘로 모이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포로·여자 넷·열네 대·인용)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족보의 여자 넷을 교훈으로 풀지 않도록 → 명단 안 위치만 기록.
- "임마누엘"(23절)을 교리 진술로 굳히지 않고 → 본문이 제시한 번역과 위치만 보존.
- "열네 대" 셈의 방식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으므로 → 셈 횟수만 기록, 까닭은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긴 이름의 사슬이 한 밤의 꿈과 한 이름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낳고 낳고"의 강물로 열린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바벨론 포로의 꺾임을 거쳐 요셉에 이르고, "열네 대 셋"의 매듭으로 족보가 마감된다. 그리고 장면이 밤으로 바뀌어, 의로운 요셉의 곤경 위에 꿈이 임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말과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책의 첫머리에 못 박히고, 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이 불리는 한 줄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1-17 이름의 사슬 → 18-25 밤·꿈. 배경 = 아브라함·다윗·바벨론 포로. 표제 biblos geneleos(1) → 닫힘 Emmanuel(23).
2 첫 느낌·분위기	"낳고"의 흐름(목록)에서 한 사람의 장면으로 zoom in. 16절에서 "나시니라"로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이름의 표제(1절). 끝 — 한 아기의 이름 "예수"(25절). 표제가 끝에서 호명됨.
4 등장인물·상황·사상	족보의 이름들 / 요셉·마리아·주의 사자. 요셉 = 의로운 사람, 말 없는 순종. 사상 = 함께 계심·구원.

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컷 1 아브라함~다윗(1-6). 컷 2 다윗~포로(7-11). 컷 3 포로~그리스도(12-17). 컷 4 꿈·임마누엘·탄생(18-25).
6 의문·발견·정보	여자 넷의 삽입. "낳고→나시니라" 전환. "열네 대" 셈. 예언 성취(22절)·이름의 까닭(21절).
7 동영상	이름의 강물 → 포로의 꺾임 → 한 밤의 꿈 → 한 이름의 호명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긴 사슬의 끝, 함께 계시는 한 이름". 부제 — "낳고 낳고의 강물이 임마누엘로 모이다".
9 동영상 안 겹가·기도	이름의 사슬과 한 밤의 꿈을 걸으며 함께 계심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사슬과 한 이름:** 길고 긴 "낳고"의 행렬(1-17절)이 25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의 한 이름으로 모인다. 많음이 하나로 좁아진다.
- 결 2 — 두 이름의 뜻:** "예수"(구원, 21절)와 "임마누엘"(함께 계심, 23절)이 한 장면에 나란히 박힌다. 책의 첫머리에 두 뜻이 같이 들어간다.
- 결 3 — 말 없는 순종:**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분부대로 행한다"(24절). 본문은 그의 행함만 보여준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21**(죄에서 구원)은 **마 9:6**(죄 사함)으로 이어지는 걸을 연다.
- 다른 권 — **창 5:1**(biblos geneleos 표제), **창 12 / 삼하 7**(아브라함·다윗 언약), **사 7:14**(처녀·임마누엘 인용).
- 정경 흐름 — 1:1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 전체가 약속의 성취로 흐르는 걸의 첫 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긴 이름의 강물 끝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바벨론 포로의 꺾임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요셉이 가만히 꿇으려는 밤에서 멈춘다.
- **멈춤 3:** "임마누엘 — 함께 계시다"가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긴 사슬은 한 이름을 향했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함께 계시는 이름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족보가 아브라함·다윗에서 그리스도로 모인다
- [x] 바벨론 포로가 사슬의 분기점이다
- [x] 요셉이 꿈에서 분부를 받는다
- [x] "예수"는 "죄에서 구원"의 이름이다
- [x]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다
- [x] 요셉은 말 없이 순종한다
- [x] 끝은 한 아기의 이름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하늘 나라)을 28회나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1장은 그 호(arc)의 문턱이다. biblos geneleos(1절)로 창세기의 표제를 다시 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창 12장(축복의 약속)과 삼하 7장(다윗 언약)을 한 줄에 꿰다. 5대 대명령 척추(통치·축복·사랑·제자·거룩)에서 보면, 1장은 창 12의 '축복' 약속이 한 이름으로 도착하는 자리다 —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근원"이 "임마누엘"로 성취되기 시작한다. 1장 임마누엘은 한 민족이 아닌 온 인류의 그리스도, 정치적 왕이 아닌 천국의 그리스도임을 첫머리에 못 박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 약속의 사슬(아브라함·다윗·포로)→한 이름의 성취("예수") / 멀리 있던 약속→함께 계시는 임재("임마누엘", 23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약속에서 성취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 확장'의 첫걸음이다. 아브라함의 표제(1절) → 다윗 왕조 → 바벨론 포로의 꺾임 → 한 밤의 꿈(20절) → "임마누엘"의 못(23절) → 한 이름의 호명(25절). 정지된 명단의 사진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한 점을 향해 좁혀져 와 함께 계심으로 도착하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족보·꿈·작명이다(명의의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걸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깨진 사슬을 통해 임하는 은혜가 움직인다 — 족보에 박힌 다말·라합·룻·"우리야의 아내"와 포로로 끌려간 왕들의 줄.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진 사슬이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사 끝내 '함께 계심'으로 오신 통치다.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23절)는 빙산의 수면 아래, 구약의 긴 약속이 한 이름으로 성취되는 구속사의 뿌리를 본다. 표면은 한 아기의 탄생이지만, 아래는 천상의 함께 계심이 땅에 못 박히는 자리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멀고 긴 약속의 끝이 "함께 계심"이라는 한 마디로 도착하는데 — 그 임마누엘의 진주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긴 사슬 끝에 선 자리와 "임마누엘"이 못 박히는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함께 계심의 운동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진주(가치)는 이 첫장에서 이미 빛난다 —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한 이름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임마누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첫 장에 못 박힌 "함께 계심"이 별을 따라 동방에서 찾아오는 경배로 — 천상에 박힌 이름이 이제 열방(동방 박사)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족보에 여자 넷(다말·라합·룻·우리야의 아내)이 들어왔는가?

- 부계 명단에 여자 이름이 박힌다.
- 선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16절에서 "낱고"가 왜 "나시니라"로 바뀌는가?

- 능동의 행렬이 한 번 수동으로 전환된다.
- 어휘 형태의 변화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열네 대" 셋(17절)의 셈은 어떻게 맞춰지는가?

- 이름을 세면 셈의 방식이 본문 표면으로는 단순하지 않다.
- 셈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횃수만 보존.

Q4. "임마누엘"(23절)과 "예수"(21·25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두 이름이 한 장면 안에 나란히 놓인다.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병치만 기록.

Q5. 요셉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 곤경·꿈·순종이 있으나 그의 말은 본문에 없다.
- 침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죄에서 구원할 자"(21절)는 어떤 구원인가?

- 이름의 까닭을 본문이 밝히되 방식은 1장에서 펼치지 않는다.
- 이어지는 장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장

MAT-002 · 복음서 · 헬라어

별을 따라온 경배와 라마의 통곡이 한 장에 함께 있다. 꿈이 길을 인도해 애굽에서 나사렛에 이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계속 옮겨감: 동방 → 예루살렘 헤롯의 궁(3-8) → 베들레헴 집(9-11) → 애굽(13-15) → 베들레헴 지경(16-18) → 나사렛(19-23).
- 시간 배경 = "헤롯 왕 때에"(1절). 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잇는 정권 교체(19·22절)가 깔린다.
- 소품 = 별(aster, 2·7·9·10절), 황금·유향·몰약(11절) 예물 셋, 보배합.
- 본문 안 인용이 몰림 — 6절(베들레헴)·15절(애굽)·18절(라마)·23절(나사렛).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빛과 그림자가 엇갈림 — 박사들의 큰 기쁨(10절)과 라마의 통곡(18절)이 가까이 붙음.
- 이동이 많은 장 — 길의 장면, 꿈으로 길이 바뀜(12·13·19·22절).
- 같은 소식에 두 반응 — 경배(박사)와 살해 의도(헤롯).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 베들레헴 탄생으로 열림.
-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 나사렛 정착으로 닫힘.
-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헤롯에서 그 아들 아켈라오로 바뀐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동방박사 / 헤롯 / 대제사장·서기관(4) / 아기·마리아(11) / 요셉(13·14·19·21) / 주의 사자 / 아켈라오(22).
- 두 갈래 반응 — 박사는 경배(proskyneo, 2·11), 헤롯은 살해 의도(8·16). 헤롯의 "경배하러"(8절)는 거짓.
- 사상 = "왕" — "유대인의 왕"(2절)과 헤롯 왕의 충돌.
- 요셉은 또 말 없이 "꿈에 분부받고 일어나 행함"(14·2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박사 옴, 온 성 소동, 베들레헴 인용, 헤롯의 은밀한 부탁.
- 컷 2 (9-12): 별의 인도, 집에서 경배, 예물 셋, 다른 길로 돌아감.
- 컷 3 (13-15): 꿈 명령, 밤에 애굽 피신, "애굽에서 불러냈다".

- 컷 4 (16-18): 헤롯 진노, 사내아이 학살, 라마의 통곡.
- 컷 5 (19-23): 헤롯 죽음, 귀환, 아켈라오 피해 나사렛 정착.

6 – (1) 원어 카드

- magoi(μάγοι) – 박사들. 동방에서 별을 살피던 이들(1·7·16절).
- aster(ἀστήρ) – 별. 2·7·9·10절, 집 위에 머물.
- proskyneo(προσκυνέω) – 경배하다. 2·8·11절 (8절은 헤롯의 거짓).
- Nazoraios(Ναζωραῖος) – 나사렛 사람. 23절.
- Bethlehem(Βηθλεέμ) – 베들레헴. 1·5·6·8·16절, 탄생지.

6 – (2) 문학 구조

- 빛(경배, 1-12) → 어둠(피신·학살, 13-18) → 정착(귀환, 19-23)의 세 묶음.
- 인용 성취 공식 4회(6·15·18·23절) – 본장에 몰려 있음.
- 꿈에 의한 길 변경 4회(12·13·19·22절).
- "경배"(11절)와 "애곡"(18절)의 병치.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동방으로부터 박사들"(1절)은 별을 살피던 이방의 사람으로 본문이 그림 – 배경으로만.
- 황금·유향·몰약(11절)은 가짓수만 기록되고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 "두 살부터 그 아래"(16절)는 헤롯이 별 나타난 때로 셈한 결과로 본문이 보고함 – 인물 행위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6 ↔ 미 5:2 (베들레헴 인용)
- 마 2:15 ↔ 호 11:1 (애굽에서 불러냄)
- 마 2:18 ↔ 렘 31:15 (라마·라헬의 통곡)
- 마 2:2 "유대인의 왕" ↔ 마 27:37 (십자가 패의 곁)
- 마 2:11 경배 ↔ 마 4:9-10 (경배의 대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 헤롯과 온 성이 소동하고,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 답한다. 헤롯이 은밀히 별 나타난 때를 묻고 "찾거든 고하라" 한다. 박사들이 떠나니 별이 앞서 인도해 집 위에 머물고, 그들이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경배하며 황금·유향·몰약을 드린다. 꿈에 분부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고, 요셉도 꿈에 분부받아 밤에 애굽으로 피한다. 속은 줄 안 헤롯이 진노하여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죽이니 라마의 통곡이 들린다. 헤롯이 죽자 요셉이 돌아오나 아켈라오를 두려워하여, 꿈의 인도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별을 따라온 경배, 라마의 통곡 – 꿈이 인도한 길"
- 초벌 부제: "빛을 따라온 길, 어둠을 지나 나사렛에 이른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헤롯·인용 4회·라마 통곡·예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예물 셋(11절)을 상징으로 풀지 않도록 → 가짓수와 위치만 기록.
- 경배(11절)와 통곡(18절)의 병치를 교훈으로 굳히지 않고 → 두 장면의 인접만 보존.
- 인용 성취 공식 4회는 위치만 기록, 해석은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장은 별을 따라온 경배가 헤롯의 어둠과 라마의 통곡을 지나 나사렛의 정착으로 흐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동방박사의 큰 기쁨으로 열린다. 별이 집 위에 머물고, 그들은 경배하며 황금·유향·몰약을 드린다. 그러나 같은 소식 앞에서 헤롯은 소동하고 진노하여 사내아이를 죽이고, 라마에서 통곡이 들린다. 그 사이를 꿈이 인도한다.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뒤 돌아오고, 아켈라오를 피해 나사렛에 정착하는 한 줄로 달린다. 빛과 어둠이 한 장 안에 같이 있고, 길마다 인용이 따라붙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동방→예루살렘→베들레헴→애굽→나사렛. 별(aster)·예물 셋. 인용 4회(6·15·18·23).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빛과 그림자가 엇갈림. 이동 많은 길의 장. 큰 기쁨과 통곡이 가까이.
3 시작과 끝	시작 — 베들레헴 탄생(1절). 끝 — 나사렛 정착(23절). 헤롯→아겔라오.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박사·헤롯·서기관·요셉·아겔라오. 두 반응 = 경배(proskyneo) vs 살해. 사상 = "왕".
5 장면 컷	컷 1 박사·소동(1-8). 컷 2 별·경배(9-12). 컷 3 애굽 피신(13-15). 컷 4 학살·통곡(16-18). 컷 5 귀환·나사렛(19-23).
6 의문·발견·정보	별이 집 위에 머뭇. 예물 셋. 아는 자·가는 자의 갈림. 꿈의 4회 인도. 경배·애굽 병치.
7 동영상	별·경배 → 애굽 피신 → 학살·통곡 → 귀환·나사렛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별을 따라온 경배, 라마의 통곡 — 꿈이 인도한 길". 부제 — "빛을 따라온 길, 어둠을 지나 나사렛에".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별과 길과 통곡 사이를 걸으며 두 반응의 갈림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같은 소식, 두 반응:** "유대인의 왕"(2절)이라는 한 소식에 박사는 경배하고 헤롯은 죽이려 한다. 한 자리에서 길이 갈린다.
- 결 2 — 빛과 어둠의 인접:** 큰 기쁨(10절)과 라마의 통곡(18절)이 한 장 안에 붙어 있다. 본문은 둘을 떼어 놓지 않는다.
- 결 3 — 꿈이 인도한 길:** 길이 네 번 바뀌고(12·13·19·22절) 매번 꿈이 앞선다. 아이는 별과 꿈을 따라 옮겨 다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2**("유대인의 왕")는 **마 27:37**(십자가 패)과, **마 2:11**(경배)은 **마 4:9-10**(경배의 대상)과 호응한다.
- 다른 권 — **미 5:2**(베들레헴), **호 11:1**(애굽에서 불러냄), **렘 31:15**(라마·라헬 통곡).
- 정경 흐름 — 본장의 인용 4회는 마태복음이 약속의 성취를 거듭 못 박는 결의 한 마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별을 따라온 길 끝에서 한 사람이 경배를 본다.
- **멈춤 1:** 헤롯이 소동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라마의 통곡이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꿈이 길을 바꾸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소식이 두 길을 낳았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경배와 통곡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경배하러 온다

- [x] 헤롯과 온 성이 소동한다
- [x] 황금·유향·물약을 드린다
- [x] 꿈으로 애굽에 피한다
- [x] 사내아이 학살과 라마의 통곡이 있다
- [x] 헤롯이 죽고 돌아온다
- [x] 끝은 나사렛 정착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장은 그 호(arc)에서 천상에 박힌 이름이 처음으로 열방의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자리다. 1장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못 박았다면, 2장은 그 함께 계심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린 자들이 이방의 동방 박사임을 보인다 — 한 민족을 넘는 천국 복음. 길마다 인용이 따라붙어(미 5:2, 호 11:1, 렘 31:15) 구약의 성취를 거듭 못 박고, 동시에 헤롯의 칼은 지상의 정치적 왕권이 이 왕을 알아보지 못함을 드러낸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2장은 창 12의 '축복'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 — 동방의 이방인이 복의 근원 앞에 무릎 꿇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면 동방의 별→베들레헴의 경배(이방의 첫 무릎) / 옛 예언의 글자→오늘 걷는 길(인용 4회의 성취).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열방의 발걸음이 한 아기 앞으로 좁혀지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 확장'이 열방으로 번지는 첫 국면이다. 동방의 별(2절) → 예루살렘의 소동 → 베들레헴 집 위에 멈춘 별(9절) → 엎드린 경배(11절) → 꿈이 인도한 애굽·나사렛의 길. 정치된 성탄의 그림이 아니라, 천상에 박힌 이름이 이방의 발을 끌어당겨 경배에 이르게 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별·예물·학살·피신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걸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한 소식 앞에서 마음이 갈린다 — 멀리서 온 이방인은 엎드리고 (proskyne), 성경을 아는 예루살렘은 소동한다(3절).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한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는 천국 복음의 천상 차원이다. 첫 경배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왕이 정치적·민족적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임을 첫 장면에 못 박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박사의 방문이지만, 아래는 열방의 무릎을 끌어당기는 천상의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별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엎드린 그 발걸음이 — 내 안에서도 떼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별을 따라온 박사의 무릎 곁과 소동하는 예루살렘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경배의 운동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진주(가치)는 여기서 이방인의 손에 들린다 — 황금·유향·물약을 다 내어 드릴 만한 한 분 앞에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경배.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별을 따라온 경배가 이제 요단의 물로 — 천상에 박힌 이름 앞에 열방이 엎드렸듯,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이름 위에 성령이 내린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별(2·9절)은 어떻게 길을 끝까지 인도하는가?

- "별이 그 위에 머물러 섰고"(9절)에서 집을 찾는다.
- 방식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황금·유향·몰약(11절)은 왜 셋인가?

- 본문은 예물의 가짓수만 말한다.
- 까닭은 보류, 가짓수만 기록.

Q3. 아는 자(서기관)와 가는 자(박사)는 왜 갈리는가?

- 서기관은 베들레헴을 정확히 답하나(5-6절) 따라가지 않는다.
- 아는 것과 가는 것의 거리만 기록, 까닭은 보류.

Q4. 경배(11절)와 통곡(18절)은 왜 한 장에 함께인가?

- 큰 기쁨과 라마의 애곡이 가까이 놓인다.
- 두 장면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꿈은 왜 길을 거듭 바꾸는가?

- 12·13·19·22절에서 꿈이 인도자가 된다.
- 반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나사렛 사람"(23절)의 인용은 어디서 오는가?

- 본문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하되 단일 출처를 한 절로 짚지 않는다.
- 인용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3장

MAT-003 · 복음서 · 헬라어

광야의 거친 외침 "회개하라"가 요단강의 세례를 지나, 열린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유대 광야(1절)와 요단강(6절) → 끝에 하늘이 열림(16절).
- 소품 = 낙타 털옷·가죽 띠·메뚜기·석청(4절), 도끼(10절), 키·알곡·쭉정어·불(12절).
- 물이 배경에 흐름 — 요단강·세례·"물로 세례를 주거니와"(11절).
- 본문 안 인용 =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거친 외침으로 팽팽하게 시작 → 끝(16-17절)에 하늘 열림·비둘기로 고요해지는 전환.
- 두 무대 = 광야의 선포(1-12)와 요단강의 세례(13-17).
- 같은 자리에 다른 말 = 무리에겐 세례, 바리새인·사두개인에겐 "독사의 자식들"(7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 사람의 외침으로 열림.
-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 하늘의 음성으로 닫힘.
- 외침에서 음성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세례 요한 / 나아오는 무리(5) / 바리새인·사두개인(7) / 예수(13) / 성령·하늘 음성(16-17).
- 두 결의 응답 — 무리는 자복하며 세례(6), 종교 지도자에겐 날선 책망(7).
- 사상 = "회개에 합당한 열매"(8·10절). 물 세례와 성령·불 세례를 나란히 둠(11절).
- 예수-요한 대화 = 막음(14)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15).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광야의 외침, 거친 옷·음식, 무리의 세례.
- 컷 2 (7-10): "독사의 자식들", 회개의 열매, 도끼.
- 컷 3 (11-12): 물 세례 / 성령·불 세례, 키·알곡·쭉정어.
- 컷 4 (13-17): 예수의 세례, 막음·"모든 의", 하늘 열림·비둘기·음성.

6 – (1) 원어 카드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 마음을 돌이킴. 2·8·11절(동사형).
- baptizo(βαπτίζω) – 세례를 주다, 담그다. 6·11·13·14·16절.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11·16절, 비둘기 같이 내림.
- agapetos(ἀγαπητός) – 사랑하는.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
- eudokeo(εὐδοκέω) – 기뻐하다. 17절 "내 기뻐하는 자".

6 – (2) 문학 구조

- 요한의 선포(1-12) → 예수의 세례(13-17)의 두 묶음.
- "회개" 결의 반복 – 2·8·11절. "열매" 2회(8·10절).
- 대조쌍 – 물 세례 / 성령·불 세례(11절), 알곡 / 쭉정이가(12절).
- 외침(1절) ↔ 하늘 음성(17절)의 수미 대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낙타 털옷·가죽 띠·메뚜기·석청(4절)은 광야 생활의 거친 양식으로 본문이 그림 – 배경으로만.
-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6절) – 자복과 세례를 본문이 함께 기록.
- 3절의 인용은 요한을 "외치는 소리"로 본문이 지목 – 인용 위치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3:3 ↔ 사 40:3 (광야에 외치는 소리)
- 마 3:2 "회개하라" ↔ 마 4:17 (예수의 첫 선포)
- 마 3:17 ↔ 마 17:5 (변화산의 음성)
- 마 3:11 성령·불 ↔ 행 2:3-4 (불의 혀·성령)
- 마 3:8 열매 ↔ 마 7:17-19 (좋은 열매·나쁜 열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다. 낙타 털옷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나아와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바리새인·사두개인이 오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주시리라, 키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한다.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고, 요한이 막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광야의 외침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 초벌 부제: "외치는 소리가 준비한 길, 그 끝에 열린 하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광야 양식·자복 세례·인용·타작 소품)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성령과 불"(11절)을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두 단어의 묶임과 위치만 기록.
- "모든 의를 이루는 것"(15절)을 적용으로 풀지 않고 → 막음과 받으심의 대화만 보존.
- 알곡·죽정이(12절)의 분류를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 한 손에서 갈리는 장면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3장은 광야의 거친 외침 "회개하라"가 요단강의 세례를 지나 열린 하늘의 음성으로 이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로 열린다. 낙타 털옷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무리는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날선 말과 도끼·키의 경고가 간다. 그 외침 끝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임하는 한 줄로 닫힌다. 땅의 외침이 하늘의 음성으로 옮겨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유대 광야·요단강 → 열린 하늘. 거친 옷·음식, 도끼·키. 물이 배경. 인용(3절).
2 첫 느낌·분위기	거친 외침으로 팽팽 → 끝에 비둘기로 고요. 두 무대·두 결의 말.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사람의 외침(1-2절). 끝 — 하늘의 음성(17절). 땅에서 하늘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요한·무리·바리새인/사두개인·예수·성령. 사상 = 회개의 열매. 물 vs 성령·불 세례.
5 장면 컷	컷 1 광야 외침·세례(1-6). 컷 2 독사·도끼(7-10). 컷 3 두 세례·키(11-12). 컷 4 예수 세례·음성(13-17).
6 의문·발견·정보	열매 2회. 요한의 막음. "모든 의". 삼중의 음성. 성령·불의 묶임. 알곡·쪽정어.
7 동영상	광야 외침 → 무리의 세례 → 경고 → 예수의 세례 → 하늘 열림·음성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광야의 외침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부제 — "외치는 소리가 준비한 길, 그 끝에 열린 하늘".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광야와 강과 열린 하늘을 걸으며 외침과 음성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외침과 음성:** 땅에서 "회개하라"(2절) 외치던 자리가 끝에서 하늘의 "내 기뻐하는 자"(17절)로 응답된다. 양 끝이 마주 본다.
- 결 2 — 두 결의 말:** 자복하는 무리에겐 세례(6절), 종교 지도자에겐 "독사의 자식들"(7절). 같은 강가에서 말이 같린다.
- 결 3 — 막음과 받으심:** 요한이 막고(14절) 예수께서 "모든 의"(15절)로 받으신다. 세례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자리가 한 번 뒤바뀐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3:2**("회개하라")는 **마 4:17**(예수의 첫 선포)로, **마 3:17**(음성)은 **마 17:5**(변화산)로, **마 3:8**(열매)은 **마 7:17-19**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사 40:3**(광야의 소리), **행 2:3-4**(불·성령).
- 정경 흐름 — 본장의 세례와 음성은 다음 장 광야의 시험(4장)으로 곧장 이어지는 결의 문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광야의 외침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죄를 자복하며 물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도끼와 키의 경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임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외침이 하늘의 음성으로 응답되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열린 하늘 아래*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친다
- [x] 무리가 자복하며 세례받는다
- [x] 종교 지도자에게 "독사의 자식들" 한다
- [x] 물 세례와 성령·불 세례를 나란히 둔다

- [x] 예수께서 "모든 의"로 세례받으신다
- [x]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린다
- [x] 끝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음성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3장은 그 호(arc)에서 하늘이 실제로 열리는 자리다(16절). 요한의 첫 외침 "천국이 가까웠다"(2절)는 곧 예수의 첫 선포(4:17)와 한 글자로 겹치며, 마태에만 뻑뻑한 '천국'의 문이 광야에서 열린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 40:3을 성취하여 구약의 길 예비를 다시 못 박는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3장은 '거룩(holiness)'의 부름이 회개의 외침으로 울리는 자리이자,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의를 이루"(15절)러 낮아지심으로 그 거룩이 사람의 자리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문턱이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임함은, 천상 차원의 천국이 한 사람 위에서 땅과 맞닿는 마태적 좌표를 첫 사역의 문에 박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땅의 외침("회개하라", 2절)→열린 하늘의 음성("내 기뻐하는 자", 17절) / 회개의 물→성령과 불의 세례(1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아래에서 위로 들려 올라가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이 하늘을 여는 국면이다. 광야의 사람 소리(1-2절) → 무리의 자복과 세례(6절) → 도끼·키의 경고(10·12절) → 예수의 세례(13-15절) → 하늘 열림·비둘기·음성(16-17절). 정지된 강가의 사진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한 길이 하늘이 친히 여는 자리로 옮겨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외침·세례·하늘 열림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를 층 — 마음·인격), 요한이 막는데도(14절)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물로 내려가신다 —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15절).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의를 다 이루시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통치다. 천국은 도끼로 단번에 베는 정치적 정복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심으로 의를 이루는 길로 온다. 빙산의 수면 위는 물 한 번의 세레이지만, 아래는 하늘이 열려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보는 천상 차원의 인준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회개의 물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과 불"(11절)로 세례받는 그 불이 — 내 안에서도 타오르기 시작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회개하라"는 외침 결과 열린 하늘 아래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불의 세례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불(열정)은 여기서 처음 예고된다 — 미지근함이 아니라, 알곡을 공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사르는 불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회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하늘에서 인준받은 "사랑하는 아들"이 곧바로 광야의 시험으로 — 열린 하늘의 음성이 이제 "기록되었으되"의 말씀으로 시험의 불을 통과한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회개에 합당한 열매"(8절)는 어떤 열매인가?

- 열매가 8·10절에 거듭 나오나 본문은 목록을 펴지 않는다.
- 열매의 내용은 보류, 결만 기록.

Q2. 요한은 왜 예수의 세례를 막는가(14절)?

- "내가 당신에게서 받아야 할 터인데"라며 자리가 뒤바뀐 듯하다.
- 막음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15절)는 무엇을 이룸인가?

- "이루다"의 결만 본문이 말하고 방식은 펴지 않는다.
- 이어지는 장으로 이월.

Q4. "성령과 불"(11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두 단어가 한 세례 안에 묶여 있다.
- 둘의 관계는 보류, 묶임만 기록.

Q5. 알곡과 쭉정이(12절)는 어떻게 갈리는가?

- 한 손의 키에서 모음과 태움이 갈린다.
- 분류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Q6.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17절)는 어떻게 한 음성인가?

- 두 결이 하나의 음성에 함께 온다.
-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4장

MAT-004 · 복음서 · 헬라어

광야의 좁은 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받아친 자리에서, 갈릴리의 선포와 부름과 큰 무리로 넓어진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광야(1) → 성전 꼭대기(5) → 지극히 높은 산(8) → 갈릴리·가버나움(12-13) → 갈릴리 해변(18).
- 시간 배경 =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2절)의 주립.
- 소품 = 돌·떡(3-4), 성전 꼭대기(5), 그물·배(18·20·21절).
- 본문 안 인용 = 14-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메마르고 팽팽(광야·금식·시험), 뒤는 넓어짐(갈릴리·무리). 좁다가 넓어짐.
- 1-11절은 두 인물의 좁은 무대, 18절부터 사람이 많아짐.
- "기록되었으되"가 시험마다 받아침(4·7·10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홀로 광야로 열림.
- 25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 사방의 무리로 닫힘.
- 혼자에서 무리로, 다가오는 시험에서 따르는 무리로 넓어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시험하는 자(3) / 천사들(11) / 베드로·안드레(18) / 야고보·요한(21) / 무리.
- 상황 = 조건 붙은 세 제안 — "하나님의 아들이어든"(3·6), "내게 경배하면"(9).
- 사상 = "기록되었으되"(gegraptai)의 세 받아침(4·7·10절). 시험하는 자도 인용을 씀(6절).
- 제자 부름 = "곧 버려 두고 따름"(20·2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광야 금식, 돌로 떡,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 컷 2 (5-7):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시험하지 말라".
- 컷 3 (8-11): 높은 산, 천하 만국, "경배하고 섬기라", 천사 수종.
- 컷 4 (12-17): 갈릴리·가버나움, 인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 컷 5 (18-25): 네 어부 부름, 가르침·전파·고침, 큰 무리.

6 – (1) 원어 카드

- peirazo(πειράζω) – 시험하다. 1·3절, 시험하는 자의 행위.
- gegraptai(γέγραπται) – "기록되어 있다"(완료형). 4·6·7·10절, 받아침의 형식.
- metanoeo(μετανοέω) – 회개하다. 17절 "회개하라".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천국. 17·23절.
- akoloutheo(ἀκολουθέω) – 따르다. 20·22·25절.

6 – (2) 문학 구조

- 세 시험(1-11) → 사역 시작(12-25)의 두 묶음.
- 시험의 무대가 점점 – 광야 → 성전 꼭대기 → 지극히 높은 산.
- "기록되었으되" 형식 4회(시험하는 자 1회 포함, 4·6·7·10절).
- "곧 … 버려 두고 따르니라" 2회 반복(20·22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세 받아침의 출처는 신명기 결로 본문이 같은 형식으로 표기 – 위치로만 기록.
- "사람을 낚는 어부"(19절)는 그물의 비유를 본문이 둠 – 비유 위치로 기록, 풀이는 보류.
- 14-16절 인용("큰 빛")은 갈릴리 사역 시작에 따라붙음 – 인용 위치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4:4 ↔ 신 8:3 (떡과 말씀)
- 마 4:7 ↔ 신 6:16 (시험하지 말라)
- 마 4:10 ↔ 신 6:13 (경배하고 섬기라)
- 마 4:16 ↔ 사 9:1-2 (흑암·큰 빛)
- 마 4:17 ↔ 마 3:2 (요한과 같은 첫 선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 사십 일을 금식하시고 주리신다. 시험하는 자가 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받아치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며 성경을 인용하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경배하면 다 주리라" 하자 "주께 경배하고 섬기라" 하시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든다.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 가버나움에 사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신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안드레, 야고보·요한을 부르시니 곧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른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니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한 줄로 달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광야의 세 시험, 갈릴리의 첫 부름"
- 초벌 부제: "좁은 광야의 시험에서 넓은 갈릴리의 무리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십 일 금식·신명기 인용·갈릴리 지명·그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세 시험을 교리 도식으로 굳히지 않도록 → 무대 점층과 받아침 형식만 기록.
- "사람 낚는 어부"(19절)를 적용으로 풀지 않고 → 그물 비유의 위치만 보존.
- "큰 빛"(16절)과 광야의 어둠 결을 단정하지 않고 → 한 장 안의 병치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4장은 광야의 좁은 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받아친 자리에서 갈릴리의 선포와 부름과 큰 무리로 넓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성령에게 이끌린 광야의 금식으로 열린다. 시험하는 자가 돌·성전 꼭대기·높은 산에서 조건 붙은 세 제안을 가져오고,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가 받아친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든 뒤, 무대는 갈릴리로 넓어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첫 선포가 울리고, 네 어부가 그물과 배를 곧 버리고 따른다.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이 이어져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한 줄로 닫힌다. 좁은 광야가 넓은 갈릴리로 열린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광야→성전 꼭대기→높은 산→갈릴리·가버나움→해변. 사십 일 금식. 돌·떡·그물. 인용(14-16).
2 첫 느낌·분위기	메마르고 팽팽 → 넓어짐. 두 인물의 좁은 무대에서 큰 무리로.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홀로 광야(1절). 끝 — 사방의 무리(25절). 혼자에서 무리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시험하는 자·천사·네 어부·무리. 사상 = "기록되었으되"의 세 받아침.
5 장면 컷	컷 1 돌·떡(1-4). 컷 2 성전 꼭대기(5-7). 컷 3 높은 산(8-11). 컷 4 갈릴리·선포(12-17). 컷 5 부름·무리(18-25).
6 의문·발견·정보	무대 점층. 시험자의 인용. 떠남과 수종. "사람 낚는 어부". 어둠과 큰 빛의 병치.
7 동영상	광야 시험 → 받아침 → 갈릴리 선포 → 어부 부름 → 큰 무리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광야의 세 시험, 갈릴리의 첫 부름". 부제 — "좁은 광야의 시험에서 넓은 갈릴리의 무리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광야와 산과 해변을 걸으며 시험과 부르심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점층하는 시험, 한결같은 받아침:** 무대는 광야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1·5·8절) 받아침은 늘 "기록되었으되"(4·7·10절) 한 형식이다.
2. **결 2 — 좁음에서 넓은으로:** 두 인물뿐인 광야가 사방의 큰 무리(25절)로 열린다. 본문이 무대를 넓힌다.
3. **결 3 — 곧 버려 두고 따름:** 네 어부가 그물·배·아버지를 "곧" 버린다(20·22절). 본문은 망설임 없이 따름만 보여준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4:17**("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은 **마 3:2**(요한의 외침)와 같은 말로 호응한다.
- 다른 권 — **신 8:3 / 6:16 / 6:13**(세 받아침), **사 9:1-2**("흑암·큰 빛").
- 정경 흐름 — 본장의 "천국이 가까웠다"는 곧이어 산상수훈(5-7장)의 천국 가르침으로 펼쳐지는 결의 문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금식한 광야에서 한 사람이 시험을 본다.
- **멈춤 1:** 돌이 떡으로 제안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성전 꼭대기와 높은 산의 제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갈릴리 해변의 부름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좁은 시험이 넓은 부름으로 열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시험과 부르심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광야에서 사십 일 금식 후 시험받는다
- [x] 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받아친다
- [x]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든다
- [x]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신다

- [x] 네 어부가 곧 버리고 따른다
- [x]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다
- [x] 끝은 사방의 큰 무리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하늘 나라)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4장은 그 호(arc)에서 천국이 처음으로 땅에 선포되는 자리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17절). 세 시험의 받아침은 모두 신명기에서 온 "기록되었으되"(신 8:3·6:16·6:13)로, 광야의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성취로 되감는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사 9장을 성취하여 천상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까지 비침을 못 박는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4장은 '제자(disciple)' 명령(마 28)이 처음 싹트는 자리다 — "나를 따라 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 천국의 선포가 곧 제자 부름으로 이어지는 마태적 좌표가 사역의 문에 박힌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좁은 광야의 세 시험(혼자, 1절)→넓은 갈릴리의 큰 무리(사방, 25절) / 지름길의 유혹→"기록되었으되"의 말씀의 길(4·7·10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혼자에서 무리로 넓어지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이 땅에 선포되며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광야의 금식(1-2절) → 점층하는 세 시험(3-10절) → 마귀의 떠남·천사의 수종(11절) → 갈릴리의 천국 선포(17절) → 네 어부의 부름(18-22절) → 사방의 큰 무리(25절). 정지된 광야의 사진이 아니라, 좁은 시험의 자리가 넓은 부름의 자리로 열리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시험·선포·부름·무리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를 층 — 마음·인격), 세 시험은 모두 천국의 길을 떡으로·기적으로·세상 권세로 질러가라는 유혹이고, 매번 말씀으로 거절된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지름길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천국을 여시는 통치다. 천하 만국을 한 번에 받는 길(8-9절)을 물리치심은, 천국이 정치적 정복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옴을 못 박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광야의 대결이지만, 아래는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를 다시 통과하여 새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천상의 왕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그물을 "곧 버려두고"(20절) 따른 어부들처럼 — 그 부름이 내 안에서 가장 앞에 서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광야의 시험 결과 갈릴리 해변의 부름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곧 버림"의 운동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도화선(우선순위의 재설정)은 여기서 처음 당겨진다 — 그물과 배와 아버지보다 앞서는 한 부름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천국.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가 이제 산 위의 가르침으로 — 부른 무리를 산에 앉히시고,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팔복으로 펼치기 시작하신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세 시험의 무대는 왜 점점 높아지는가?

- 광야 → 성전 꼭대기 → 지극히 높은 산.
- 점층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순서만 보존.

Q2. 시험하는 자는 왜 성경을 인용하는가(6절)?

- 받아치는 도구를 그가 먼저 쓴다.
- 까닭은 보류, 형식의 동일함만 기록.

Q3. "사람을 낚는 어부"(19절)는 무엇인가?

- 본문은 비유만 두고 풀지 않는다.
- 풀이는 이어지는 장으로 이월.

Q4. 제자들은 왜 "곧" 버려 두고 따르는가(20·22절)?

-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곧 버린다.
- 즉각성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마귀의 떠남과 천사의 수종(11절)은 왜 한 절에 함께인가?

- 떠남과 수종이 나란히 온다.
-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광야의 시험과 갈릴리의 "큰 빛"(16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어둠 같은 결과 큰 빛이 한 장에 놓인다.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5장

MAT-005 · 복음서 · 헬라어

산 위에서 선언된 거꾸로 선 복이, 소금과 빛의 정체를 지나 "온전하라"는 율법의 온전함으로 이어진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산(1절), 앉아서 입을 여심(2절). 한 자리의 긴 가르침.
- 소품 = 소금(13), 등불·말·등경(15), 산 위의 동네(14), 제단·예물(23-24), 옥(25-26), 눈·손(29-30절).
- "천국"(basileia)이 양 끝 복에 음 — 3절·10절 "천국이 그들의 것".
- 결의 문 = 17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3-10절)은 "복이 있나니"의 후렴, 노래 같은 운율. 거꾸로 선 복.
- 21절부터 또박또박 가르치는 결로 단호해짐 — "들었으나 / 이르노니".
- 일상 소품(소금·빛)이 정체의 비유로 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3절: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복의 선언으로 열림.
- 48절: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온전함의 부름으로 닫힘.
- 복의 선언에서 온전함의 부름으로, 낮음과 온전함이 한 장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1) / 둘러싼 무리 / 말씀 안 서기관·바리새인(20)·형제(22-24)·대적(25).
- 상황 = 산에 앉아 입을 연 긴 가르침의 한 자리.
- 사상 = 복(3-12) → 소금·빛(13-16) → 율법의 완전(17-48).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여섯 단락의 머리 — 살인·간음·이혼·맹세·보복·원수(21·27·31·33·38·4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산에 올라 앉으심, 입을 여심.
- 컷 2 (3-12): 팔복, "천국이 그들의 것"의 수미.
- 컷 3 (13-16): 소금과 빛, 등경, 산 위의 동네.
- 컷 4 (17-20): 율법을 완전하게 함, "의가 더 낮지 못하면".
- 컷 5 (21-48): "들었으나/이르노니" 여섯 단락, "온전하라".

6 – (1) 원어 카드

- makarios(μακάριος) — 복된. 팔복 각 머리(3-11절).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천국. 3·10·19·20절, 양 끝 복에.
- dikaiosyne(δικαιοσύνη) — 의. 6·10·20절.
- halas(ἄλας) — 소금. 13절 "세상의 소금".
- phos(φῶς) — 빛. 14·16절 "세상의 빛".

6 – (2) 문학 구조

- 복(3-12) → 정체(13-16) → 율법(17-48)의 세 묶음.
- 팔복 액자 — 3·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의 수미 봉합.
-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구 6회(21·27·31·33·38·43절).
- "완전하게 하려 함"(17절) ↔ "온전하라"(48절)의 결 호응.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1절)는 앉아서 가르치는 한 자리로 본문이 그림 — 배경으로만.
- 소금·등불·등경·말(뒷박)은 일상의 소품으로 비유에 쓰임 — 소품 위치로 기록.
- 29-30절의 강한 표현(눈·손)은 본문이 둔 화법 — 화법 위치로 기록, 풀이는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5:3-12 ↔ 눅 6:20-23 (복의 줄)
- 마 5:14-16 ↔ 마 6:22-23 (빛·등불)
- 마 5:17 ↔ 마 7:12 (율법과 선지자)
- 마 5:21-27 ↔ 출 20:13-14 (살인·간음 인용)
- 마 5:48 ↔ 레 19:2 (거룩·온전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다.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린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첫 복과 끝 복을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묶으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어 비치게 하라" 하시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하신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바리새인보다 낮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신다. 이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살인·간음·이혼·맹세·보복·원수 사랑을 차례로 펴시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한 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복이 있나니 — 소금·빛, 그리고 온전하라"
- 초벌 부제: "산 위의 복에서 율법의 온전함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산상 가르침·일상 소품·율법 인용·팔복 액자)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팔복을 적용 목록으로 풀지 않도록 → 후렴과 액자 구조만 기록.
- "이르노니" 여섯 단락을 교리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 대구 형식의 반복만 보존.
- 29-30절의 강한 표현을 문자/비유로 단정하지 않고 → 본문 화법으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선언된 "복이 있나니"가 소금과 빛의 정체를 지나 율법의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산에 앉아 입을 여신 가르침으로 열린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핍박받는 자"까지 거꾸로 선 복이 노래처럼 선언되고, 첫 복과 끝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묶인다. 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빛"이라는 정체가 주어지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결의 문이 박힌다. 그리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여섯 대구가 살인·간음·이혼·맹세·보복·원수 사랑을 차례로 펴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부름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에 앉으심. 소금·등불·등경·산 위의 동네. "천국"이 양 끝 복에. 결의 문(17절).
2 첫 느낌·분위기	앞은 복의 후렴(노래), 뒤는 단호한 "이르노니". 일상 소품의 비유.
3 시작과 끝	시작 — 복의 선언(3절). 끝 — "온전하라"(48절). 낮음과 온전함.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제자·무리. 사상 = 복 → 소금·빛 → 율법의 완전. "이르노니" 6단락.
5 장면 컷	컷 1 산에 앉으심(1-2). 컷 2 팔복(3-12). 컷 3 소금·빛(13-16). 컷 4 율법 완전(17-20). 컷 5 여섯 대구·"온전하라"(21-48).
6 의문·발견·정보	팔복 액자. 거꾸로 선 복. "이르노니" 반복. 소금·빛의 짝. "완전"과 "온전"의 호응. 강한 화법(29-30).
7 동영상	산에 앉음 → 복 선언 → 소금·빛 → 율법의 결 → "온전하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복이 있나니 — 소금·빛, 그리고 온전하라". 부제 — "산 위의 복에서 율법의 온전함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산 위에 앉아 복의 노래와 "이르노니" 사이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꾸로 선 복의 액자:** 가난·애통한 자에게 복이 선언되고(3절), 첫 복과 끝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3·10절)으로 한 액자에 묶인다.
2. **결 2 — 소금과 빛의 정체:** 가르침 한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빛"(13·14절)이라는 정체가 놓인다. 명령 앞에 신분이 먼저 온다.
3. **결 3 — 완전과 온전의 호응:** "완전하게 하려 함"(17절)이 "온전하라"(48절)와 양 끝에서 마주 본다. 폐함이 아니라 채움의 결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5:17(율법과 선지자)은 마 7:12로, 마 5:14-16(빛)은 마 6:22-23(등불)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눅 6:20-23(복의 줄), 출 20:13-14(살인·간음 인용), 레 19:2(거룩·온전).
- 정경 흐름 — 본장의 산상수훈은 6장(구제·기도·염려)과 7장(비판·좁은 문)으로 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결의 첫 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산 위에 앉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의 노래를 듣는다.
- 멈춤 1: 가난한 자에게 복이 선언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너희는 세상의 소금·빛"이라는 정체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들었으나 / 이르노니"의 단호함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복의 선언이 온전함의 부름으로 이어졌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복과 온전함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산에 앉아 가르치신다
- [x] 가난·애통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신다
- [x] 첫 복과 끝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묶인다
- [x] "너희는 세상의 소금·빛"이라 하신다

- [x]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 [x] "들었으나 / 이르노니"가 여섯 번 온다
- [x] 끝은 "온전하라"는 부름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하늘 나라)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5장은 그 호(arc)에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산 위에서 펼치는 자리다. 첫 복과 끝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3·10절)으로 한 액자에 묶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pleroo) 하려 함"(17절)이라는 결의 문이 마태의 핵심 — 구약의 압도적 성취 — 을 못 박는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5장은 '사랑(love)' 명령(마 22)의 뿌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자리다 — "원수를 사랑하라"(44절)는 율법의 온 계명을 마음의 뿌리에서 다시 세운다. 산상수훈은 시내산의 율법을 천상 차원으로 들어 올려, 천국 백성의 의(義)가 외적 준수를 넘어섬을 선포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거꾸로 선 복의 선언(3절)→온전하라는 부름(48절) / 율법의 행위→마음의 뿌리("들었으나 / 이르노니" 여섯 대구).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복에서 온전함으로, 행위에서 마음으로 깊어지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이 율법을 마음의 뿌리까지 들어 올리는 국면이다. 산에 앉으심(1-2절) → 팔복의 액자(3-12절) → 소금·빛의 정체(13-16절) → 율법 완전의 결(17-20절) → 여섯 대구(21-47절) → "온전하라"(48절). 정지된 계명의 목록이 아니라, 받은 복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깊어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복의 선언·소금·빛·여섯 대구다(명제의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이르노니"의 대구는 모두 행위에서 마음으로 내려간다 — 살인에서 노함으로(22절), 간음에서 음욕으로(28절).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외적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까지 다스리는 천국의 의다. 율법의 완성은 글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낳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산상의 가르침이지만, 아래는 시내산의 율법이 천상 차원으로 들려 마음에 새겨지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44절)는 자리까지 — 그 사랑의 깊이가 내 안에서도 자라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거꾸로 선 복의 노래 결과 "온전하라"는 부름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마음의 온전함을 향한 운동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사랑의 척도(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뱉)는 여기서 정점의 결을 보인다 — 미지근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향하는 사랑의 깊이가.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산 위에서 펼쳐진 마음의 의(義)가 이제 은밀한 골방으로 — 보이는 행위의 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구제·기도·금식의 의로 더 깊이 들어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복은 왜 세상과 거꾸로인가(3-10절)?

- 가난·애통·온유·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선언된다.
- 본문은 선언만 두고 까닭을 길게 풀지 않음. 결만 보존.

Q2. 팔복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양 끝을 묶는가?

- 3절과 10절이 같은 말로 닫힌다.
- 액자의 까닭은 보류, 구조만 기록.

Q3. "완전하게 하려 함"(17절)은 무엇을 완전케 함인가?

- 폐함이 아니라 채움·온전이라는 결만 본문이 둔다.
- 방식은 이어지는 단락들로 이월.

Q4. "들었으나 / 이르노니"의 대구는 왜 여섯 번인가?

- 같은 형식이 살인·간음·이혼·맹세·보복·원수에 반복된다.
- 반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눈·손을 빼고 찍으라(29-30절)는 강한 표현은 어떤 화법인가?

- 과장된 결이 가운데 박혀 있다.
- 문자·비유의 판단은 보류, 화법으로만 기록.

Q6. "온전하라"(48절)는 어디까지의 온전인가?

-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결만 본문이 둔다.
- 범위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6장

MAT-006 · 복음서 · 헬라어

은밀한 구제·기도·금식이 하늘의 보물을 지나, 염려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모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5장에서 이어진 산 위의 가르침. 말씀 안에 회당·거리(2·5)·골방(6)·들(26·28절)이 그려짐.
- 소품 = 나팔(2), 골방 문(6), 줌·동록(19), 등불·눈(22), 새·백합화·풀(26·28·30절).
- "아버지"가 후렴 — "은밀한 중에 보시는"(4·6·18), "하늘에 계신"(9·14·26·32절).
- 가운데 주기도문이 박힘(9-13절), 직후 용서의 결(14-1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1-18절)은 "은밀히"의 반복 —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결.
- 뒤(25-34절)는 "염려하지 말라"의 반복 — 마음을 푸는 결.
- 세 행위(구제·기도·금식)가 같은 틀로 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시선의 경계로 열림.
-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 내일의 염려로 닫힘.
- "은밀히"(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내일에 머물지 않음)로 옮겨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외식하는 자(2·5·16) / 이방인(7·32) / 아버지 / 새·백합화.
- 상황 = 같은 행위, 다른 자리 — "외식하는 자처럼" vs "은밀히".
- 사상 = 두 주인("하나님과 재물", 24절), 결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33절).
- 주기도문은 "우리"의 복수형(9·11·12절), 직후 용서의 한 줄(14-1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구제, 나팔 말고 은밀히.
- 컷 2 (5-15): 기도, 골방에서 은밀히, 주기도문, 용서.
- 컷 3 (16-18): 금식, 슬픈 기색 말고 은밀히.
- 컷 4 (19-24): 보물, 눈·등불, 두 주인.
- 컷 5 (25-34): 염려, 새·백합화, "먼저 그의 나라를", 오늘.

6 – (1) 원어 카드

- krypto(κρύπτω) – 숨기다, 은밀히. 4·6·18절의 결.
- hypokrites(ὑποκριτής) – 외식하는 자, 배우. 2·5·16절.
- Pater(Πατήρ) – 아버지. 4·6·9·14·26·32절, 후렴.
- hagiazo(ἀγιάζω) – 거룩하게 하다.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 merimnao(μεριμνάω) – 염려하다. 25·27·28·31·34절.

6 – (2) 문학 구조

- 은밀한 경건(1-18) → 보물·염려(19-34)의 두 묶음.
- 구제·기도·금식 세 단락이 동일 틀 – "외식 말라 / 은밀히 / 아버지께서 갚으심".
- 주기도문의 두 결 – "이름·나라·뜻"(9-10) + "양식·용서·시험"(11-13).
-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21) ↔ "두 주인"(24)의 마음 자리 호응.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나팔(2절)·회당·거리는 보이는 자리의 소품으로 본문이 그림 – 배경으로만.
- 골방 문을 닫음(6절)은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본문이 둠 – 소품 위치로 기록.
- 새·백합화·풀(26·28·30절)은 염려를 푸는 들의 소재로 본문이 둠 – 소재 위치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6:9-13 ↔ 눅 11:2-4 (주기도문)
- 마 6:14-15 ↔ 마 18:35 (용서의 결)
- 마 6:22-23 ↔ 마 5:14-16 (등불·빛)
- 마 6:24 ↔ 눅 16:13 (두 주인)
- 마 6:33 ↔ 마 5:6 (그의 의를 구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하신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은밀히 하라" 하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시고, "눈은 몸의 등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한다" 하신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 먼저 그의 나라를"
- 초벌 부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오늘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회당·골방·주기도문 구조·들의 소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주기도문을 적용 지침으로 풀지 않도록 → 복수형과 두 결의 구조만 기록.
- "두 주인"(24절)을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 마음 자리의 호응만 보존.
- 새·백합화(26·28절)를 위로 메시지로 굳히지 않고 →들의 소재 위치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6장은 은밀한 구제·기도·금식이 하늘의 보물을 지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경계로 열린다. 구제·기도·금식이 같은 틀로 "외식 말고 은밀히 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번 퍼지고,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짧은 기도가 박힌다. 이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마음도 거기 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결이 오고, 새와 백합화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모인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한 줄로 닫히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에 머무는 결로 옮겨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 위의 가르침. 나팔·골방·새·백합화. "아버지" 후렴. 가운데 주기도문(9-13).
2 첫 느낌·분위기	앞은 "은밀히"의 반복, 뒤는 "염려 말라"의 반복. 안으로·풀어 줌.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시작 — 시선의 경계(1절). 끝 — 내일의 염려(34절). 은밀함에서 오늘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제자·외식하는 자·이방인·아버지. 사상 = 두 주인, "먼저 그의 나라"(33절).
5 장면 컷	컷 1 구제(1-4). 컷 2 기도·주기도문(5-15). 컷 3 금식(16-18). 컷 4 보물·주인(19-24). 컷 5 염려·"먼저 그의 나라"(25-34).
6 의문·발견·정보	세 행위 동일 틀. 기도 뒤 용서. 등불의 자리. "우리"의 기도. 염려의 반문.
7 동영상	은밀한 경건 → 주기도문 → 하늘 보물 → 두 주인 → "먼저 그의 나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 먼저 그의 나라를". 부제 —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오늘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골방과 들의 백합화를 걸으며 은밀함과 염려 사이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은밀함의 세 틀:** 구제·기도·금식이 모두 "외식 말고 은밀히, 아버지께서 갚으심"(4·6·18절)의 한 틀로 짜인다. 세 행위가 한 결이다.
2. **결 2 — 마음의 자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21절)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24절)가 마음의 자리를 묻는다. 보물과 주인이 한 결로 이어진다.
3. **결 3 — 먼저의 순서:** 염려의 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33절)가 결론으로 온다. 본문은 순서를 한 단어로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6:33**("그의 의")은 **마 5:6**(의에 주린 자)와, **마 6:22-23**(등불)은 **마 5:14-16**(빛)과, **마 6:14-15**(용서)는 **마 18:35**와 이어진다.
- 다른 권 — **눅 11:2-4**(주기도문), **눅 16:13**(두 주인).
- 정경 흐름 — 본장의 은밀한 경건과 "먼저 그의 나라"는 7장의 비판·구하라·좁은 문으로 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결의 가운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보이려는 시선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새와 백합화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은밀함과 먼저의 순서가 한 결이다*는 것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은밀한 골방*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구제·기도·금식을 은밀히 하라 하신다
- [x]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치신다

- [x] 기도 뒤에 용서의 결이 온다
- [x]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다
- [x]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신다
- [x] 새와 백합화로 염려를 푸신다
- [x] 끝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하늘 나라)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6장은 그 호(arc)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자리다. 주기도문 한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10절)가 박혀, 마태의 천상 차원이 기도의 척추가 된다. 누가복음이 천국을 '내면의 통치'로 비춘다면, 마태는 같은 기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6장은 천국 백성의 시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33절)로 재설정되는 자리다 — 산상의 의가 이제 은밀한 골방의 경건으로, 그리고 삶의 최우선 순서로 깊어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밀한 골방(사람의 눈을 피해, 1·6절)→먼저 그의 나라(삶의 첫 순서, 33절) / 보이려는 무대→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시선과 순서가 옮겨가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이 기도와 우선순위로 내면화되는 국면이다. 시선의 경계(1절) → 은밀한 세 경건(2-18절) → 주기도문(9-13절) → 하늘 보물·두 주인(19-24절) → 염려를 푸는 새·백합화(25-32절) → "먼저 그의 나라"(33절) → 내일을 염려 않는 오늘(34절). 정지된 경건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물에서 그 나라로 옮겨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구제·기도·금식·염려다(명의의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세 경건이 모두 "누구를 청중으로 삼느냐"를 묻는다 — 사람의 칭찬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인가(4·6·18절).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마음의 자리를 다스리는 천국의 통치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21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24절) —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가 본질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골방의 기도이지만, 아래는 하늘의 뜻이 땅의 오늘에 임하기를 구하며 마음을 그 나라로 돌리는 천상 차원의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다른 것을 더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33절)는 그 순서가 — 내 안에서 가장 앞에 서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은밀한 골방 결과 들의 백합화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먼저"의 순서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도화선(우선순위의 재설정)은 여기서 한 단어로 당겨진다 — "먼저". 미지근한 분산이 아니라, 그 나라를 첫 자리에 두는 마음의 정렬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먼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먼저 그의 나라"로 정렬된 마음이 이제 좁은 문과 반석으로 — 산상수훈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한 결단으로 닫힌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구제·기도·금식은 왜 같은 틀로 셋인가?

- "외식 말라 / 은밀히 / 아버지께서 갚으심"이 세 번 반복된다.
- 셋의 묶임만 기록, 까닭은 보류.

Q2. 용서의 말(14-15절)은 왜 기도 뒤에만 붙는가?

- 구제·금식엔 없고 기도에만 한 줄이 더 온다.
- 덧붙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눈은 몸의 등불"(22-23절)은 왜 보물과 주인 사이에 끼는가?

- 등불 비유가 19-21절과 24절 사이에 놓인다.
- 위치의 까닭은 보류, 자리만 기록.

Q4. 주기도문은 왜 "우리"의 복수형인가?

- "우리 아버지·우리 양식·우리 죄"로 짜인다.
- 복수형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27절)는 어떤 반문인가?

- 본문이 답을 두지 않고 질문으로 둔다.
- 반문의 결만 기록, 풀이는 보류.

Q6.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33절)의 "먼저"는 어떤 순서인가?

- 염려의 끝에 "먼저"가 결론으로 온다.
- 순서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7장

MAT-007 · 복음서 · 헬라어

여러 갈림의 짧은 그림들이 좁은 문과 열매를 지나, 같은 비를 맞는 두 집과 반석 위의 집으로 모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5장부터 이어진 산 위의 한 가르침. 끝(28-29절)에 듣는 무리로 카메라가 빠짐.
- 소품이 짝으로 옴 — 티·들보(3-5), 개·돼지·진주(6), 떡·돌·생선·뱀(9-10), 두 문·두 길(13-14), 양의 옷·이리(15), 나무·열매(16-20), 반석·모래의 두 집(24-27절).
- "들어간다"가 후렴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 "천국에 들어갈 자"(21절).
- 가운데 매듭 = 12절 황금률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짧은 그림이 연이어 옴 — 빠른 리듬. 24절부터 한 이야기(두 집)로 모임.
- 끝(28-29절)에 무리의 놀람으로 결이 단단해짐.
- 짝의 대조가 거듭됨 — 좁음/넓음, 좋음/못됨, 반석/모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한 명령으로 열림.
- 28-29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 무리의 놀람으로 닫힘.
- 가르침의 내용에서 가르침의 효과로, 말에서 들음으로 옮겨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무리·제자 / 형제(3-5) / 거짓 선지자(15) / "주여 주여" 하는 자(21-22) / 두 집을 지은 사람(24-26).
- 상황 = 짝의 대조가 거듭됨 — 좁은 문/넓은 문, 좋은 나무/못된 나무, 반석/모래.
- 사상 = "행하는 자" —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21), "듣고 행하는 자"(24절).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7절) 세 동사, "구하는 이마다 받음"(8절)으로 받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비판, 티·들보, 개·돼지·진주.
- 컷 2 (7-12):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떡·돌, 황금률.
- 컷 3 (13-14): 좁은 문·넓은 문, 두 길.
- 컷 4 (15-20): 거짓 선지자, 양의 옷 이리, "열매로 알리라".

- 컷 5 (21-23):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행함.
- 컷 6 (24-29): 반석·모래의 두 집, 무리의 놀람.

6 – (1) 원어 카드

- krino(κρίνω) – 비판하다, 판단하다. 1·2절.
- aiteo(αἰτέω) – 구하다. 7·8·9·10·11절.
- pyle(πόλη) – 문. 13·14절, 좁은 문·넓은 문.
- karpos(καρπός) – 열매. 16·17·18·19·20절, 단락 액자.
- petra(πέτρα) – 반석. 24·25절, 두 집의 터.

6 – (2) 문학 구조

- 관계(1-12) → 갈림(13-23) → 두 집(24-27) → 결어(28-29)의 묶음.
- "열매로 알리라" 액자 2회(16·20절).
- "율법이요 선지자"(7:12) ↔ "율법이나 선지자"(5:17)의 산상수훈 액자.
- 두 집이 같은 비·창수·바람(25·27절)에 다른 결말 – 대조 봉합.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티·들보, 개·돼지·진주는 일상의 짝 소품으로 본문이 둠 – 배경으로만.
- 두 집의 터(반석/모래)는 결말을 가르는 자리로 본문이 둠 – 소품 위치로 기록, 풀이는 보류.
- 28-29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은 가르침의 결을 본문이 보고함 – 인물 반응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7:12 ↔ 마 5:17 (율법과 선지자, 산상수훈 액자)
- 마 7:7-8 ↔ 마 21:22 (구하라·받음)
- 마 7:16-20 ↔ 마 12:33 (열매로 나무를 앎)
- 마 7:24-27 ↔ 눅 6:47-49 (두 집)
- 마 7:28-29 ↔ 마 11:1·13·53·19:1·26:1 (담화 마침 공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티를 빼려 하느냐" 하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하시며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 하시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다"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열매로 알리라" 하신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 무너지지 않으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 무너진다" 하신다.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좁은 문, 열매, 그리고 반석 위의 집"

- 초벌 부제: "여러 갈림의 그림이 한 반석으로 모이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짜 소품·황금률 액자·담화 마침 공식·두 집)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좁은 문/넓은 문(13-14절)을 교리 도식으로 굳히지 않도록 → 대조 짝과 수의 거꾸로만 기록.
- "주여 주여"(21-23절)를 적용으로 풀지 않고 → 부름과 앞의 어긋남만 보존.
- 두 집(24-27절)의 결말 차이를 단정하지 않고 → 같은 비·다른 터의 대조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7장은 여러 갈림의 짧은 그림들이 좁은 문과 열매를 지나 한 반석 위의 집으로 모이는 산상 수훈의 마지막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한 명령으로 열린다. 티와 들보, 개와 돼지의 그림이 지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황금률이 가운데 매듭을 짓는다. 이어 좁은 문과 넓은 문, 양의 옷 입은 이리와 그 열매, "주여 주여"의 고백과 앞의 어긋남이 갈림으로 거듭된다. 그리고 같은 비를 맞는 두 집이 반석과 모래의 터로 갈리며, 듣고 행하는 자의 집만 선다.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라는 한 줄로 산상수훈 전체가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 위의 가르침, 끝에 무리로 빠짐. 짝 소품(티·들보, 개·돼지, 두 문, 나무·열매, 반석·모래). 매듭(12절).
2 첫 느낌·분위기	짧은 그림의 빠른 리듬 → 24절부터 두 집으로 모임. 끝에 무리의 놀람.
3 시작과 끝	시작 — "비판하지 말라"(1절). 끝 — 무리의 놀람(28-29절). 말에서 들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무리·형제·거짓 선지자·"주여 주여" 하는 자·두 집의 사람. 사상 = "행하는 자".
5 장면 컷	컷 1 비판(1-6). 컷 2 구하라·황금률(7-12). 컷 3 좁은 문(13-14). 컷 4 열매(15-20). 컷 5 "주여 주여"(21-23). 컷 6 두 집·놀람(24-29).
6 의문·발견·정보	"열매로 알리라" 액자. 가운데 황금률. 부름과 앞의 어긋남. 같은 비 다른 터. 수의 거꾸로.
7 동영상	비판 말라 → 구하라·황금률 → 좁은 문 → 열매 → 고백 → 반석의 집·놀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좁은 문, 열매, 그리고 반석 위의 집". 부제 — "여러 갈림의 그림이 한 반석으로 모이다".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좁은 문과 두 집을 걸으며 듣는 자리와 행하는 자리 사이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갈림의 거듭됨:** 좁은 문/넓은 문(13-14절), 좋은 나무/못된 나무(17절), 반석/모래(24·26절)가 거듭 짝으로 갈린다. 본문은 둘 중 하나를 거듭 보여준다.
- 결 2 — 듣고 행함:** "주여 주여"의 부름(21절)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24절)가 마주 선다. 부름이 아니라 행함이 집을 세운다.
- 결 3 — 같은 비, 다른 터:** 두 집은 같은 비·창수·바람(25·27절)을 맞으나 반석과 모래의 터로 결말이 갈린다. 풍량이 아니라 터가 결말을 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7:12**("올법ियो 선지자")는 **마 5:17**("올법이나 선지자")와 산상수훈을 감싸는 액자를 이룬다. **마 7:16-20**(열매)은 **마 12:33**으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눅 6:47-49**(두 집).
- 정경 흐름 — 7:28-29의 담화 마침 공식("이 말씀을 마치시매")은 마태복음의 다섯 담화(11:1·13:53·19:1·26:1)를 잇는 첫 자리로, 산상수훈을 한 단위로 닫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비판하지 말라" 앞에서 한 사람이 자기 눈을 본다.
- **멈춤 1:**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갈림에서 멈춘다.
- **멈춤 3:** 같은 비를 맞는 두 집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부름이 아니라 행함이 집을 세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반석과 모래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비판하지 말라" 하시며 들보와 티를 두신다
- [x]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다
- [x]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로 매듭짓는다
- [x]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 [x] "열매로 알리라" 하신다
- [x]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다
- [x] 끝은 반석 위의 집과 무리의 놀람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하늘 나라)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7장은 그 호(arc)에서 산상수훈(천국의 현장)을 한 결단으로 닫는 자리다. 황금률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12절)로 닫히며 5:17("율법이나 선지자")과 액자를 이뤄, 마태의 핵심 — 온 율법과 선지자의 압도적 성취·요약 — 을 못 박는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면, 7:12는 '사랑(love)' 명령(마 22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렸다")의 산상수훈판 요약이다 —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한 줄에 율법 전체가 매달린다.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21절)는 천국이 고백이 아니라 행함의 터 위에 세워짐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박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러 갈림의 짧은 그림(비판·문·열매·고백)→한 반석 위의 집(24절) / 듣는 자리("주여 주여", 21절)→행하는 터("듣고 행하는 자", 2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흩어진 그림이 한 결단으로 모이는 운동이다. 마태의 경로 보면 이는 '구약 성취 → 천상 차원'으로 펼쳐진 천국의 현장이 행함의 터로 착지하는 국면이다. 비판의 경계(1-6절) → 황금률의 매듭(7-12절) → 좁은 문(13-14절) → 열매로 앎(15-20절) → 부름과 앎의 어긋남(21-23절) → 두 집의 갈림(24-27절) → 무리의 놀람(28-29절). 정지된 잠언의 모음이 아니라, 산상의 모든 가르침이 듣고 행하는 한 터로 좁혀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비판·문·나무·두 집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인물의 걸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거듭되는 갈림은 모두 "주여 주여"의 부름과 "행하는 자"의 어긋남(21·24절)으로 모인다 — 말과 마음의 터가 갈린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고백이 아니라 행함의 터 위에 세워지는 천국이다. 같은 비·창수·바람을 맞아도(25·27절) 반석과 모래의 터가 결말을 가른다 — 풍랑이 아니라 터가 본질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두 집의 그림이지만, 아래는 율법과 선지자를 한 줄로 요약한 사랑이 행함의 반석으로 착지하는 천상 차원의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주여 주여"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24절)의 터 위에 — 내 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좁은 문 앞과 같은 비를 맞는 두 집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행함의 터를 향한 운동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도화선(우선순위의 재설정)은 여기서 한 집의 터로 시험된다 — 미지근한 들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여 반석 위에 짓는 결단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반석.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산 위에서 말씀하신 권위가 이제 산을 내려와 — 가르침으로 무리를 놀라게 하신 분이 나병환자·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 권위를 손으로 펼쳐 보이기 시작하신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얼때로 알리라"(16·20절)는 왜 단락을 두 번 감싸는가?

- 같은 말이 거짓 선지자 단락을 액자처럼 두른다.
- 액자의 까닭은 보류, 구조만 기록.

Q2. 황금률(12절)은 왜 가운데에 놓이는가?

- "율법이요 선지자"라며 5:17과 멀리 짝을 이루는 듯하다.
- 위치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왜 "알지 못한다" 하시는가(21-23절)?

- 부름·행함과 얹어 어긋난다.
- 어긋남의 결만 기록, 풀이는 보류.

Q4. 두 집은 왜 재료가 아니라 터로 갈리는가(24-27절)?

- 같은 비, 같은 집인데 반석/모래의 터가 결말을 가른다.
- 터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좁은 문과 넓은 문(13-14절)은 왜 수가 거꾸로인가?

- 넓은 문엔 많고, 좁은 문엔 적다.
- 수의 대조만 기록, 까닭은 보류.

Q6. 무리는 무엇에 놀라는가(28-29절)?

-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는 결만 본문이 둔다.
- 놀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8장

MAT-008 · 복음서 · 헬라어

산에서 내려오자 손이 닿는다. 나병환자·백부장의 종·풍랑·귀신들린 자 — 권세가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산 아래(1절) → 가버나움(5절) → 베드로의 집(14절) → 배 위 바다(23-27절) → 건너편 가다라(28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저물때"(16절). 하루가 저물어 병자가 몰려온다.
- 소품 = 모세가 명한 예물(4절), 풍랑의 배·물결(24절), 가다라의 돼지 떼(30-32절).
- "나병"은 leproso, 레위기 13~14장 정결 규례 아래 격리되던 병(배경). 4절이 "제사장에게 보이랴"며 레위기 절차를 직접 가리킨다.
- 백부장은 로마군 백 명 단위 지휘관 — 이방인이 나아오는 첫 장면 중 하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치유가 연달아 오음("고치시니라" 반복, 16절). 분주하면서도 환함.
-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니"(1절) — 말씀하시던 분이 손 대시는 분으로.
- 장면이 빠르게 이동(산→마을→집→배→건너편). 권세가 종류 다른 것들 앞에 같이 나타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 모여드는 무리로 열림.
- 34절: "온 시내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 밀어내는 시내로 닫힘.
- 따름에서 떠나기를 구함으로 뒤집힌다. 가운데 "나를 따르라"(22절)가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나병환자 / 백부장·종 / 베드로의 장모 / 따르려던 서기관·제자(19·21) / 풍랑 속 제자들 / 가다라의 두 사람 / 돼지 치던 자 / 온 시내.
- 본문이 예언과 연결 — 17절이 이사야 53:4 직접 인용.
- 사상 = 권세(exousia). 백부장의 "말씀으로만"(8), 풍랑의 잔잔(26), 귀신의 "때"(29)가 한 권세 앞에 반응.
-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 — 인자의 첫 등장 중 하나, 거처 없음을 먼저 말함.
-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갚"(12)이 본장에서 처음 등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나병환자, 손을 대시며, 제사장에게 보이라.
- 컷 2 (5-13): 백부장, "말씀으로만", "이만한 믿음".
- 컷 3 (14-17): 베드로 장모, 저물녘 병자, 이사야 인용.
- 컷 4 (18-22): 따름의 대가, "머리 둘 곳 없다".
- 컷 5 (23-27): 큰 놀, 꾸짖으심, 잔잔해진 바다.
- 컷 6 (28-34): 가다라 두 사람, 돼지 떼, 떠나기를 간구.

6 — (1) 원어 카드

- leprosus(λεπρός) — 나병환자. 레위기 정결 규례(4절)와 연결.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백부장의 입(9절)에서 구조로 먼저 언급.
- logos(λόγος) — 말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8절).
- epitimaō(ἐπιτιμάω) — 꾸짖다. 바람·바다(26절)에 쓰임.
- daimonizomai(δαίμονίζομαι) — 귀신 들리다. 28·33절.
- ho huios tou anthropou(인자) —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
- pistis(πίστις) — 믿음. "이만한 믿음"(10절).

6 — (2) 문학 구조

- 고침(1-17) → 따름의 대가(18-22) → 권세 앞의 떨림: 풍랑·귀신(23-34)의 세 묶음.
- "고치시니라" 후렴이 1-17절을 묶는다.
- 숨김(4절 "이르지 말라")과 드러냄(10절 무리 앞 칭찬)이 나란히.
- 본문이 예언을 직접 잇는 대목 — 17절(사 53:4).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나병의 격리·정결 절차는 레위기 13~14장 — 4절이 직접 가리킴.
- 백부장은 로마군 지휘관, 이방인. 11-12절은 "동서로부터"와 "본 자손"을 대조.
-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거주지(돼지 사육) — 본문이 "건너편"(28절)으로 위치만 둠.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8:17 ↔ 사 53:4 (연약·병을 짊어짐, 직접 인용)
- 마 8:4 ↔ 레 13~14 (나병 정결 규례)
- 마 8:11-12 ↔ 마 22:13 / 25:30 ("바깥 어두운 데"의 결)
- 마 8:20 ↔ 마 16:13 / 20:28 (인자 표현의 결)
- 마 8:26 ↔ 시 107:29 (놀을 잔잔케 하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에서 내려오시자 무리가 따른다.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말씀으로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다.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고 저물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 이사야의 말씀이 이뤄진다. 따르려는 두 사람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하

신다. 배에 오르시자 큰 놀이 일고, 깨우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진다. 건너편 가다라에서 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매 귀신이 돼지 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고, 온 시내가 나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한 줄로 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려오시자 손이 닿는다 — 권세 앞에 떠는 것들"
- 초벌 부제: "산을 내려온 권세가 손끝과 말 한마디로 닿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레위기 정결 규례·이사야 인용·백부장·가다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치유 행렬이 "능력 과시"로 굳지 않도록 → 17절의 예언 인용과 권세의 반응만 기록.
- "머리 둘 곳 없다"(20)를 청빈 교훈으로 굳히지 않고 따름의 대가 어휘로만 보존.
- 가다라 시내의 "떠나시기를 간구"(34)를 비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반응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8장은 산을 내려온 권세가 손끝과 말 한마디로 나병·열병·풍랑·귀신에 닿는 장이다.

한 문단: 산상수훈을 마치신 분이 내려오시자, 만지면 안 되는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구하고, 풍랑은 꾸짖음에 잔잔해지며, 귀신은 "때"를 먼저 말한다. 종류가 다른 것들이 같은 권세 앞에

반응한다. 그러나 따름을 청하는 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회복을 본 시내는 떠나시기를 간구한다. 권세가 닿는 자리마다 따름과 떠남이 갈린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 아래(1) → 가버나움(5) → 베드로의 집(14) → 배(23) → 가다라(28). 소품 = 예물·배·돼지 떼. lepros·레위기 정결 규례.
2 첫 느낌·분위기	연달은 치유, 빠른 이동. 말씀하시던 분이 손 대시는 분으로.
3 시작과 끝	시작 — 따르는 무리(1절). 끝 — 떠나기를 간구하는 시내(34절). 따름에서 밀어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나병환자 / 백부장·종 / 장모 / 두 사람 / 시내. 사 53:4 인용(17). 사상 = 권세, 인자의 거처 없음.
5 장면 컷	컷 1 나병(1-4). 컷 2 백부장(5-13). 컷 3 장모·저물녘(14-17). 컷 4 따름(18-22). 컷 5 풍랑(23-27). 컷 6 가다라(28-34).
6 의문·발견·정보	숨김·드러냄. "머리 둘 곳 없다". 귀신의 "때"(29). epitimao가 바람·귀신에 함께. "바깥 어두운 데" 첫 등장.
7 동영상	내려오심 → 손 닿음 → 따름의 대가 → 풍랑 잔잔 → 가다라 → 떠나기를 간구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내려오시자 손이 닿는다 — 권세 앞에 떠는 것들". 부제 — "산을 내려온 권세가 손끝과 말 한 마디로 닿는 자리".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산 아래와 마을과 바다를 걸으며 만지심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만지심:** 격리되던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3절). 닿으면 안 되는 자리에 손이 먼저 간다.
- 결 2 —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8절)와 풍랑을 "꾸짖으시니"(26절)가 한 권세로 놓인다.
- 결 3 — 따름과 떠남:** "나를 따르라"(22절)와 "떠나시기를 간구"(34절)가 같은 장 안에 마주 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6:13** (인자 표현의 결), **마 22:13 / 25:30** ("바깥 어두운 데").
- 다른 권 — **사 53:4** (연약·병을 짊어짐, 17절 인용), **레 13~14** (나병 정결 규례, 4절).
- 정경 흐름 — 8~9장의 열 가지 표적은 5~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마태의 한 묶음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만지면 안 되는 줄 알던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손이 먼저 닿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말씀으로만"이 구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풍랑이 꾸짖음에 잔잔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권세는 손끝과 말 한마디로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따름과 떠남이 갈리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 [x] 백부장이 "말씀으로만"을 구한다
- [x] 저물매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 [x] 따름에는 거처 없음의 대가가 있다
- [x] 바람과 바다가 꾸짖음에 잔잔해진다
- [x] 가다라의 귀신이 돼지 떼로 들어간다
- [x] 끝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시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천국)의 **구약 성취**다(book-telos.json: 율법의 성취→천국으로의 치환, 천상 차원으로의 확장). 복음서 4중주에서 마가가 권능의 증명을, 누가가 내면의 통치를 비춘다면, 마태는 같은 사건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읽는다. 8장은 산상수훈(5~7장)의 '말씀하시는 왕' 뒤에 놓인 '**일하시는 왕**'의 첫 묶음이다. 17절이 그 좌표를 명시한다 —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사 53:4 인용). 나병·열병·풍랑·귀신의 치유가 흠어진 기적이 아니라, 이사야의 종이 지금 손끝으로 임했다는 성취의 증거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이 장은 창 1:28 '통치(Reign)'의 권세가 병과 혼돈과 부정 위에 미치는 자리에 닿는다 — 단, 그 통치는 정복이 아니라 경계 밖으로 먼저 나가는 손의 결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르치는 말씀→일하는 권세 / 정결이 부정을 피함→권세가 부정에 먼저 닿음(나병·이방·무덤가).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말에서 손으로 미는 운동이다. 산을 내려옴(1절) → 나병환자에게 내민 손(3절) → 백부장의 "말씀으로만"(8절) → 풍랑을 꾸짖음(26절) → 귀신을 보냄(32절) → 떠나시기를 구하는 시내(34절). 천상의 권세가 지상의 가장 낮은 병상으로 내려오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네 가지 치유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 의(현상)** — 나병이 깨끗해지고 열병이 떠나고 바다가 잔잔해진다, 병과 혼돈을 다스리는 권세. **대 의(마음·인격)** — 백부장의 믿음("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한", 10절)과 따름의 대가("머리 둘 곳이 없다", 20절)에서, 권세는 몸뿐 아니라 신뢰와 헌신을 일으킨다. **신 의(원인)** — 17절이 가리키는 뿌리: 이 모든 닿음은 종이 "친히 담당"하심에서 온다. 표면의 치유 아래, 부정을 덮어 정결케 하는 권세의 뿌리가 흐른다. 단, 그 담당하심의 끝이 어디까지 미치는 본문이 더 말하지 않으므로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도(Temperature) — 만지면 안 되는 자리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권세 앞에서, 나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의 뜨거운 신뢰에 서는가, 아니면 떠나시기를 구하는 시내의 미지근함에 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백부장의 신뢰 결과 떠나기를 구하는 시내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권세가 내 경계 안에 닿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권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빈 들과 병상에 닿은 권세가 죄 사함으로 — 몸의 회복보다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중풍병자 위에 놓이는 자리(9장)로 카메라가 더 깊이 내려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나병환자에게 "이르지 말라"(4절), 백부장에게는 무리 앞 칭찬인가?

- 숨김과 드러냄이 한 장 안에 나란히.
- 두 결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를 따름 청하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까닭은?

- 거처 없음을 따름의 대가로 먼저 두심.
-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22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따름과 미룸 사이의 강한 말씀.
- 어휘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귀신이 먼저 안 "때"(29절)는 무슨 때인가?

- "때가 이르기 전에"를 그들이 먼저 말함.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같은 동사 epitimao(꾸짖다)가 바람·바다와 귀신에 함께 쓰인 까닭은?

- 자연과 영이 같은 동사 아래 놓임.
- 어휘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고침받은 시내가 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가(34절)?

- 회복 다음에 떠남을 구하는 결.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9장

MAT-009 · 복음서 · 헬라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중풍병자 위에 놓인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고, 혈루증과 회당장 딸 사이로 걸으신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자기 동네 가버나움(1절) → 세관(9절) → 마태의 집(10절) → 길·회당장의 집(18-26절) → 길 위(27절)로 옮겨간다.
- 소품 = 중풍병자의 침상(2·6절), 세관, 회당장 집의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23절), 여인이 만진 겹옷가(20절).
- "세리"는 telones로 로마 세금을 걷던 자 — "세리와 죄인"으로 함께 불림(10-11절, 배경).
- "겹옷가"(kraspedon)는 민 15:38 옷단 술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배경).
- 35절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로 넓게 닫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고침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가 먼저 옴 — 순서가 뜻밖.
- 부르심이 갑작스러움 — "일어나 따르니라"(9절)가 한 절에.
- 두 이야기 겹침(혈루증 ↔ 회당장 딸). 바리새인의 반대가 세 번 반복(11·14·34).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자기 동네에 이르시니" — 한 동네 한 병자로 열림.
- 38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 일꾼을 구하는 기도로 닫힘.
- 한 사람에서 "모든 성과 마을"(35), "목자 없는 양"(36)으로 넓어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중풍병자·멘 자들 / 서기관 / 세리 마태 / 죄인들 / 바리새인 / 요한의 제자 / 회당장 / 혈루증 여인 / 회당장 딸 / 두 맹인 / 말 못하는 자.
- 호 6:6 직접 인용 — "공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13절).
- 사상 = 공흠. 13절·36절(splanchnizomai)에 두 번.
- 금식 물음에 "신랑"(nymphios) 비유(15), 생베·새 포도주(16-17)로 답함.
-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22, sozo)가 거듭 쓰임(혈루증·맹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중풍병자, "죄 사함", 권세.

- 컷 2 (9-13): 마태 부르심, 죄인과 음식, "공회를 원하노라".
- 컷 3 (14-17): 금식 물음, 신랑 비유, 새 포도주.
- 컷 4 (18-26): 회당장 청, 혈루증 옷자락, 소녀를 일으키심.
- 컷 5 (27-31): 두 맹인, "믿음대로 되라".
- 컷 6 (32-38): 말 못하는 자, 비방, 목자 없는 양, 추수 기도.

6 – (1) 원어 카드

- aphiemi(ἀφίημι) – 사하다·놓아주다. "죄 사함"(2·5·6절).
- telones(τελώνης) – 세리. "세리와 죄인"(10-11절).
- sozo(σώζω) – 구원하다·낫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22절).
- nymphios(νυμφίος) – 신랑. 금식 물음의 비유(15절).
- kraspedon(κράσπεδον) – 겹옷 가·옷단 술(20절).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불쌍히 여기다. "목자 없는 양"(36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죄 사하는 권세(6·8절).

6 – (2) 문학 구조

- 권세·부르심·새것(1-17) → 믿음의 손길(18-31) → 무리·일꾼(32-38)의 세 묶음.
- 겹친 이야기(샌드위치) – 회당장 청(18) 안에 혈루증(20-22), 다시 회당장 집(23-26).
- 짝 비유 둘 – 생베·낫은 옷(16), 새 포도주·낫은 부대(17).
- 공회가 처음·끝 가까이 두 번(13·36).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세리는 로마 세금 청부인 – 사회·종교적으로 "죄인"과 함께 묶임(배경).
- 호세아 6:6("공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을 본문이 직접 인용(13절).
- "목자 없는 양"(36)은 민 27:17·겔 34장의 결을 떠올리게 함(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9:13 ↔ 호 6:6 (공회를 원하노라, 직접 인용)
- 마 9:36 ↔ 민 27:17 / 겔 34 (목자 없는 양)
- 마 9:9 ↔ 마 4:19 (부르심의 결, "나를 따르라")
- 마 9:18-26 ↔ 막 5:21-43 / 눅 8:40-56 (겹친 두 치유)
- 마 9:27 ↔ 마 20:30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의 부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네에 이르시니 중풍병자를 데려온다. 고침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매 서기관이 속으로 다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선다. 세관의 마태를 부르시매 일어나 따르고, 죄인과 음식을 잡수시며 "공회를 원하노라" 하신다. 금식 물음에 신랑 비유로 답하시고,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겹옷 가를 만져 낫는다. 회당장 집에서 소녀를 일으키시고, 두 맹인의 눈을 여시며,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다. 모든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꾼을 보내 주소서" 청하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받았느니라 — 죄 사함에서 목자 없는 양에게로"
- 초벌 부제: "죄 사함에서 시작해 목자 없는 양에게로 넓어지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세리 배경·호 6:6 인용·옷단 술·목자 없는 양)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죄 사함이 먼저"(2)를 교리 명제로 굳히지 않고 본문 순서로만 기록.
- 혈루증 여인의 "만지면"(21)을 부적 신앙/주술로 판단하지 않고 본문 진술만 보존.
- "잔다"(24)와 죽음의 병치를 신학 결론으로 굳히지 않고 어휘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9장은 죄 사함으로 열린 권세가 부르심·믿음의 손길·공휼을 지나 목자 없는 양에게로 넓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중풍병자 위에 고침보다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놓인다. 세관에 앉은 마태가 한 절 안에 일어나 따르고, 죄인과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공휼을 원하노라"가 선포된다.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겹옷 가를 만져 낮고, 맹인의 눈이 열린다. 끝에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며 일꾼을 구하는 기도로 닫힌다. 한 사람의 사함에서 온 무리의 추수로 결이 넓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동네(1) → 세관(9) → 마태의 집(10) → 회당장의 집(18-26) → 길(27). 소품 = 침상·세관·겂옷 가. telones·옷단 술.
2 첫 느낌·분위기	고침보다 사함이 먼저. 갑작스런 부르심. 겂친 이야기, 세 번의 반대.
3 시작과 끝	시작 — 한 동네 한 병자(1절). 끝 — 일꾼을 구하는 기도(38절). 한 사람에서 온 무리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중풍병자 / 마태 / 바리새인 / 회당장 / 혈루증 여인 / 두 맹인. 호 6:6 인용(13). 사상 = 긍휼.
5 장면 컷	컷 1 중풍병자(1-8). 컷 2 마태(9-13). 컷 3 금식·새겂(14-17). 컷 4 겂친 치유(18-26). 컷 5 맹인(27-31). 컷 6 무리·일꾼(32-38).
6 의문·발견·정보	사함이 먼저(2). 옷자락의 손(21). "잔다"(24). "알리지 말라"의 어긂남(30-31). sozo 반복.
7 동영상	죄 사함 → 부르심 → 새겂 → 믿음의 손길 → 일으키심 → 목자 없는 양·추수 기도로 흐름.
8 초겂 제목·부제	제목 — "받았느니라 — 죄 사함에서 목자 없는 양에게로". 부제 — "죄 사함에서 시작해 목자 없는 양에게로 넓어지는 자리".
9 동영상 안 겂기·기도	동네와 세관과 회당장의 집을 겂으며 사함과 부르심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겂

1. **겂 1 — 먼저 온 사함:** "일어나 겂어가라"(6절)보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가 앞선다. 고침의 장이 사함으로 열린다.
2. **겂 2 — 긍휼이 감싸는 장:** "긍휼을 원하노라"(13절)와 "불쌍히 여기시니"(36절)가 처음과 끝 가까이에 놓인다.
3. **겂 3 — 한 사람에서 무리로:** 한 동네 한 병자(1절)에서 "모든 성과 마을"(35절)의 "목자 없는 양"(36절)으로 넓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4:19** (부르심 "나를 따르라"), **마 20:30** ("다윗의 자손이여").
- 다른 권 — **호 6:6** (긍휼을 원하노라, 13절 인용), **민 27:17 / 겂 34** (목자 없는 양).
- 정경 흐름 — 9장 끝의 "일꾼을 보내 주소서"(38)는 곧장 10장의 열두 제자 파송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침상에 누운 한 사람 겂에 선다.
- **멈춤 1:** 고침보다 사함이 먼저 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세관의 마태가 일어나 따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여인이 겂옷 가를 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사함이 먼저고, 긍휼이 장을 감싼다*는 겂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목자 없는 양과 적은 일꾼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이 먼저 선포된다
- [x] 세관의 마태가 일어나 따른다
- [x] "공흠을 원하노라"가 선포된다
- [x] 혈루증 여인이 겔옷 가를 만져 낫는다
- [x] 회당장의 딸이 일어난다
- [x] 두 맹인의 눈이 열린다
- [x] 끝은 목자 없는 양과 추수 기도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book-telos.json). 9장은 8장의 '일하시는 권세'가 **죄 사함의 권세**로 한 층 깊어지는 자리다 —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6절). 마태는 이 권세를 구약의 공흠 언어로 못박는다: "공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13절, 호 6:6 인용). 복음서 4중주에서 누가가 같은 공흠을 개개인의 내면으로 비춘다면, 마태는 이를 **호세아 성취·새 가족의 부름**으로 읽는다 — 세리·죄인을 부르는 자리(9-13절)가 천국 백성의 경계를 새로 긋는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이 장은 마 22의 '사랑(Love)' 명령으로 미리 기운다 — 공흠이 제사 위에 놓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끝의 "추수할 일꾼"(38절) 기도는 마 28 '제자(Disciple)' 명령의 씨앗을 미리 뿌린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사람의 죄 사함 → 온 무리의 추수 / 격리(세관·죄인·죽음) → 공흠이 그 격리 안으로 들어감.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병상에서 온 들판으로 미는 운동이다. 중풍병자의 사함(2절) → 세관의 마태를 부름(9절) → 죄인과의 식탁(10절) → 혈루증·회당장 딸·맹인(18-31절) → "목자 없는 양"의 무리(36절) → 일꾼 기도(38절). 한 사람을 일으킨 공흠이 추수의 들판으로 번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사함·부르심·치유·소생이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 의(현상)** — 중풍이 일어나 걷고, 혈루가 그치고, 맹인이 보고, 죽은 소녀가 일어난다. **대 의(마음·인격)** — 마태의 즉각적 따름(9절), 혈루증 여인의 "겔옷만 만져도"의 믿음(21절), 죄인과 함께 앉으심에서, 권세는 몸뿐 아니라 막힌 관계와 격리된 자리를 회복한다. **신 의(원인)** — 13절이 가리키는 뿌리: 이 모든 일으킴은 "공흠을 원하노라"(splanchnizomai의 결)에서 온다. 표면의 치유 아래, 제사보다 공흠을 앞세우는 마음의 뿌리가 흐른다. 단, 그 공흠이 어디까지 추수를 거두는지는 본문이 더 말하지 않으므로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불(Fire·열정) —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한 마태의 즉각이, 부르심 한 마디에 일어나는 그 불이 내 안에도 타오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마태의 일어난 결과 "공흠을 원하노라"의 식탁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추수의 들판으로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긍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부르심이 보냄으로 — 추수할 일꾼을 구하던 기도가 곧 열둘을 이름으로 불러 보내시는 파송(10장)으로 응답된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고침보다 "죄 사함"(2절)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 병 앞에서 사함이 먼저 놓임.
-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혈루증 여인은 왜 만지기만 하려 했는가(21절)?

- 말 없이 걸옷 가를 만짐.
-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진술만 보존.

Q3. "잔다"(24절)와 죽음을 한 자리에 두신 까닭은?

- 죽음과 잠을 함께 두심.
- 어휘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알리지 말라"(30절) 명하셨는데 왜 퍼뜨려지는가(31절)?

- 명하심과 어긋난 결과가 기록됨.
- 본문이 평가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신랑 비유(15)와 새 포도주(17)는 금식 물음과 어떻게 잇는가?

- 금식 물음에 혼인·새것의 결로 답함.
- 관계는 답하지 않고 어휘만 보존.

Q6. 긍휼(13:36)이 처음과 끝 가까이 두 번 놓인 까닭은?

- splanchnizomai가 장을 감쌌.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0장

MAT-010 · 복음서 · 헬라어

열둘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 파송이 곧 박해의 예고와 한 호흡이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보내심" 자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6절), "어느 성이나 마을"(11절), "그 집"(12절).
- 소품 = 가지지 말 것의 목록 — 전대·배낭·두 벌 옷·신·지팡이(9-10절), 발의 먼지(14절), 검(34절), 냉수 한 그릇(42절).
- "사도"는 apostolos("보냄을 받은 자") — 본장에서 처음 "열두 사도"로 부름(2절).
- "바알세불"이 집주인의 이름으로 미리 한 번 놓임(25절) — 12장 논쟁과 같은 이름.
- "끝까지 견딤"(22)·"인자가 오기 전"(23)으로 닫히지 않은 시간이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이름을 부르는 따뜻함(2-4), 뒤는 박해의 무거움(16-22). 파송과 고난이 한 호흡.
- 거의 전부 한 편의 긴 강론(5-42) — 장면 전환 적음.
-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 후렴(26·28·31).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권능을 주시니라" — 큰 권능으로 열림.
- 42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 가장 작은 것으로 닫힘.
- 큰 권능에서 냉수 한 그릇으로 좁혀진다. 가운데 박해·검·분열의 무거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열두 제자(이름 2-4) / 보냄받을 양 / 이리 같은 박해자 / 총독·임금(18) / 아버지·자식(21·35).
- 미 7:6의 결 — 아버지와 아들이 갈림(35-36절).
- 사상 = 시인·부인(homologeo, 32-33), 합당함(axios, 37-38).
- 변호의 말이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심(20절).
- 목숨(psyche)을 잃음·얻음이 자리를 바꿈(3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열둘을 부르심, 권능, 열두 이름.
- 컷 2 (5-15): 파송 지침, "잃어버린 양", 채비 없이, 발의 먼지.

- 컷 3 (16-23): "이리 가운데 양", 넘겨줌, 성령이 말하게 하심.
- 컷 4 (24-31): 제자와 선생, "두려워 말라" 3회, 참새·머리털.
- 컷 5 (32-39): 시인·부인, 검·분열, 자기 십자가, 목숨.
- 컷 6 (40-42): 영접·보상, 선지자의 상, 냉수 한 그릇.

6 – (1) 원어 카드

- apostolos(ἀπόστολος) – 사도·보냄받은 자(2절).
- probaton(πρόβατον) / lykos(λύκος) – 양 / 이리. "이리 가운데 양"(16절).
- phronimos(φρόνιμος) / akeraios(ἀκέραιος) – 지혜로운 / 섞이지 않은. "뱀같이... 비둘기같이"(16절).
- homologeo(ὁμολογέω) – 시인하다(32-33절).
- machaira(μάχαιρα) – 검. "검을 주러 왔노라"(34절).
- axios(ἄξιος) – 합당한. 37-38절 3회.
- psyche(ψυχή) – 목숨·생명·자아(39절).

6 – (2) 문학 구조

- 부름·보냄(1-15) → 당할 일·각오(16-39) → 영접·상(40-42)의 세 묶음.
- "두려워하지 말라" 후렴 3회(26·28·31).
- "합당하다" 3회 반복(37-38) – 저울 같은 어구.
- 큰 권능(1)과 냉수 한 그릇(42)의 양 끝 대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파송 지침의 채비 없음(전대·배낭 없이)은 당시 순회 사역의 결을 배경으로 둠.
- "발의 먼지를 떨라"(14)는 당시 거부 표시의 관습적 몸짓(배경).
- 35-36절은 미가 7:6("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을 잇는 결(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0:35-36 ↔ 미 7:6 (가족의 분열)
- 마 10:25 ↔ 마 12:24 ("바알세불"의 결)
- 마 10:39 ↔ 마 16:25 (목숨을 잃음·얻음)
- 마 10:6 ↔ 마 15:24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 마 10:40 ↔ 마 25:40 (작은 자를 영접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열들을 부르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이름을 부르신다. 보내시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채비 없이 가라,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를 떨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다. "이리 가운데 양같이 보낸다", 넘겨질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디라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세 번 두시고, 시인하는 자를 시인하리라 하신다. "검을 주러 왔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심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초벌 부제: "이름을 불러 보내심이 곧 박해의 예고와 한 호흡인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도 어의·먼지 떨기 관습·미 7:6·바알세불)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검을 주러 왔다"(34)를 폭력 정당화로 굳히지 않고 분열의 결로만 기록.
-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5)를 배타 교리로 굳히지 않고 보내심의 한정으로만 둬.
- "목숨을 잃음·얻음"(39)을 적용 명제로 굳히지 않고 psyche의 두 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0장은 열둘을 이름으로 불러 보내심이 곧 박해의 예고와 한 호흡으로 흐르는 파송 강론의 장이다.

한 문단: 권능을 주시고 열두 이름을 하나씩 부르신 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보내신다. 그러나 보내심은 곧 "이리 가운데 양"이 되고, 넘겨짐과 미움과 분열이 따라온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 후렴처럼 박히고, 시인과 부인, 검과 십자가, 목숨을 잃음과 얻음이 저울 위에 놓인다. 큰 권능으로 열린 장이 냉수 한 그릇의 상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보내심" 자체가 무대. 소품 = 가지지 말 것의 목록·발의 먼지·검·냉수. apostolos·바알세불(25).
2 첫 느낌·분위기	이름의 따뜻함 → 박해의 무거움. 한 편의 긴 강론. "두려워 말라" 3회.
3 시작과 끝	시작 — 큰 권능(1절). 끝 — 냉수 한 그릇(42절). 큰 데서 작은 데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열두 제자(이름 2-4) / 양 / 이리 / 총독·임금 / 가족. 미 7:6의 결. 사상 = 시인·부인, 합당함.
5 장면 컷	컷 1 부르심(1-4). 컷 2 파송 지침(5-15). 컷 3 이리 가운데(16-23). 컷 4 두려워 말라(24-31). 컷 5 검·십자가(32-39). 컷 6 냉수 한 그릇(40-42).
6 의문·발견·정보	"거저 주라"(8).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5). 성령이 말하게 하심(20). 참새·머리털(29-30). 목숨의 뒤집힘(39).
7 동영상	이름을 부르심 → 채비 없이 보냄 → 박해·시인·부인·검 → 냉수 한 그릇의 상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심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부제 — "이름을 불러 보내심이 곧 박해의 예고와 한 호흡인 자리".
9 동영상 안건기·기도	보냄받아 걷는 길을 걸으며 양과 이리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보냄과 고난이 한 호흡:** "보내노라"(16절) 바로 뒤에 "이리 가운데 양"이 온다. 파송과 박해가 한 문장에 묶인다.
2. **결 2 — 두려움을 가르는 후렴:** 무거운 말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라"(26·28·31절)가 세 번 박혀 무게를 나눈다.
3. **결 3 — 큰 권능과 냉수 한 그릇:** 귀신 쫓는 권능(1절)으로 열린 장이 작은 자의 냉수 한 그릇(42절)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2:24** ("바알세불"의 결), **마 16:25** (목숨을 잃음·얻음), **마 25:40** (작은 자 영접).
- 다른 권 — **미 7:6** (가족의 분열, 35-36절).
- 정경 흐름 — 9:38의 "일꾼을 보내 주소서"가 10장의 파송으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이름이 불리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냄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보냄은 곧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양과 이리 사이의 길 위*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열둘이 이름으로 불린다
- [x]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는다
- [x] "이리 가운데 양같이" 보냄받는다
- [x]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 들린다
- [x] 시인과 부인이 양쪽으로 놓인다
- [x]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 [x] 끝은 냉수 한 그릇의 상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다(book-telos.json). 10장은 마태복음 다섯 강론 중 둘째 — **파송 강론**이다. 9장 끝의 "추수할 일꾼"(38절) 기도가 10장에서 열두 일꾼의 파송으로 응답된다. 복음서 4중주에서 이 장은 마태 특유의 '**제자 명령의 씨앗**'을 비춘다 — 5대 대명령 척추의 마 28 지상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 여기서 처음 싹튼다. 다만 그 파송은 아직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5-6절)로 한정된다 — 부활 후 "모든 족속"(마 28:19)으로 넓어지기 전, 구약 언약 백성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좌표다. 책 telos가 '천상 차원으로의 확장'을 비추듯, 이 파송은 한 갈릴리에서 시작해 끝내 열방으로 번질 운동의 첫 점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이름)→보내심(파송) / 권능을 받은 사도→이리 가운데 양("두려워 말라" 3회 위의 보냄).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모음에서 흩어 보냄으로 미는 운동이다. 권능을 주심(1절) → 열두 이름(2-4절) →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6절) → "이리 가운데 양"(16절) → "두려워하지 말라"의 세 후렴(26·28·31절) → 시인과 검과 십자가(32-39절) → 냉수 한 그릇의 상(42절). 부른 자를 약함으로 보내되 끝의 상을 약속하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열둘의 부름과 파송 강론이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의(현상)** — 권능을 주시고 보내심,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1·8절). **대의(마음·인격)** — 박해 앞의 두려움을 세 번 거두시고("두려워 말라"), 시인과 부인 사이에서 제자의 마음을 빛으심에서, 파송은 행위뿐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내면을 일으킨다. **신의(원인)** — 29-30절이 가리키는 뿌리: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아버지의 돌봄 밖에 있지 않다. 표면의 파송 아래, 보내는 이의 빈틈없는 돌봄이라는 뿌리가 흐른다. 단, 그 돌봄이 박해의 끝을 어떻게 거두는지는 본문이 더 말하지 않으므로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도(Temperature) —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의 뜨거움과 "나를 부인하면"의 미지근함 사이에서, 보내심을 받은 나는 어느 온도에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시인의 자리와 부인의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로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보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제자가 오라로 — 보냄의 무거움 끝에, 갠 요한의 물음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11장)가 놓인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5절)며 보내심을 이스라엘로 한정하셨는가?

- 앞 8장 백부장(이방인) 칭찬과 나란히 둠.
- 한정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8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받음과 줌이 같은 동사로 묶임.
- 어구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변호의 말이 왜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20절)인가?

- 본문이 말의 주체를 옮김.
-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진술만 보존.

Q4. "인자가 오기 전에 다 다니지 못하리라"(23절)는 어떤 시간인가?

- 닫히지 않은 시간이 놓임.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분포만 보존.

Q5. "검을 주러 왔노라"(34절)와 "두려워 말라"(26·28·31)는 어떻게 함께인가?

- 무거운 말과 위로의 후렴이 한 강론에.
- 관계는 답하지 않고 어휘만 보존.

Q6.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39절)는 뒤집힘은 무엇인가?

- psyche가 한 문장에서 두 결로.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1장

MAT-011 · 복음서 · 헬라어

간힌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묻는다. 책망과 탄식 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여러 동네"(1절)를 도는 가르침. 요한은 "옥에서"(2절) 듣고, 20-24절은 고라신·벧새다·가버나움 실명 도시.
- 소품 = "부드러운 옷"(8절, 요한의 옷과 대비), 피리·애곡(17절), 멍에(29절).
- "실족"은 skandalizo("걸려 넘어지다") — 요한의 물음에 대한 답 끝(6절).
- "베옷·재"(21절)는 구약 회개 표시(욘 3·단 9 등) — metanoeo(회개)의 결.
- "멍에"(zygos, 29)는 당시 율법을 부르던 표현과 닿음(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간힌 요한의 무거운 물음(2-3), 가운데는 매서운 책망(20-24), 끝은 부드러운 초청(28-30). 큰 낙차.
- 장면보다 말씀이 단계로 흐름 — 요한 → 세대 → 도시 → 찬송 → 초청.
- "화 있을진저"(21) 다음에 "내게로 오라"(28).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 가르침으로 열림.
-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 가벼운 짐으로 달힘.
- 무거운 물음·책망에서 가벼운 짐으로 옮겨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옥의 요한·그 제자들 / 무리 / 이 세대 / 고라신·벧새다·가버나움 / 어린아이(25) / 아버지·아들.
- 말 4장의 결 — "곧 오리라 한 엘리야"(14절).
- 사상 = 감추임·나타냄(apokalypto, 25). 지혜자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
- 요한 = "가장 큰 자"이면서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음"(11) — 큼·작음의 겹침.
- "수고·짐"(kopiao·phortion, 28)에 "운유·겸손"(praus·tapeinos, 29)으로 받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옥의 요한, "당신이니이까", 일어난 일,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
- 컷 2 (7-15): 요한 증언, "가장 큰 자", 곧 올 엘리야.

- 컷 3 (16-19): 이 세대 비유, 피리·애곡, 엇갈린 평가.
- 컷 4 (20-24): 세 도시 책망, 두로·시돈·소돔과 비교.
- 컷 5 (25-27): 아버지 찬송,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
- 컷 6 (28-30): "내게로 오라", 멍에·쉽.

6 – (1) 원어 카드

- skandalizo(σκανδαλίζω) – 실족하다·걸려 넘어지다(6절).
- metanoeo(μετανοέω) – 회개하다. 베옷·재의 걸(21절).
- apokalupto(ἀποκαλύπτω) – 나타내다·게시하다(25·27절).
- zygos(ζυγός) – 멍에(29-30절).
- anapauro(ἀναπαύω) – 쉬게 하다. 28·29절 두 걸.
- praus(πραΰς) / tapeinos(ταπεινός) – 온유한 / 겸손한(29절).
- phortion(φορτίον) / koriao(κοπιάω) – 짐 / 수고하다(28·30절).

6 – (2) 문학 구조

- 요한과 세대(1-19) → 도시 책망(20-24) → 찬송·초청(25-30)의 세 묶음.
- "화 있을진저"(21·21) 반복으로 도시 책망을 묶음.
- 큼·작음의 겹침(11) – 한 사람에게 두 평가.
- 매서움(책망)과 부드러움(초청)의 끝 대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21)는 구약의 회개 표시(은 3:6·단 9:3, 배경).
- 23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사 14장(바벨론)의 걸을 떠올리게 함(배경).
- "멍에"(29)는 당시 랍비 전통에서 율법·가르침을 부르던 표현과 닿음(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1:5 ↔ 사 35:5-6 / 61:1 (맹인이 보며·가난한 자에게 복음)
- 마 11:10 ↔ 말 3:1 (네 길을 준비할 사자)
- 마 11:14 ↔ 말 4:5 (오리라 한 엘리야)
- 마 11:23 ↔ 사 14:13-15 (하늘에 높아짐·음부에 낮아짐)
- 마 11:29 ↔ 렘 6:16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으리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옥의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묻는다. 일어난 일을 들려 보내시며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요한을 "가장 큰 자", 곧 올 엘리야라 하신다. 이 세대를 피리에도 애곡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유하시고, 권능을 본 세 도시를 책망하시며 두로·시돈·소돔과 비교하신다. "그때에"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이 뜻이라 하시고, 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 초벌 부제: "간힌 자의 물음과 매서운 책망 끝에 놓인 가벼운 멍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베옷·재 회개 표시·말 3·4장·멍에 전통·사 14장)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도시 책망(20-24)을 정죄 설교로 굳히지 않고 비교·대조의 본문 진술로만 기록.
- "멍에·섬"(29-30)을 적용 명제로 굳히지 않고 짐 벗음·멍에 멍의 병치로 보존.
- "숨기고 나타내심"(25)을 예정 교리로 굳히지 않고 본문 어휘 분포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1장은 간힌 자의 물음과 매서운 책망 끝에 "내게로 오라"는 가벼운 멍에가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옥에 갇힌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묻는다. 일어난 일로 답하시고, 요한을 가장 큰 자라 높이시면서도 천국의 작은 자보다 작다 하신다. 이 세대를 피리에도 애곡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견주시고, 권능을 본 도시들을 책망하신다. 그러나 "그때에"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시고, 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를 두신다.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내려앉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여러 동네"(1) 가르침, 옥(2), 세 실명 도시(20-24). 소품 = 부드러운 옷·피리·애곡·명예. skandalizo·베옷·재.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운 물음 → 매서운 책망 → 부드러운 초청. 큰 낙차.
3 시작과 끝	시작 — 가르침(1절). 끝 — 가벼운 명예(30절).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옥의 요한 / 무리 / 이 세대 / 세 도시 / 어린아이 / 아버지·아들. 말 4장의 결. 사상 = 감추임·나타냄.
5 장면 컷	컷 1 옥의 물음(1-6). 컷 2 요한 증언(7-15). 컷 3 세대 비유(16-19). 컷 4 도시 책망(20-24). 컷 5 찬송(25-27). 컷 6 초청(28-30).
6 의문·발견·정보	답 대신 일어난 일(5). 큼·작음(11).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 함"(19). 숨김·나타냄(25). 명예·쉽(29).
7 동영상	옥의 물음 → 요한 증언 → 세대 비유 → 도시 책망 → 아버지 찬송 → 짐 진 자 초청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제 — "갇힌 자의 물음과 매서운 책망 끝에 놓인 가벼운 명예".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옥과 동네와 초청의 자리를 겹으며 짐과 명예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답 대신 일어난 일:** 요한의 물음에 "예/아니오" 아닌 "맹인이 보며..."(5절)로 답하신다. 증언이 일어난 일로 온다.
2. **결 2 — 매서움과 부드러움:** 도시 책망(20-24절) 바로 뒤에 "내게로 오라"(28절)가 놓인다. 같은 입에서 두 음색이 난다.
3. **결 3 — 짐을 벗고 명예를 땀:** "무거운 짐"을 벗으라 하시며 "내 명예를 메라"(29절) 하신다. 벗음과 땀이 한 자리에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3:1-3** (광야의 요한), **마 17:12-13** (엘리아와 요한).
- 다른 권 — **사 35:5-6 / 61:1** (맹인이 보며·가난한 자에게 복음), **말 3:1 / 4:5** (사자·엘리아), **렘 6:16** (영혼이 평강을 얻음).
- 정경 흐름 — 11장의 "명예"는 곧 12장의 안식일·율법 논쟁으로 이어지는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갇힌 자의 물음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도시들이 책망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무거운 짐 앞에 초청이 놓였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거운 짐과 가벼운 명예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갇힌 요한이 "당신이니이까" 묻는다
- [x] 답 대신 일어난 일이 들려 보내진다
- [x] 이 세대가 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견주어진다
- [x] 권능을 본 도시들이 책망받는다
- [x]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신다
- [x]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놓인다
- [x] 끝은 가벼운 멍에·쉽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book-telos.json). 11장은 일어난 표적(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음, 5절)으로 **구약의 메시아 표적이 성취됨**을 가리킨다 — 갇힌 요한의 물음에 교리가 아니라 일어난 일로 답하시는 자리다. 마태는 요한을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14절, 말 4:5의 결)로 못박아, 옛 언약의 마지막 예언자와 새 나라의 동틈을 잇는다. 복음서 4중주에서 이 장은 마태 특유의 '**천국의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큼**'(11절)의 역설을 비춘다 — 천상 차원으로 확장된 나라의 척도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28-30절)는 사랑(Love) 명령의 결을 미리 연다 —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온유한 부름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갇힌 자의 물음→"내게로 오라" / 무거운 짐(phortion)→가벼운 멍에(zygos, 온유·겸손 위의 쉽).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미는 운동이다. 옥에 갇힌 요한의 물음(3절) → 일어난 표적으로 답하심(5절) → 이 세대의 무응답(17절) → 도시들의 책망(20-24절) → "그때에" 어린아이에게 감사(25절)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28절). 책망의 무거움이 부름의 쉽으로 내려앉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요한의 물음·세대 책망·감사 기도·쉽의 부름이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의(현상)** —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는 표적(5절)이 답으로 제시된다. **대의(마음·인격)** — 갇힌 요한의 흔들림, 응하지 않는 세대의 완고함, 어린아이의 열린 마음 사이에서, 본질은 알아봄과 못 알아봄이라는 마음의 결이다. **신의(원인)** — 25-27절이 가리키는 뿌리: 나타내심과 감추심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향한다. 표면의 책망과 부름 아래, 누구에게 나라가 열리는가의 뿌리가 흐른다. 단, 그 나타내심의 까닭은 본문이 "옳소이다"(26절)로만 두므로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도(Temperature) — 피리에도 애곡에도 응하지 않는 미지근한 세대 사이에서, 나는 "내게로 오라"의 부름에 짐을 들고 나아가는 뜨거움에 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흔들리는 요한 결과 "내게로 오라"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무거운 짐을 그 가벼운 멍에로 가져가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쉽.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가벼운 명어로 부르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 "내게로 오라"의 쉽이 곧 안식일 논쟁(12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요한의 물음에 "예/아니오" 대신 일어난 일(5절)을 보내셨는가?

- 답 대신 행한 일을 들려 보냄.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요한이 "가장 큰 자"이면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11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큼과 작음이 한 사람에게 겹침.
- 병치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Q3. 회개하지 않은 세 도시 책망(20-24)은 무엇을 견주는가?

- 두로·시돈·소돔과의 비교가 놓임.
- 비교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숨기시고 나타내심"(25절)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심은?

- 숨김도 뜻이라 하심이 기록됨.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어휘만 보존.

Q5. 무거운 짐을 벗으라 하시며 멍에를 메라(28-29) 하심은 어떻게 함께인가?

- 짐 벗음과 멍에 땀이 한 자리에.
- 관계는 답하지 않고 어휘만 보존.

Q6. "쉽"(anapauo)이 주심과 얻음(28·29) 두 결로 쓰인 까닭은?

- 같은 어근이 두 결로 놓임.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2장

MAT-012 · 복음서 · 헬라어

안식일의 밀밭과 마른 손에서 논쟁이 시작된다. 바알세불 비방과 요나의 표적 — 갈라짐이 깊어지고, 누가 가족인가가 끝에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밀밭(1절) → 회당(9절) → 물러가신 길(15절) → 어머니·동생이 선 자리(46절)로 옮겨간다.
- 소품 = 밀 이삭(1), 마른 손(10),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11), 나무·열매(33), 빈 집과 더러운 영(43-45).
- "안식일"이 거듭 갈림(1·2·5·8·10·11·12절). "옳다"는 exesti(합법적이다, 2·4·10·12).
- "바알세불"(beelzeboul, 24) — 10:25에서 미리 놓였던 이름.
- "~보다 더 큰 이"(meizon)가 성전(6)·요나(41)·솔로몬(42) 세 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처음부터 갈등(2절 시비, 14절 죽일 의논). 점점 어두워짐.
- 가운데 이사야 인용(18-21,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이 부드럽게 끼어듦.
- 논쟁이 다섯 단계로 쌓임 — 밀밭·마른 손·바알세불·표적·가족.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안식일 밀밭, 시장한 제자들 — 율법 논쟁으로 열림.
- 50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 새 가족으로 닫힘.
- 규례 다툼에서 가족 물음으로 옮겨간다. 갈라짐과 묶임이 한 장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시장한 제자들 / 바리새인 / 손 마른 사람 / 큰 무리 / 눈멀고 말 못하는 자(22) / 서기관(38) / 어머니·동생들(46).
- 호 6:6 재인용 — "궁핍을 원하노라"(7절, 9:13에 이어).
- 사상 = 안식일의 주인(8), 성령 모독(blasphemia, 31-32), 요나의 표적(39-40).
- 이사야 42:1-4 직접 인용(18-21) — 종의 부드러움.
- 나무·열매(karpos, 33)와 말(34-37)이 한 결로 묶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밀밭, 다윗·제사장 예, "안식일의 주인".
- 컷 2 (9-14): 마른 손, "양 한 마리", 회복, 죽일 의논.
- 컷 3 (15-21): 물러가심, 다 고치심, 이사야의 종.

- 컷 4 (22-37): 바알세불 비방, 나닌 나라, 성령 모독, 나무·열매.
- 컷 5 (38-45): 표적 요구, 요나의 표적, 니느웨·남방 여왕, 빈 집.
- 컷 6 (46-50): 어머니·동생, "누가 내 형제냐", 새 가족.

6 – (1) 원어 카드

- sabbaton(σάββατον) – 안식일. 본장 거듭(1·2·5·8·10-12).
- exesti(ἔξεστι) – 옳다·허용되다(2·4·10·12절).
- beelzeboul(Βεελζεβούλ) – 바알세불, 귀신의 왕(24·27절).
- blasphemia(βλασφημία) – 모독·훼방. 성령 모독(31-32절).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요나의 표적(38-39절).
- Ionas(Ἰωνᾶς) – 요나. "요나의 표적"(40-41절).
- karpos(καρπός) – 열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33절).

6 – (2) 문학 구조

- 안식일 논쟁·종(1-21) → 비방·표적(22-45) → 새 가족(46-50)의 세 묶음.
- "~보다 더 큰 이"(meizon) 3회 – 성전(6)·요나(41)·솔로몬(42).
- 호 6:6 재인용(7) – 9:13과 잇는 후렴.
- 율법 논쟁(처음)과 새 가족(끝)의 대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일 이삭 자르기·치유는 당시 안식일 규례(노동 금지) 해석을 둘러싼 다툼(배경).
- 이사야 42:1-4("내 택한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을 직접 인용(18-21).
- "요나"·"남방 여왕"은 온 3장·왕상 10장의 결 – 이방의 응답을 건짐(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2:7 ↔ 호 6:6 (공흠을 원하노라, 9:13과 재인용)
- 마 12:18-21 ↔ 사 42:1-4 (택한 종, 직접 인용)
- 마 12:40 ↔ 온 1:17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
- 마 12:42 ↔ 왕상 10:1-13 (남방 여왕·솔로몬)
- 마 12:24 ↔ 마 10:25 (바알세불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식일 밀밭에서 시장한 제자들이 이삭을 먹자 시비가 인다.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드시고 "공흠을 원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다. 회당의 마른 손을 회복시키시니 죽일 의논이 일고, 물러가 다 고치시되 나타내지 말라 하시매 이사야의 종이 이뤄진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자 바알세불 비방이 일고,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다", 성령 모독은 사함이 없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하신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고 니느웨·남방 여왕을 드신다. 끝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섰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안식일의 주인, 요나의 표적, 그리고 누가 내 가족인가"
- 초벌 부제: "안식일 논쟁과 깊어지는 갈라짐 끝에 놓인 새 가족의 물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일 규례·사 42장 인용·온 3장·왕상 10장)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성령 모독"(31-32)을 공포 교리로 굳히지 않고 본문 진술의 한계 표현으로만 기록.
- 안식일 논쟁을 율법 폐기 명제로 굳히지 않고 "주인"·"금흠"의 어휘로만 둬.
- 빈 집과 일곱 영(43-45)을 영적 전쟁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비유 그림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에서 시작된 갈라짐이 비방과 표적 요구를 지나 "누가 내 가족인가"의 물음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밀밭과 마른 손에서 안식일 다툼이 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과 "금흠을 원하노라"가 놓인다. 다 고치시되 이사야의 종("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으로 부드러우시지만, 바알세불 비방과 성령 모독, 요나의 표적을 둘러싸고 갈라짐이 깊어진다. 끝에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섰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며 새 가족을 선언하신다. 규례의 다툼이 가족의 물음으로 옮겨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밀밭(1) → 회당(9) → 물러가신 길(15) → 가족이 선 자리(46). 소품 = 밀 이삭·마른 손·나무·열매·빈 집. sabbaton·exesti·바알세불.
2 첫 느낌·분위기	처음부터 갈등, 점점 어두워짐. 가운데 이사야 인용의 부드러움. 다섯 단계 논쟁.
3 시작과 끝	시작 — 안식일 율법 논쟁(1절). 끝 — 새 가족 선언(50절). 규례에서 가족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제자들 / 바리새인 / 마른 손 / 무리 / 서기관 / 어머니·동생. 호 6:6 재인용(7). 사상 = 안식일의 주인·성령 모독·요나의 표적.
5 장면 컷	컷 1 밀밭(1-8). 컷 2 마른 손(9-14). 컷 3 종(15-21). 컷 4 바알세불(22-37). 컷 5 표적·빈 집(38-45). 컷 6 새 가족(46-50).
6 의문·발견·정보	공흠 재인용(7). "나타내지 말라"(16). 사 42장 인용(18-21). "분쟁하는 나라"(25). 말·열매(33-37). 빈 집(43-45).
7 동영상	안식일 밀밭 → 마른 손·종 → 바알세불 비방 → 요나의 표적 → 새 가족 물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안식일의 주인, 요나의 표적, 그리고 누가 내 가족인가". 부제 — "안식일 논쟁과 깊어지는 갈라짐 끝에 놓인 새 가족의 물음".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밀밭과 회당과 가족이 선 자리를 걸으며 표적 요구와 부르심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안식일의 주인과 공흠:** 안식일 다툼 한가운데 "공흠을 원하노라"(7절)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8절)이 놓인다.
- 결 2 — 다툼 속 종의 부드러움:** 죽일 의논(14절) 직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20절)가 인용된다. 매 서움 옆에 부드러움이 있다.
- 결 3 — 갈라짐과 새 가족:** 비방·표적 요구로 갈라짐이 깊어진 끝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50절)가 묶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9:13** (공흠을 원하노라), **마 10:25** (바알세불), **마 16:4** (요나의 표적).
- 다른 권 — **호 6:6** (공흠, 7절), **사 42:1-4** (택한 종, 18-21절), **욘 1:17** (사흘 밤낮), **왕상 10장** (남방 여왕).
- 정경 흐름 — 12장의 갈라짐과 표적 요구는 곧 13장의 비유로 가르치심(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안식일 밀밭의 다툼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공흠을 원하노라"가 다시 놓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이 인용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뜻대로 행함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표적을 구함과 가족으로 부르심 사이*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안식일 밀밭에서 논쟁이 시작된다
- [x] 마른 손이 회복되고 죽일 의논이 인다
- [x]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이 인용된다
- [x] 바알세불 비방과 성령 모독이 놓인다
- [x]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가 선언된다
- [x] 빈 집의 더러운 영이 그려진다
- [x] 끝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book-telos.json). 12장은 안식일 논쟁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8절)으로 끌어올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6절)·"요나보다 더 큰 이"·"솔로몬보다 더 큰 이"(41-42절)로 구약의 그림자 위에 실체를 세운다. 마태는 이 장 한복판에 이사야 42장의 종 노래를 길게 인용해(18-21절) 부드러운 통치("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를 못박는다 — 구약 성취의 밀도가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다. 복음서 4중주에서 이 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8절)로 **천국이 이미 다툼 한복판에 임함**을 비춘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끝의 새 가족 선언(50절)은 사랑(Love)·제자(Disciple) 명령의 결을 연다 —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족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례의 다툼(안식일)→가족의 물음("누가 내 형제냐") / 혈연의 가족→뜻을 행함으로 묶이는 새 가족.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갈라짐에서 새 묶임으로 미는 운동이다. 밀밭·마른 손의 안식일 다툼(1-13절) → 이사야의 종으로 조용히 고치심(15-21절) → 바알세불 비방·성령 모독(24-32절) → 요나의 표적(38-42절) →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섬(46절) →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50절). 규례의 다툼이 새 가족의 선언으로 옮겨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안식일 논쟁·축귀·표적 요구·가족 선언이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의(현상)** — 마른 손이 회복되고(13절)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던 자가 고침받는다(22절). **대의(마음·인격)** — "공흠을 원하노라"(7절)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음"(20절)에서, 본질은 규례 너머의 부드러운 마음이다. 같은 축귀를 모독으로 읽는 완고함과 나라로 알아보는 눈이 갈린다. **신의(원인)** — 28절이 가리키는 뿌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가 임한 데서 온다. 표면의 다툼 아래, 무슨 영으로 그 일을 하는가의 뿌리가 흐른다. 단, 성령 모독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지 그 까닭은 본문이 더 풀지 않으므로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도(Temperature) — 같은 일을 두고 "바알세불"이라 읽는 완고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알아보는 눈 사이에서, 나는 어느 온도로 그분의 일을 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비방의 자리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의 새 가족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뜻을 행하는 자리로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갈라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다툼의 한복판에 임한 나라가 비유로 — 갈라짐의 까닭이 곧 천국 일곱 비유(13장),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음의 비밀로 풀린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안식일 논쟁 한가운데 "공흘을 원하노라"(7절)가 다시 놓이는가?

- 9:13에 이어 호 6:6 재인용.
- 재인용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다 고치신 뒤 왜 "나타내지 말라"(16절) 하셨는가?

- 큰 무리에도 드러냄을 막으심.
-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진술만 보존.

Q3. "성령 모독은 사함이 없다"(31-32절)는 어떤 한계인가?

- 사함의 한계가 한 자리에 놓임.
- 어구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39절) 하심은?

- 표적 요구에 표적을 거두심.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어휘만 보존.

Q5. 빈 집의 더러운 영(43-45)이 처음보다 심해지는 까닭은?

- 비워진 자리의 위험이 그려짐.
- 비유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그림만 보존.

Q6. 어머니·동생을 두고 "누가 내 가족인가"(48-50) 하심은?

- 혈연과 "뜻대로 하는 자"가 나란히 놓임.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3장

MAT-013 · 복음서 · 헬라어

배에 앉으신 분이 천국을 비유로 푸신다. 씨·가라지·겨자씨·누룩·보화·진주·그물 — 일곱 비유가 한 결로 묶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바닷가·배(1-2절) → 집(36절) → 고향 회당(53-54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씨·길가·돌밭·가시·좋은 땅(3-8), 가라지·곡식(24-30), 겨자씨·새(31-32), 가루 서 말·누룩(33), 밭의 보화(44), 진주(45-46), 그물·물고기(47-48).
- "비유"는 parabole("겉에 던지다") — 시 78:2 인용(35절)으로 받음.
- "천국의 비밀"은 mysterion(11절).
- "가라지"(zizanon)는 밀과 닮은 독보리 — "함께 자라게 두라"(30)의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가 반복 — 일곱 번 변주.
- 처음 큰 무리(1-2)와 끝 고향의 배척(53-58)이 대비.
- 무리 앞 비유 → 제자들에게만 풀어 주심으로 결이 옮겨감(18·36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바닷가·배, 큰 무리의 들음 — 들음으로 열림.
- 58절: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 믿지 않음으로 닫힘.
- 듣는 무리에서 배척하는 고향으로 옮겨간다. "들을 귀"(9·43)와 안 들음이 한 장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해변의 큰 무리 / 제자들 / 비유 속 인물(씨 뿌리는 자·밭 주인·발견자·어부) / 고향 사람들.
- 사 6:9-10 직접 인용 —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14-15절).
- 사상 = 천국(basileia).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7회(24·31·33·44·45·47·52).
- 풀린 두 비유 — 씨(3-9 ↔ 18-23), 가라지(24-30 ↔ 36-43).
- "다 팔아"가 보화·진주에 두 번(44·46).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배, 씨 비유, 네 땅, "들을 귀".
- 컷 2 (10-23): "왜 비유로", 사 6장, 씨 비유 풀이.
- 컷 3 (24-35): 가라지·겨자씨·누룩, 시 78:2.

- 컷 4 (36-43): 집에서 가라지 풀이, 추수·끝.
- 컷 5 (44-52): 보화·진주·그물, 새것·옛것 서기관.
- 컷 6 (53-58): 고향, "목수의 아들", 배척, 능력 행치 않으심.

6 – (1) 원어 카드

- parable(παραβολή) – 비유. "겉에 던지다"(3·10·34-35절).
- basileia(βασιλεία) – 나라·천국.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7회.
- mysterion(μυστήριον) – 비밀. "천국의 비밀"(11절).
- zizanion(ζιζάνιον) – 가라지·독보리(25·36-40절).
- sinapi(σίναπι) / zyme(ζύμη) – 겨자씨 / 누룩(31·33절).
- thesauros(θησαυρός) / margarites(μαργαρίτης) – 보화 / 진주(44-46절).
- sagene(σαγήνη) – 그물(47절).

6 – (2) 문학 구조

- 씨와 방법(1-23) → 천국 비유들(24-52) → 고향 배척(53-58)의 세 묶음.
-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틀 7회.
- 짝 비유 – 겨자씨·누룩(작음→큼), 보화·진주(다 짧).
- 풀린 두 비유(씨·가라지)가 무리 앞 비유와 제자 풀이를 잇음.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회(9·43).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가라지(독보리)는 밀과 닮아 자랄 때까지 구별이 어려움 – 30절 배경.
- "가루 서 말"(33)은 큰 분량의 반죽 – 작은 누룩과 대비(배경).
- 14-15절은 사 6:9-10, 35절은 시 78:2 – 비유의 방법을 예언과 잇는 두 인용.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3:14-15 ↔ 사 6:9-10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
- 마 13:35 ↔ 시 78:2 (비유로 입을 엮)
- 마 13:32 ↔ 단 4:12 / 겔 17:23 (큰 나무와 깃드는 새)
- 마 13:43 ↔ 단 12:3 (의인이 해같이 빛남)
- 마 13:57 ↔ 막 6:4 / 요 4:44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무리가 모인다.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듣는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네 땅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다. 제자들이 비유의 까닭을 묻자 천국의 비밀을 주셨다 하시고, 이사야를 들어 답하신 뒤 씨 비유를 푸신다. 가라지·겨자씨·누룩을 잇대어 두시니 시편이 이뤄진다. 집에 들어가 가라지 비유를 푸시고, 보화·진주·그물 비유를 두시며 "새것과 옛것을 내는 서기관" 같다 하신다.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척받으시고,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 일곱 비유와 고향의 배척"
- 초벌 부제: "배에 앉으신 분이 천국을 일곱 비유로 풀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가라지=독보리·누룩 분량·사 6장·시 78:2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일곱 비유를 알레고리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이 풀어 준 두 비유(씨·가라지)만 풀이로 둬.
-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30)를 관용 교리로 굳히지 않고 추수까지 미륵의 진술로만 기록.
-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11-15)을 예정 교리로 굳히지 않고 사 6장 인용 위치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3장은 배에 앉으신 분이 천국을 일곱 비유로 풀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이다.

한 문단: 큰 무리가 해변에 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네 땅이 그려진다. 같은 씨가 땅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고, 가라지와 곡식은 추수까지 함께 자란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음에서 큼으로, 보화와 진주는 발견에서 다 뵈므로, 그물은 모음에서 가름으로 흐른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제자에게는 풀이로 주신다. 끝에 고향 회당에서 "목수의 아들"이라 배척받으시며,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거두신다. 들음과 안 들음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바닷가·배(1-2) → 집(36) → 고향 회당(53). 소품 = 씨·가라지·겨자씨·누룩·보화·진주·그물. parabole·mysterion·가라지(독보리).
2 첫 느낌·분위기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반복. 큰 무리와 고향 배척의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큰 무리의 들음(1-2절). 끝 — 고향의 믿지 않음(58절). 들음에서 배척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큰 무리 / 제자들 / 비유 속 인물 / 고향 사람들. 사 6:9-10 인용(14-15). 사상 = 천국 7회 틀.
5 장면 컷	컷 1 씨 비유(1-9). 컷 2 방법·풀이(10-23). 컷 3 가라지·겨자씨·누룩(24-35). 컷 4 가라지 풀이(36-43). 컷 5 보화·진주·그물(44-52). 컷 6 고향 배척(53-58).
6 의문·발견·정보	같은 씨·다른 땅. 함께 자라게 됨(30). 사 6장 인용. 작음→큼(겨자·누룩). 모음·가름(그물). 새것·옛것(52).
7 동영상	배의 씨 비유 → 방법 물음 → 천국 비유들 → 제자 풀이 → 고향 배척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 일곱 비유와 고향의 배척". 부제 — "배에 앉으신 분이 천국을 일곱 비유로 풀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자리".
9 동영상 안건기·기도	바닷가와 집과 고향 회당을 걸으며 어느 땅인지 묻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씨, 다른 땅:** 씨는 하나인데 길가·돌밭·가시·좋은 땅이 결실을 가르다(3-8절). 땅이 결과를 정한다.
2. **결 2 — 일곱 번의 틀:**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24·31·33·44·45·47·52절)가 일곱 번 변주되며 한 결로 묶인다.
3. **결 3 — 들음과 배척:**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9·43절)와 고향의 "믿지 않음"(58절)이 한 장 안에 마주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2장** (갈라짐 다음 날 "그날에", 13:1), **마 13:52** (새것·옛것 서기관).
- 다른 권 — **사 6:9-10** (듣기는 들어도, 14-15절), **시 78:2** (비유로 입을 엮, 35절), **단 4:12 / 겔 17:23** (큰 나무·깃드는 새).
- 정경 흐름 — 13장의 고향 배척(53-58)은 곧 14장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그늘을 깊게 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해변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같은 씨가 다른 땅에 떨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다 팔아 보화·진주를 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는가가 결을 가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들음과 배척 사이의 땅*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같은 씨가 네 땅에 떨어진다
- [x]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까지 함께 자란다
- [x] 겨자씨와 누룩이 작음에서 큼으로 간다
- [x] 보화와 진주는 다 팔아 산다
- [x] 그물은 모으고 좋고 못됨을 가른다
- [x] 무리에게는 비유로, 제자에게는 풀이로 주신다
- [x] 끝은 고향의 배척과 믿지 않음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다(book-telos.json: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치환). 13장은 마태복음 다섯 강론 중 셋째 — 천국 비유 강론이며, 이 책이 '천국'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가장 밀도 높게 보여주는 자리다.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가 일곱 번 반복되며, 천국을 정의가 아니라 비유의 일곱 폭으로 연다. 마태는 이를 구약 성취로 못박는다 —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35절, 시 78:2 인용), "보아도 보지 못함"(14-15절, 사 6:9-10 인용). 복음서 4중주에서 이 장은 마태 특유의 '천국의 암호 해독 코드'를 비춘다: 미리 좌표를 가진 자(제자)에게는 비밀이 허락되고, 못 가진 자(무리·고향)에게는 가려진다. 5대 대명령 척추에서 보화·진주의 "다 팔" (44-46절)은 사랑(Love) 명령의 전심을 미리 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림→가름 / 작음(겨자씨·누룩)→큼, 발견→다 팔(보화·진주), 함께 자람(가라지)→추수의 갈라냄(그물).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뿌려져 자람에서 마지막 가름으로 미는 운동이다. 씨 뿌리는 자의 네 땅(3-9절) → "보아도 보지 못함"의 비밀(11-17절) → 가라지의 함께 자람(24-30절) → 겨자씨·누룩의 자람(31-33절) → 보화·진주의 다 팔(44-46절) → 그물의 가름(47-50절) → 고향의 배척(54-58절). 같은 천국이 자람과 가름을 한 호흡에 품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3층)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배에서 푸시는 일곱 비유와 고향의 배척이다. 그 아래를 의사 삼형제의 비유로 세 층으로 깊인다. **명의(현상)** — 씨가 네 땅에 떨어져 다른 결실을 맺고, 그물이 물고기를 모아 가른다. 가시적 결과의 관찰이다. **대의(마음·인격)** — 같은 씨가 다른 열매를 맺는 까닭은 땅(마음)에 있다: 길가·돌밭·가시떨기·좋은 땅(19-23절)은 말씀에 받는 마음의 결이다. 더 깊이,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이 작은 데서 시작해 속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내적 성장을 비춘다 —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인격의 자람을 스스로 점검 하라는 결이다. 반대로 **가라지**는 좋은 씨 곁에 "사람들이 잘 때"(25절) 뿌려진 안일함의 위험을 비춘다 — 자람을 방심하는 자리에 섞임이 들어온다. **신의(원인)** — 이 모든 갈림의 뿌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11절)의 허락 여부다. "알아야 알아본다" — 미리 코드(좌표)를 가진 자에게만 같은 비유가 풀린다. 표면의 비유 아래, 누구에게 나라가 열리는가의 뿌리가 흐른다. 단, 그 허락과 가림의 경계는 본문이 사 6장 인용으로만 두므로 미해결로 보류한다.

진주(Pearl·가치) —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듯, 나는 이 천국을 모든 것을 팔아 살 진주로 발견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 결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무리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내 속의 겨자씨·누룩이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에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피며 그 진주를 사는 자리로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천국.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다 팔아 산 진주의 천국이 채움으로 — 비유로 푸신 천국이 곧 빈 들에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손(14장)으로 만져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같은 씨인데 왜 땅이 결과를 가르는가(3-8절)?

- 씨가 아니라 땅이 결과를 가름.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30절) 하시는가?

- 추수 때까지 가름을 미루심.
- 미룸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Q3.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11-15절)은 무엇인가?

- 사 6:9-10 인용으로 답이 놓임.
- 어구의 무게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보화를 찾고 "도로 감추는"(44절) 동작은 무엇인가?

- 감춤과 다 팔아 한 사람에.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동작만 보존.

Q5. 그물의 모음과 가름(47-48)이 한 동작에 있는 까닭은?

- 각종을 모으고 좋고 못됨을 가름.
- 관계는 답하지 않고 그림만 보존.

Q6. 고향이 "목수의 아들"이라며 배척한 까닭은(54-58)?

- 익숙함이 배척으로 옮겨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4장

MAT-014 · 복음서 · 헬라어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고, 빈 들에서 오천 명이 채워진다. 저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헤롯의 궁·옥(1-12절) → 빈 들(13절) → 바다 위(22-33절) → 게네사렛(34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소반(8·11), 떡 다섯·물고기 둘(17)·열두 바구니(20), 밤바다의 배·물결(24), 옷자락(36).
- "불쌍히 여기사"는 splanchnizomai(14절) — 9:36 "목자 없는 양"에서 본 단어.
- "빈 들"은 eremos(광야·한적한 곳, 13·15절).
- 시간 = "저물때"(15) → "밤 사경"(25, 새벽 3~6시)으로 깊어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어두움(소반에 담긴 머리, 11절), 뒤는 채움·걸음으로 빛으로 넘어감.
- 죽음 소식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심"(13) — 슬픔을 안은 물러감.
- 세 장면 — 헤롯의 잔치 → 빈 들의 먹임 → 밤바다의 걸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헤롯의 두려운 말("요한이 살아났다") — 죽음·두려움으로 열림.
- 36절: "옷 가에라도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 옷자락의 회복으로 닫힘.
- 죽음·두려움에서 회복으로 옮겨간다. 사이에 채움과 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헤롯 / 헤로디아·그 딸 / 옥의 요한 / 잔치 손님 / 예수 / 제자들 / 큰 무리(오천, 21) / 베드로 / 게네사렛 사람들.
- 먹이심(13-21)은 요 6장과 같은 사건의 마태 보고 — 떡 다섯·물고기 둘·열두 바구니.
- 사상 = 두려움과 안심. 헤롯의 두려움(5·9), 제자들의 무서워함(26·30), "나니 두려워 말라"(27).
- 베드로의 걸음·빠짐(28-31)은 마태에만 있음.
- "하나님의 아들"(33)의 첫 고백이 밤바다 다음에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헤롯의 소문, "요한이 살아났다", 가둔 까닭.
- 컷 2 (6-12): 생일 잔치, 춤, 소반의 머리, 시체를 거둠.
- 컷 3 (13-21): 빈 들, 불쌍히 여기심, 오천 명, 열두 바구니.

- 컷 4 (22-27): 홀로 기도, 밤 사경, 물 위로 오심, "두려워 말라".
- 컷 5 (28-33): 베드로의 걸음·빠짐,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 컷 6 (34-36): 게네사렛, 옷자락에 손을 댐, 다 나옴.

6 — (1) 원어 카드

- Herodes(Ἡρώδης) — 헤롯, 분봉 왕(1절).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불쌍히 여기다(14절).
- eremos(ἔρημος) — 빈 들·광야(13·15절).
- klasma(κλάσμα) —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20절).
- phantasma(φάντασμα) — 유령(26절).
- tharseo(θαρσέω) — 안심하다(27절).
- distazo(διστάζω) — 의심하다 / proskyneo(προσκυνέω) — 절하다(31·33절).

6 — (2) 문학 구조

- 요한의 죽음(1-12) → 빈 들·밤바다(13-33) → 게네사렛 회복(34-36)의 세 묶음.
- 두려움(헤롯·제자)과 "두려워 말라"(27)의 대비.
- 먹이심의 동작 순서(가지사·축사·떼어, 19) — 26장 성찬과 닮음.
- 물러가심(13)과 맞아 고치심(14)의 병치.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헤롯 안디바는 분봉 왕(갈릴리·베레아), 헤로디아는 형제의 아내였음 — 요한이 책망한 까닭(3-4절 배경).
- "밤 사경"은 로마식 야경 넷째(새벽 3~6시) — 가장 깊은 밤(배경).
- "빈 들"의 먹이심은 출애굽 광야의 만나 걸을 떠올리게 함(배경, 요 6장과 연결).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4:13-21 ↔ 요 6:1-15 (오천 명을 먹이심, 같은 사건)
- 마 14:19 ↔ 마 26:26 (가지사·축사·떼어, 성찬의 동작)
- 마 14:27 ↔ 요 6:20 / 출 3:14 ("나니"의 걸, ego eimi)
- 마 14:33 ↔ 마 16:16 ("하나님의 아들" 고백)
- 마 14:36 ↔ 마 9:20-21 (옷 가에 손을 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 두려워한다. 헤로디아 때문에 가둔 요한을, 생일 잔치의 춤과 맹세로 머리를 소반에 담아 준다. 제자들이 시체를 거두어 알리매, 예수께서 배로 빈 들에 물러가신다. 따라 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떡 다섯과 물고기 둘을 축사하여 떼어 주시니 오천 명이 배부르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다.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신 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베드로가 걷다 바람에 빠져 "구원하소서" 부르짖자 불드시고,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절한다. 게네사렛에서 옷자락에 손을 댐 자가 다 낫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소반에 담긴 머리, 빈 들의 채움, 밤바다 위의 걸음"
- 초벌 부제: "죽음의 잔치와 빈 들의 채움, 그리고 밤바다 위의 한 걸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헤롯 안디바·밤 사경·요 6장 병행·성찬 동작)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먹이심의 동작 순서(19)를 성찬 교리로 곧장 굳히지 않고 어휘 닮음만 기록.
- 베드로의 빠짐(30)을 믿음 부족 교훈으로 굳히지 않고 걸음·빠짐·불드심의 흐름으로만 둬.
- "하나님의 아들" 고백(33)을 신학 명제로 굳히지 않고 밤바다 다음의 첫 고백 위치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4장은 소반에 담긴 죽음에서 빈 들의 채움과 밤바다의 걸음을 지나 옷자락의 회복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 나온다. 죽음을 들으신 분이 빈 들로 물러가시나, 따라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떡 다섯으로 오천 명을 채우신다.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신 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베드로가 건다 바람에 빠져 부르짖자 불드시고,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쳐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 놓인다. 끝에 계네사렛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다 낚는다. 어둠과 두려움이 채움과 건짐과 회복으로 넘어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헤롯의 궁·옥(1-12) → 빈 들(13) → 바다 위(22-33) → 게네사렛(34). 소품 = 소반·떡 다섯·열두 바구니·옷자락. splanchnizomai·eremos.
2 첫 느낌·분위기	어두운 잔치 → 채움·걸음의 빛. 저물매 → 밤 사경으로 시간이 깊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헤롯의 두려운 말(1-2절). 끝 — 옷자락의 회복(36절). 죽음에서 회복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헤롯 / 헤로디아·딸 / 요한 / 예수·제자 / 오천 명 / 베드로 / 게네사렛 사람. 요 6장 병행. 사상 = 두려움·안심.
5 장면 컷	컷 1 헤롯의 소문(1-5). 컷 2 소반의 머리(6-12). 컷 3 오천 명(13-21). 컷 4 물 위로 오심(22-27). 컷 5 베드로(28-33). 컷 6 게네사렛(34-36).
6 의문·발견·정보	물러가심·맛아 주심(13-14). "너희가 주라"(16). 가지사·축사·떼어(19). 홀로 기도(23). 베드로의 빠짐·붙드심(30-31). 첫 고백(33).
7 동영상	소반의 머리 → 빈 들의 채움 → 밤바다의 걸음 → 베드로의 건짐 → 게네사렛 회복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소반에 담긴 머리, 빈 들의 채움, 밤바다 위의 걸음". 부제 — "죽음의 잔치와 빈 들의 채움, 그리고 밤바다 위의 한 걸음".
9 동영상 안건기·기도	궁과 빈 들과 밤바다를 걸으며 빠짐과 붙드심 사이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어둠 다음의 채움:** 소반에 담긴 죽음(11절) 다음에 빈 들에서 오천 명이 채워진다(21절). 어둠과 채움이 잇달아 있다.
2. **결 2 — 두려움 가운데 "나니":** 제자들의 무서워함(26절) 한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27절)가 놓인다.
3. **결 3 — 빠짐과 붙드심:**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지자(30절)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31절). 빠짐과 손이 한 호흡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9:20-21** (옷 가에 손을 댐), **마 16:16** ("하나님의 아들" 고백), **마 26:26** (가지사·축사·떼어).
- 다른 권 — **요 6:1-21** (오천 명·물 위 걸음, 같은 사건), **출 3:14** ("나니"의 결).
- 정경 흐름 — 14장의 "하나님의 아들" 첫 고백은 16장 베드로의 고백("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소반에 담긴 죽음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슬픔을 안고 물러가심을 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빈 들이 떡 다섯으로 채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바람을 보고 빠진 손을 붙드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어둠과 두려움 다음에 채움과 붙드심이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빠짐과 붙드심 사이의 밤바다*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 나온다
- [x] 죽음을 들으신 분이 빈 들로 물러가신다
- [x] 떡 다섯으로 오천 명이 채워진다
- [x]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신다
- [x]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가 놓인다
- [x]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 [x] 끝은 옷자락에 손을 댄 자의 회복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좌표는 '하늘 나라'의 **구약 성취**다(book-telos.json). 14장은 천국 비유 강론(13장) 뒤에 놓인 '천국의 권세가 빈 들과 밤바다에 임함'의 자리다. 빈 들의 채움(15-21절)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출애굽의 결을 다시 열고, 물 위를 걸으심과 "안심하라 나니(ego eimi의 결) 두려워 말라"(27절)는 바다를 다스리는 구약의 결(시 77편·욥 9장의 그림)을 지상에 세운다. 복음서 4중주에서 마태는 이 장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33절)의 고백으로 담아, 천상 차원의 정체를 지상의 배 위에서 드러낸다. 5대 대명령 책추에서 "불쌍히 여기사" 먹이심(14절)은 사랑(Love) 명령의 결이며, 즉시 붙드시는 손(31절)은 통치(Reign)가 혼돈의 물 위에 미치는 자리에 닿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반의 죽음(요한)→옷자락의 회복 / 빈 들·모자람·밤바다의 두려움→채움·건짐·"안심하라 나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빈 것에서 채움으로 미는 운동이다. 헤롯의 잔치와 소반의 머리(1-12절) → 빈 들로 물러남(13절) → 떡 다섯으로 오천 명을 채움(15-21절) → 홀로 기도(23절) →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으심(25절) →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붙드심(31절) → "하나님의 아들" 고백(33절) → 옷자락의 회복(34-36절). 죽음과 빚이 채움과 붙드심으로 넘어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요한의 죽음·오병이어·물 위 걸음·옷자락 치유다. 그 아래를 세 층으로 본다. **명의(현상)** — 떡이 붙어 오천 명을 채우고, 바다가 발 아래 굳고, 옷자락에 손댄 자가 낫는다. 빈 것과 혼돈을 다스리는 권세다. **대의(마음·인격)** — 죽음을 들으신 분의 "불쌍히 여기심"(14절), 빠지는 베드로의 "주여 구원하소서"(30절)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31절)에서, 본질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는 결이다. **신의(원인)** — 27절이 가리키는 뿌리: "나니(내가 그다)". 모든 채움과 건짐은 임재 자체("두려워 말라, 나다")에서 온다. 표면의 기적 아래, 혼돈의 물 위에 임한 임재의 뿌리가 흐른다. 단, 그 임재의 정체를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33절) 고백으로만 두므로 그 깊이는 미해결로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도(Temperature) — 물 위를 걷다 바람을 보고 빠지는 의심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믿음 사이에서, 나는 즉시 불드시는 그 손에 어느 온도로 손을 맡기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빠지는 베드로 결과 "안심하라 나니"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불드시는 손에 손을 맡기는 자리로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불드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밤바다에서 불드신 손이 전통과 마음으로 — 옷자락의 회복 뒤에, 곧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15장)는 마음의 정결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죽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신(13) 분이 왜 무리를 맞아 고치시는가(14)?

- 물러가심과 맞아 주심이 한 자리에.
-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16절)고 제자에게 떠넘기시는가?

- 빈 들에 떡이 없는데도 먼저 떠넘기심.
-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Q3. 큰 표적 다음에 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가(23절)?

- 먹이심 직후 홀로 산으로.
- 동선의 까닭은 기록만, 관계는 보류.

Q4. 베드로의 "만일 주님이시거든"(28절)이라는 조건은 무엇인가?

- 걸음을 청하는 데 조건이 붙음.
- 본문이 더 밝히지 않음. 진술만 보존.

Q5. 걷게 하신 뒤에 "왜 의심하였느냐"(31) 물으심은 어떤 흐름인가?

- 걸음·빠짐·물음이 한 흐름에.
- 관계는 답하지 않고 흐름만 보존.

Q6. 밤바다의 건짐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33) 고백이 놓인 까닭은?

- 건짐 다음에 첫 고백이 놓임.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5장

MAT-015 · 복음서 · 헬라어

손 씻음을 묻던 자리에서 마음이 드러나고, 부스러기를 구한 믿음이 상을 차린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갈릴리(1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옴) → 두로·시돈 지방(21절) → 갈릴리 호숫가 산(29절)으로 옮겨 간다.
- 소품 = 손(2절 "손을 씻지 아니하고"), 자녀의 떡·상의 부스러기(26-27절), 떡 일곱·작은 생선 두어 마리(34절), 일곱 광주리(37절).
- "장로들의 전통"(paradosis, 2·3·6절)과 봉헌 서약(korban 관습, 5절)이 배경에 깔린다.
- 27절 "개"는 kynarion(집 강아지 축소형) — 배경으로만.
- 32절 "불쌍히 여기노라"(splachnizomai) — 깊은 연민의 동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따짐(2절 손 씻음), 뒤는 엇드림(25절 절함). 공기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 "입으로 들어가는 것 / 입에서 나오는 것"(11절)의 안팎 대비.
- 떡이 처음과 끝에 — 2절(떡 먹을 때), 26절(자녀의 떡), 34절(떡 일곱).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 규례의 따짐으로 열림.
- 39절: "무리를 흠여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 떡의 채움 뒤 떠남으로 닫힘.
- 손의 따짐에서 떡의 채움으로. 그 사이 28절 "네 믿음이 크도다"가 끼어 있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바리새인·서기관(1) / 제자들 / 가나안 여인과 딸(22) / 큰 무리(30·32).
- 본문이 옛 글을 인용 — 출 20:12 계명(4절), 사 29:13(8-9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사상 = 더러움의 자리가 손에서 마음으로(18-20절 악한 생각·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언·비방).
- 가나안 여인의 세 단계 — 외침(22) → 절함(25) → 부스러기(27). 거절을 받아 되돌림.
- 제자들의 반응 — "그를 보내소서"(23), "바리새인이 걸려 합니다"(12).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예루살렘의 따짐, 전통 vs 계명, 사 29:13 인용.
- 컷 2 (10-20): "입에서 나오는 것", 제자 물음, 마음의 목록.
- 컷 3 (21-28): 두로·시돈, 가나안 여인, 침묵·거절·되돌림, "믿음이 크도다".

- 컷 4 (29-31): 산, 치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 컷 5 (32-39): 사천 명, 떡 일곱·생선 두어, 일곱 광주리, 마가단으로.

6 – (1) 원어 카드

- paradosis(παράδοσις) — 전통, 전해 내려온 것. 2·3·6절.
- korban — 하나님께 드림이 됨(5절 봉헌 서약 관습, 배경).
- kardia(καρδία) — 마음. 8·18·19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마음에서 나오는 것".
- kynarion(κυνάριον) — 작은 개·집 강아지(축소형). 26·27절.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창자가 움직이는 깊은 연민. 32절.
- eleeo(ἐλέεω) — 불쌍히 여기다.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katharos 계열 — 정·부정(씻음)의 결. 2·11·20절(손 씻음·더럽게 함).

6 – (2) 문학 구조

- 전통(1-20) → 이방·치유(21-31) → 떡(32-39)의 세 묶음.
- "입으로 들어가는 것 / 입에서 나오는 것"(11·17-18절)의 대조 쌍.
- 오천 명(14:13-21)과 사천 명(15:32-39)의 닮은꼴 — 떡 다섯/일곱, 광주리 열둘/일곱.
- 제자에게 돌아온 물음 — 16절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4·8-9절은 출 20:12·신 5:16 계명과 사 29:13을 본문이 직접 인용.
- 5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봉헌 서약(고르반)으로, 부모 봉양을 면하는 데 쓰인 관습으로 본문이 보고 — 배경으로만.
- "가나안 여자"(22절)는 이방 출신 표기 — 인물 설정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5:1-20 ↔ 막 7:1-23 (전통·고르반·마음의 목록 평행)
- 마 15:8-9 ↔ 사 29:13 (입술과 마음)
- 마 15:4 ↔ 출 20:12 (부모 공경 계명)
- 마 15:32-39 ↔ 마 14:13-21 (두 번의 떡 표적)
- 마 15:24 ↔ 마 10:6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려와 손 씻는 전통을 따진다. 예수께서 전통으로 계명을 폐함을 짚으시고 이사야를 들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다. 무리를 불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의 목록을 펴신다. 두로·시돈으로 나가시매 가나안 여인이 딸을 위해 외친다. 침묵과 거절을 지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말 앞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니 딸이 낫는다. 다시 갈릴리 산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흘 굶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떡 일곱과 생선 두어로 사천 명을 먹이시니 일곱 광주리가 남는다. 무리를 흠어 보내고 마가단으로 가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입에서 나오는 것 — 손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부스러기의 믿음"
- 초벌 부제: "씻지 않은 손에서 마음으로, 부스러기에서 일곱 광주리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전통·고르반·사 29:13·두 떡 표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마음에서 나오는 것"(18-19)의 목록이 정죄로 굳지 않도록 → 어휘 위치만 기록.
- 24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과 가나안 여인의 치유는 경계·넘음의 병치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 두 떡 표적의 숫자 차이(오천/사천, 열둘/일곱)는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5장은 손의 규례를 따지던 자리에서 마음이 드러나고, 부스러기를 구한 믿음이 상을 차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손 씻음의 전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는 더러움의 자리를 손에서 마음으로 옮기시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신다. 이어 이방 지경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침묵과 거절을 지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말로 상에 다가서고, 그 믿음이 크다 칭함받는다. 끝에는 사흘 굶은 무리가 떡 일곱으로 채워지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갈릴리(1) → 두로·시돈(21) → 갈릴리 산(29). 소품 = 손·자녀의 떡·부스러기·떡 일곱·일곱 광주리. 배경 = paradosis·고르반.
2 첫 느낌·분위기	따짐(높음)에서 엷드림(낮음)으로. 입으로 들어감/나옴의 안팎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손 씻음의 따짐(2). 끝 — 떡의 채움 뒤 마가단으로(39). 규례에서 떡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바리새인·서기관 / 제자 / 가나안 여인 / 무리. 사 29:13 인용. 사상 =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
5 장면 컷	컷 1 전통(1-9). 컷 2 입·마음(10-20). 컷 3 가나안 여인(21-28). 컷 4 산의 치유(29-31). 컷 5 사천 명(32-39).
6 의문·발견·정보	23절의 침묵. 24절 경계와 치유. 두 떡 표적의 숫자 차이. 16절의 돌아온 물음.
7 동영상	전통의 따짐 → 입과 마음 →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 산의 치유 → 일곱 광주리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입에서 나오는 것 — 손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부스러기의 믿음". 부제 — "씻지 않은 손에서 마음으로, 부스러기에서 일곱 광주리로".
9 동영상 안건·기도	따짐의 자리와 두로의 길과 광야의 산을 걸으며 손은 씻고 마음은 멀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손에서 마음으로:** 손 씻음(2절)을 따지던 자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18-19절)으로 더러움의 자리가 옮겨간다. 밖의 규례가 안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 결 2 — 거절을 받아 되돌린 믿음:** 가나안 여인은 "개들에게"라는 거절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로 받아 되돌린다(27절). 그 자리에서 "믿음이 크도다"(28절)가 나온다.
- 결 3 — 다시 차려진 떡:** 사흘 굶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32절) 떡 일곱으로 사천 명을 채우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다. 따짐으로 연 장이 채움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4:13-21** (오천 명의 떡, 닭은꼴 표적), **마 10:6**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마 16:9-10** (두 떡을 함께 되짚으심).
- 다른 권 — **막 7:1-23** (전통·고르반·마음의 목록 평행), **사 29:13** (입술과 마음), **출 20:12** (부모 공경).
- 정경 흐름 — 손 씻음에서 마음으로의 이동은 산상수훈(마 5-7장)의 "마음에서"의 결을 이어,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경계를 넓힌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손은 씻으나 마음은 따지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인용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흘 굶은 무리가 채워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더러움도 믿음도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네 믿음이 크도다"는 말이 향한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전통이 계명을 폐할 수 있다
- [x]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온다
- [x] 그 나옴의 자리는 마음이다
- [x]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한다
- [x] 그 믿음이 크다 칭함받는다
- [x] 사천 명이 떡 일곱으로 채워진다
- [x] 남은 조각은 일곱 광주리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전환**"이다. 유대인을 일차 독자삼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던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지상의 국가를 넘어 **하늘 나라**(천국)로 확장됨을 비춘다. 마가가 권능의 증명을, 누가가 내면의 인격적 통치를, 요한이 우주적 완성을 비추듯, 마태는 같은 그리스도를 **천상 차원**의 좌표에서 본다. 15장은 그 호(arc)에서 **정결 규례의 성취·이방으로의 확장** 국면이다. 손 씻음의 전통을 따지는 자리에서 예수는 사 29:13("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을 인용해 옛 선지자의 말이 가리키던 마음의 자리를 드러내신다. 율법이 손의 정결을 말한 것은 본래 마음의 정결을 가리킨 것이었고, 그 성취가 여기서 밝혀진다. 동시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 집"의 경계를 넘어 천국의 상이 이방에게도 열림을 미리 비춘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매듭임을 예비하는 자리 — 규례가 마음의 사랑으로 수렴하는 국면에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씻은 손(전통)→드러난 마음(kardia) /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광야의 일곱 광주리.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밖의 규례에서 안의 마음으로 미는 운동이다. 손 씻음의 따짐(2절) → "마음에서 나오는 것"(18-19절) → 경계 밖 여인의 부스러기(27절) → "믿음이 크도다"(28절) → 광야에 다시 차려진 떡(37절). 정결의 자리가 손에서 마음으로 옮겨가고, 그 마음의 상이 이방에게로 넓어진다.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깨끗함의 기준이 안으로 파고들며 동시에 밖으로 번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손 씻음 논쟁, 한 여인의 딸의 치유, 사천 명의 떡이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정결의 자리가 손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인격의 회복**이다. 더럽게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입이 아니라 마음(kardia)에서 난다. 가나안 여인이 칭함받은 것은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이는 율법이 본래 가리키던 원인 자체가 맑아지는 자리다. 사 29:13이 오래 진단한 "마음이 먼" 병의 뿌리가 드러나고, 천국의 정결이 손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임이 밝혀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손 씻음 논쟁이지만, 아래는 사람 전체(마음)에 임하려는 천국의 통치다.

나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은 멀던 자리에 서 있는가 — 거절을 거절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를 구하는 그 낮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상에 다가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걸(온도)로 묻는다면 — 입술은 뜨겁되 마음은 미지근하지 않은가. 본문은 독자를 바리새인의 따짐 결과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곁에 나란히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마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마음이 드러난 자리에서 고백으로 — 손 씻음을 따지던 표적의 요구를 지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이 알린 고백과 처음 놓인 십자가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가?

- 손 씻음(2절)에서 마음(18-19절)으로 자리가 옮겨간다.
- 안과 밖의 뒤집힘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가나안 여인에게 처음엔 한 말씀도 답하지 않으셨는가?

- 23절 침묵 → 24절 경계 → 26절 거절의 단계.
- 침묵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24절)과 여인의 치유는 어떻게 함께인가?

- 경계의 말과 넘음의 행위가 한 자리에.
- 관찰로는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가 "믿음이 크도다"로 이어지는가?

- 거절의 말을 받아 되돌리는 말이 상을 차린다.
- 되돌림과 칭찬의 잇닿음은 묵상에서 다시.

Q5. 왜 떡 표적이 두 번(오천·사천) 놓이는가?

- 숫자(떡 다섯/일곱, 광주리 열둘/일곱)가 다르다.
- 두 번 됨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16절)가 제자에게 돌아오는가?

- 바리새인을 향하던 따짐이 제자에게 같은 물음으로.
- 나란히 됨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6장

MAT-016 · 복음서 · 헬라어

표적을 구하는 손과 하늘이 알린 고백이 같리고, 반석 위의 교회 곁에 십자가가 처음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바다·배(5절) →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13절, 이방색 깊은 북쪽) → 예루살렘을 향한 길(21절)로 옮겨간다.
- 소품 = 하늘의 빛(2-3절), 떡·누룩(5-12절), 천국 열쇠(19절), 자기 십자가(24절).
- "표적"(semeion, 1·4절), "요나의 표적"(4절)이 배경에 깔린다.
- "교회"(ekklesia, 18절)는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자리.
- "반석"(petra) / "베드로"(Petros)는 같은 어근의 짝(1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시험(1절 표적 요구), 가운데는 고백(16절), 직후는 수난(21절). 높음과 낮음이 붙음.
- "누구라 하느냐"가 두 번(13·15절) — 무리의 답과 너희의 답.
- 같은 장 안에서 칭찬(17절)과 책망(23절)이 한 사람에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 구하는 봄으로 열림.
- 28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 약속된 봄으로 닫힘.
- 구하는 봄에서 약속된 봄으로. 16절 고백·21절 십자가가 그 다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바리새인·사두개인(1) / 제자들 / 베드로(16·22) / 입에 오른 요한·엘리아·예레미야(14).
- 본문이 출처를 직접 밝힘 —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17절).
- 사상 =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23절)의 가름.
- 두 물음(13·15절) — 무리의 답과 베드로의 답이 마주 놓임.
- 따름의 조건(24-26절) — 자기 부인·십자가, 얻음과 잃음의 뒤집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표적의 시험, "요나의 표적", 떠나심.
- 컷 2 (5-12): 떡 잇음,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임을 깨달음.
- 컷 3 (13-20): 두 물음, 고백, 반석·열쇠·교회, 함구 명령.
- 컷 4 (21-28): 첫 수난 예고, 만류와 책망, 자기 십자가, 인자의 옴.

6 – (1) 원어 카드

- semeion(σημείον) – 표적. 1·4절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16·20절.
- ekklesia(ἐκκλησία) – 교회. 18절(신약 첫 용례).
- petra(πέτρα) / Petros(Πέτρος) – 반석 / 베드로. 18절의 어근 짝.
- Hades(ᾗδης) – 음부. 18절 "음부의 권세".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 psyche(ψυχή) – 목숨·생명. 25-26절 "제 목숨을 잃으면".

6 – (2) 문학 구조

- 표적·누룩(1-12) → 고백(13-20) → 십자가(21-28)의 세 묶음.
- 두 물음의 평행 – 13절(사람들)과 15절(너희).
- "이 때로부터"(21절)가 고백을 분기점으로 표시.
- 칭찬(17 "복이 있도다")과 책망(23 "사탄아 물러가라")의 대조 쌍.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4절 "요나의 표적"은 12:39-40의 표현을 반복 – 책 안의 결을 끌어옴.
- 13절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 신전이 있던 북쪽 지경 – 무대 배경으로만.
- 19절 "매고 풀다"는 당시 율법 판단 용어로 알려짐 – 배경으로만, 해석은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6:4 ↔ 마 12:39-40 (요나의 표적)
- 마 16:13-20 ↔ 막 8:27-30 / 눅 9:18-21 (고백 평행)
- 마 16:16 ↔ 요 6:68-69 (베드로의 고백)
- 마 16:21 ↔ 마 17:22-23 / 20:17-19 (세 번의 수난 예고)
- 마 16:24-25 ↔ 마 10:38-39 (자기 십자가·목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시험한다. 예수께서 하늘빛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못 본다 하시고, 요나의 표적 외에 없다 하시며 떠나신다. 건너가는 길에 제자들이 떡을 잊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것이 교훈임을 깨닫는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시며 반석 위의 교회와 열쇠를 말씀하시고 함구를 명하신다. 이 때로부터 수난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만류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들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르심과 인자의 옴으로 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반석 위의 고백과 처음 놓인 십자가"
- 초벌 부제: "표적을 구하는 손에서 하늘이 알린 고백으로, 그리고 처음 놓인 십자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요나 표적·빌립보 가이사랴·매고 풀다·세 수난 예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4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8-19절의 "반석·열쇠·매고 풀다"가 제도 교리로 굳지 않도록 → 어휘·위치만 기록.
- 17절 칭찬과 23절 책망이 한 인물에 함께 — 두 절의 병치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 20절 함구 명령과 21절 공개적 예고의 긴장은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6장은 표적을 구하는 손과 하늘이 알린 고백이 갈리고, 그 고백 곁에 처음으로 십자가가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하늘의 표적을 시험으로 구하는 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께 알려진 것임이 밝혀진다. 반석 위의 교회와 열쇠가 말해진 직후, "이 때로부터" 수난이 비로소 열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르심이 놓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바다·배(5) → 빌립보 가이사랴(13) → 예루살렘을 향한 길(21). 소품 = 하늘빛·누룩·열쇠·십자가. 배경 = semeion·요나의 표적·ekklesia.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시험(1)→고백(16)→수난(21)이 붙음. "누구라 하느냐" 두 번. 칭찬·책망이 한 사람에게.
3 시작과 끝	시작 — 구하는 봄(1). 끝 — 약속된 봄(28). 표적에서 인자의 옴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바리새인·사두개인 / 제자 / 베드로. 출처를 밝힘(17). 사상 = 사람의 일/하나님의 일(23).
5 장면 컷	컷 1 표적(1-4). 컷 2 누룩(5-12). 컷 3 고백·교회(13-20). 컷 4 십자가(21-28).
6 의문·발견·정보	17절 알려진 고백. 20절 함구. 19절 매고 꿰. 21절 "이 때로부터". 23절 책망.
7 동영상	표적의 시험 → 누룩의 깨달음 → 빌립보의 고백 → 반석·열쇠 → 첫 수난·십자가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반석 위의 고백과 처음 놓인 십자가". 부제 — "표적을 구하는 손에서 하늘이 알린 고백으로, 그리고 처음 놓인 십자가".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표적을 구하던 자리와 빌립보 가이사라의 길을 걸으며 누구신지 묻지 못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구하는 봄과 알려진 봄:** 표적을 시험으로 구하는 손(1절)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고백(17절)이 갈린다. 보여 달라는 봄과 알려진 봄이 마주 선다.
- 결 2 — 고백 결의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고백(16절) 바로 곁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리라"(21절)가 "이 때로부터" 놓인다. 영광의 이름과 십자가의 길이 한 장에 붙는다.
- 결 3 — 한 사람의 두 결:** 같은 베드로가 "복이 있도다"(17절)와 "사탄아 물러가라"(23절)를 한 장 안에서 듣는다. 칭찬과 책망이 한 인물에 함께 적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2:39-40** (요나의 표적), **마 10:38-39** (자기 십자가·목숨), **마 17:22-23 · 20:17-19** (어지는 수난 예고).
- 다른 권 — **막 8:27-9:1** (고백·수난 평행), **요 6:68-69**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
- 정경 흐름 — 16장의 고백은 마태복음의 분기점으로, 이후 모든 장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기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표적을 구하는 무리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 때로부터" 십자가가 열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십자가의 길은 한 자리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표적을 시험으로 구하는 손이 있다

- [x]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두 번째 물음이다
- [x]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 [x] 그 고백은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 [x]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 [x] "이 때로부터" 십자가가 열린다
- [x]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부르심이 놓인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치환"이며, 같은 그리스도를 천상 차원의 좌표에서 비춘다 (마가=권능의 증명, 누가=내면의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과 대조). 16장은 그 호(arc)에서 **하늘 나라가 땅의 교회에 열쇠로 맡겨지는 결정적 국면**이다. "천국"(하늘 나라)이 마태에서 거듭 올리는데, 이 장에서 그 나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ekklesia)에게 "천국 열쇠"(19절)로 건네진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는 말은 땅의 공동체와 하늘의 통치가 직접 잇닿게 하는 약속 — 천상 차원이 지상으로 내려와 교회에 위임되는 자리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제자(마 28 지상 대위임령)**의 씨앗이 처음 묻히는 곳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끝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을 공동체이며, 그 권세의 근원("천국 열쇠")이 여기서 처음 말해진다. 베드로의 고백("주는 그리스도")은 구약이 오래 가리킨 메시아(Christos)의 성취가 하늘로부터 알려진 자리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땅의 표적 요구→하늘이 알린 고백("주는 그리스도", 16절) / 반석 위의 천국 열쇠(19절)→처음 놓인 십자가(21·2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하늘의 고백에서 십자가의 길로 미는 이중 운동이다. 시험으로 구하는 표적(1절)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 → 하늘이 알린 고백(16-17절) → 교회와 천국 열쇠(18-19절) → "이 때로부터" 열린 수난(21절) →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24절). 카메라는 먼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천국의 권세를 받은 손을 곧장 십자가의 길 위에 세운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고백이 곧 따름의 길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표적 논쟁, 한 제자의 고백, 십자가의 첫 예고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위로부터 열리는 인격의 회복**이다. 같은 예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손은 못 보고, 베드로는 본다 — 그 차이는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17절) 데서 난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이는 통치의 권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교회에 맡겨지는 자리, 곧 천국이 지상 공동체와 직접 잇닿는 원인 자체의 자리다. 천국 열쇠는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늘이 푼 권세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마디 고백이지만, 아래는 천상의 통치가 한 공동체로 내려와 십자가를 통과해 흐르는 운동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아직 표적을 구하는 손인가, 아니면 하늘이 열어 준 눈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자리에서 있는가 — 그 고백을 받은 손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손이 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걸(불)로 묻는다면 —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하신 그분을 향한 고백의 불이, 표적 구경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나를 미는가. 본문은 독자를 표적 구하는 손 결과 베드로의 고백 곁에 나란히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고백.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땅에서 알린 고백이 천상의 빛으로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으로 입증되는 변화산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표적을 구하는 손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으시는가?

- 시험으로 구하는 봄(1절)과 약속된 봄(28절)의 대비.
- 표적을 아끼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고백을 받으신 직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20절) 하셨는가?

- 알려진 고백(17절)에 함구가 명해진다.
- 알림과 막음의 병치만 기록.

Q3. "땅에서 매고 푸는"(19절) 열쇠는 무엇인가?

- 본문이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
- 위치만 보존, 해석은 보류.

Q4. 왜 "복이 있도다"(17절)와 "사탄아 물러가라"(23절)가 한 사람에게인가?

- 같은 베드로에게 칭찬과 책망이 한 장 안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7장

MAT-017 · 복음서 · 헬라어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산 아래에선 작은 믿음이 막히며, 물고기 입의 동전이 성전세를 갚는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높은 산(1절) → 산 아래 무리(14절) → 가버나움 집(24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빛나는 얼굴·흰 옷(2절), 빛난 구름(5절), 초막 셋(4절), 반 세겔·한 세겔(24·27절), 물고기(27절).
- "변형되사"(metamorphoo, 2절), "초막"(skene, 4절)이 배경에 깔린다.
- 성전세 반 세겔은 출 30:13 전승이 배경 — 배경으로만.
- 믿음의 결 — "믿음이 없고"(apistia, 17절) / "믿음이 작은"(oligopistia, 2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위는 눈부심(2절 빛나는 얼굴), 아래는 막힘(16절 못 고침). 높음에서 낮음으로.
- 소품이 위·아래가 다름 — 빛·구름(위) / 물고기·돈(아래).
- "두려워 말라"(7절)와 "믿음이 작은 까닭"(20절)이 짝.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높은 산으로 열림.
- 27절: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으리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 작은 동전으로 닫힘.
- 해처럼 빛나는 얼굴에서 물고기 입의 동전으로. 22-23절 둘째 수난 예고가 그 사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베드로·야고보·요한(1) / 모세·엘리아(3) / 하늘 음성(5) / 아버지와 아들(14-15) / 성전세 받는 자(24).
- 위의 머무름(4절 초막 셋)과 아래의 막힘(16절 못 고침)이 마주.
- 사상 = 믿음의 작음(20절 겨자씨·산 옮김).
- 하늘 음성 =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5절).
- 성전세 — 면제와 갚음(26-27절)이 한 자리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변형, 모세·엘리아, 초막, 구름, 음성, "두려워 말라", 오직 예수.
- 컷 2 (9-13): 함구 명령, "엘리아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
- 컷 3 (14-21):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침, 고치심, "믿음이 작은 까닭".

- 컷 4 (22-23): 둘째 수난 예고, 제자들의 근심.
- 컷 5 (24-27): 성전세, 물고기 입의 한 세겔.

6 – (1) 원어 카드

- metamorphoo(μεταμορφώω) — 변형되다, 형체가 바뀌다. 2절.
- doxa(δόξα) — 영광·빛남(2절의 빛나는 얼굴 곁).
- skene(σκηνή) — 초막·장막. 4절 "초막 셋".
- apistia(ἀπιστία) — 믿음 없음.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 oligopistia(ὀλιγοπιστία) — 작은 믿음. 20절.
- kokkos(κόκκος) — 낱알. 20절 "겨자씨 한 알".
- stater(στατήρ) — 한 세겔에 해당하는 동전. 27절.

6 – (2) 문학 구조

- 산 위(1-13) → 산 아래(14-23) → 집(24-27)의 세 묶음.
- 높음(빛)과 낮음(동전)의 양 끝 대조.
- "오직 예수 외에는"(8절)이 셋(모세·엘리아·예수)을 하나로 좁힘.
- 둘째 수난 예고(22-23)가 16:21의 첫 예고를 이음.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5절 음성은 3:17 세례 때의 음성과 거의 같되 "그의 말을 들으라"가 더해짐 — 본문 안의 반복.
- 24절 "반 세겔"은 출 30:13의 성전세 전승이 배경 — 배경으로만.
- 13절은 본문이 직접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고 가리킴을 밝힘.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7:5 ↔ 마 3:17 (하늘의 음성)
- 마 17:1-8 ↔ 막 9:2-8 / 눅 9:28-36 (변화산 평행)
- 마 17:20 ↔ 마 21:21 (믿음과 산 옮김)
- 마 17:22-23 ↔ 마 16:21 / 20:17-19 (수난 예고)
- 마 17:24 ↔ 출 30:13 (성전세 반 세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옛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다.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모세·엘리아가 함께 말한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말할 때 빛난 구름이 덮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난다. 옆드린 제자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고, 눈을 드니 오직 예수만 보인다. 내려오며 함구를 명하시고 엘리아가 이미 왔음을 말씀하시니 세례 요한인 줄 깨닫는다.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못 고친 아들을 데려오매 고치시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겨자씨만 한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 하신다. 갈릴리에 모일 때 둘째 수난을 예고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한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물음에 "아들들은 면제되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물고기 입의 한 세겔로 갚으라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직 예수 외에는 — 산 위의 빛과 산 아래의 작은 믿음"
- 초벌 부제: "산 위의 빛에서 산 아래 막힘으로, 그리고 물고기 입의 동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변화산·세례 음성 반복·성전세 전승·수난 예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변화산의 빛(2절)이 신비 체험으로 굳지 않도록 → 어휘·위치만 기록.
- 20절 "산 옮김"의 믿음이 능력 공식으로 굳지 않도록 → oligopistia 위치만 기록.
- 27절 물고기 입의 동전은 사건 묘사로만 보존, 의미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7장은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산 아래에선 작은 믿음이 막히며, 끝내 물고기 입의 동전이 성전세를 갚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높은 산의 변형으로 시작한다.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모세·엘리아가 함께 서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 뒤에 오직 예수만 남는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면 제자들이 못 고친 아이가 기다리고, 막힘의 까닭은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짚어진다. 둘째 수난이 예고되고, 끝에는 가장 작은 동전 한 닢이 물고기 입에서 나와 성전세를 갚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높은 산(1) → 산 아래(14) → 가버나움 집(24). 소품 = 빛·구름·초막·동전·물고기. 배경 = metamorphoo·성전세 전승.
2 첫 느낌·분위기	위는 눈부심, 아래는 막힘. 위·아래 소품이 다름. "두려워 말라"와 "믿음이 작은" 짝.
3 시작과 끝	시작 — 해처럼 빛나는 얼굴(2). 끝 — 물고기 입의 동전(27). 높은 빛에서 작은 동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세 제자 / 모세·엘리야 / 하늘 음성 / 아버지와 아들 / 성전세 받는 자. 사상 = 믿음의 작음(20).
5 장면 컷	컷 1 변형(1-8). 컷 2 엘리야·요한(9-13). 컷 3 산 아래 치유(14-21). 컷 4 수난 예고(22-23). 컷 5 성전세(24-27).
6 의문·발견·정보	5절 세례 음성의 반복. 9절 함구. 13절 본문의 가리킴. 8절 오직 예수. 27절 동전.
7 동영상	산 위의 빛 → 오직 예수 → 산 아래 막힘 → 작은 믿음 → 수난 예고 → 물고기 입의 동전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오직 예수 외에는 — 산 위의 빛과 산 아래의 작은 믿음". 부제 — "산 위의 빛에서 산 아래 막힘으로, 그리고 물고기 입의 동전".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빛난 산과 막힌 산 아래와 가버나움 집을 걸으며 작은 믿음으로 막힌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빛에서 오직 예수로:** 산 위에 모세·엘리야가 함께 서고 초막 셋이 제안되지만(4절), 구름이 걷힌 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다(8절). 셋이 하나로 좁아진다.
- 결 2 — 산 위와 산 아래:** 위에서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2절),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한 아이를 못 고친다(16절). 같은 장에 가장 높은 빛과 가장 막힌 자리가 함께 있다.
- 결 3 — 작은 것의 자리:** 막힘의 까닭은 "겨자씨 한 알" 만 한 믿음(20절)으로, 갇힘은 물고기 입의 동전 한 닢(27절)으로 놓인다. 가장 작은 것이 산을 옮기고 세를 갚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3:17** (세례 때의 같은 음성), **마 16:21·20:17-19** (수난 예고의 연쇄), **마 21:21** (믿음과 산 옮김의 재등장).
- 다른 권 — **막 9:2-29** (변화산·치유 평행), **출 30:13** (성전세 반 세겔), **출 34:29** (모세의 빛난 얼굴 결).
- 정경 흐름 — 변화산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16장의 고백을 하늘이 받친 자리로, 이후 십자가의 길을 듣는 귀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빛나는 산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오직 예수 외에는"이 남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산 아래 못 고친 막힘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빛도 작은 동전도 같은 한 분에게서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이 닿은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 [x]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난다
- [x] 끝에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
- [x] 산 아래 제자들이 한 아이를 못 고친다
- [x] 막힘의 까닭은 작은 믿음이다
- [x] 둘째 수난이 예고된다
- [x] 물고기 입의 동전이 성전세를 갚는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치환"이며, 같은 그리스도를 천상 차원의 좌표에서 비춘다. 17장은 그 호(arc)에서 천상의 영광이 잠깐 지상에 드러나는 국면이다. 변화산은 마태가 비추는 하늘 나라의 차원이 한 순간 가시화되는 자리 — 얼굴이 해처럼, 옷이 빛처럼 빛나고(2절) 천상의 음성이 직접 내린다. 모세(율법)와 엘리야(선지자)가 함께 서는 것은, 마태의 큰 주제인 구약 성취가 시각화된 장면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던 분이 그들과 나란히 서고, 음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며 끝내 "오직 예수"(8절)만 남긴다. 옛 언약의 두 증인이 물러서고 성취가 한 분으로 모인다. 그러나 이 천상의 좌표는 곧 산 아래로 내려와, 둘째 수난 예고(22-23절)와 성전세 한 닢(27절)으로 이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이 장은 천상의 영광이 십자가의 길과 한 호흡으로 묶이는 자리에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 위의 천상의 영광(doxa·해처럼 빛난 얼굴, 2절)→산 아래의 작은 믿음(oligopistia, 20절) / 천상의 빛→물고기 입의 가장 작은 동전 한 닢(stater, 2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천상의 영광에서 지상의 작음으로 내려오는 운동이다. 변형(2절) → 천상의 음성과 "오직 예수"(5-8절) → 산 아래 못 고친 아이와 작은 믿음(16-20절) → 둘째 수난 예고(22-23절) → 물고기 입의 동전(27절). 가장 높은 영광이 드러난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작은 믿음을 짊고 한 닢으로 성전세를 갚는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천상의 빛이 지상의 십자가의 길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산 위의 변형,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물고기 입의 동전이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작은 믿음이 짊이고 회복되도록 부름받는 인격의 자리다. 산 위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는 막힌다 — 빛을 본 것과 믿는 것은 다르며, "믿음이 작은 까닭"(20절)이 정직하게 드러난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이는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던 성취가 한 분에게로 수렴하고("오직 예수"), 그 천상의 영광을 가진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한 닢으로 내려오는 원인 자체의 자리다. 천국의 영광은 군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는 통치다. 빙산의 수면 위는 빛나는 얼굴이지만, 아래는 그 영광이 작음·수난과 한 호흡으로 묶이는 운동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산 위의 빛을 보고서도 산 아래에서 막혀 선 작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 그 막힌 자리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결(온도)로 묻는다면 — 천상의 영광을 본 뜨거움이 산 아래의 막힘 앞에서 미지근해지지 않는가. 본문은 독자를 빛난 산 위와 막힌 산 아래에 나란히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작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가장 작은 동전 한 닢에서 가장 작은 자로 — 작음의 자리가, "누가 크니이까"는 물음 앞에 세워진 어린아이와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산에서 본 것을 부활 전에는 "이르지 말라"(9절) 하셨는가?

- 보여 주심과 막으심이 한 자리에.
- 함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8절)인가?

- 초막 셋(4절)이 오직 예수(8절)로 좁혀진다.
- 셋에서 하나로의 좁힘만 기록.

Q3. 왜 제자들은 못 고치고 "믿음이 작은 까닭"(20절)이라 하셨는가?

- 작은 믿음과 산 옮김이 한 문장에.
- 작음의 까닭은 본문이 더 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왜 동전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가(27절)?

- 본문이 사건만 말하고 까닭을 더하지 않는다.
- 위치만 보존, 해석은 보류.

Q5. 왜 면제(아들들)와 갚음(실족하지 않게)이 함께 놓이는가?

- 26절 면제와 27절 갚음이 한 자리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8장

MAT-018 · 복음서 · 헬라어

큰 자를 묻는 자리에 어린아이가 세워지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며,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가 무자비한 종을 비춘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가버나움(17:24의 집에서 이어진 자리, 1절)로 거의 고정 — 주제가 이동을 대신한다.
- 소품 = 어린아이(2절), 연자 멧돌(6절), 양 백 마리(12절), 만 달란트·백 데나리온(24·28절).
- "큰 자"를 묻는 물음(1절)이 장 전체를 연다.
- "어린아이"(paidion, 2절), "돌이켜"(strepheo, 3절), "실족"(skandalon, 6-7절)이 배경에 깔린다.
- "만 달란트"는 myrioi(만) 달란트 —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큰 자의 물음(1절)에 어린아이로 답함(2절) — 방향이 뒤집힘.
- "작은 자"가 반복(6·10·14절) — 큰 자를 물었는데 작은 자가 나옴.
- "한 마리·한 사람"이 강조 — 다수가 아니라 하나하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 위로 향한 물음으로 열림.
- 35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 옆으로 향한 용서로 닫힘.
- 높이의 물음에서 관계의 용서로. 14절(작은 자 하나)이 그 다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1) / 세워진 어린아이(2) / 목자와 양(12-13) / 죄 지은 형제(15) / 베드로(21) / 임금과 두 종(23-34).
- 두 물음 — "누가 크니까"(1)와 "몇 번 용서하리니까"(21). 둘 다 헤아림.
- 사상 =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음(10·14절).
- 권면의 세 단계(15-17절) — 단둘 → 한두 사람 → 교회.
- 받은 자비(27절 탕감)와 베풀지 않은 자비(28-30절 먹살)가 한 인물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를 세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 컷 2 (6-14): 실족의 경고, 연자 멧돌, 잃은 양 한 마리.
- 컷 3 (15-20): 형제 권면 세 단계, 매고 풀, 두세 사람의 모임.

- 컷 4 (21-22): 베드로의 물음, "일흔 번씩 일곱 번".
- 컷 5 (23-35): 만 달란트 탕감, 백 데나리온 외면, 진노, "마음으로부터 용서".

6 – (1) 원어 카드

- paidion(παιδίον) – 어린아이. 2·4·5절.
- strepho(στρέφω) –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3절 "너희가 돌이켜".
- skandalon(σκάνδαλον) – 걸림돌·실족. 6-9절.
- planaō(πλανᾶω) – 길을 잃고 헤매다. 12-13절 "길 잃은 양".
- adelphos(ἀδελφός) – 형제. 15·21·35절.
- aphiemī(ἀφίημι) – 놓아 보내다, 용서하다. 21·27·32·35절.
- myrioi(μύριοι) – 만(萬). 24절 "만 달란트".

6 – (2) 문학 구조

- 작은 자(1-14) → 형제(15-20) → 용서(21-35)의 세 묶음.
- 두 물음의 평행 – 1절(누가 크냐)과 21절(몇 번 용서하냐).
- 같은 간청의 반복 – 26·29절 "참아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 "매고 푸는" 말(18절)이 16:19과 닿되 형제 권면의 자리에 놓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2절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창 4:24 라멕의 "일흔일곱 배"(복수의 셈)와 표현이 닿음 – 배경으로만.
- 24절 "만 달란트"는 당시 한 지역 세입을 넘는 천문학적 액수, 28절 "백 데나리온"은 백 일 품삯 – 격차의 크기만 배경.
- 6절 "연자 멧돌"은 나귀가 돌리던 큰 멧돌 – 무대 소품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8:12-14 ↔ 눅 15:3-7 (잃은 양 비유 평행)
- 마 18:18 ↔ 마 16:19 (매고 푸는 말)
- 마 18:22 ↔ 창 4:24 (라멕의 셈)
- 마 18:3 ↔ 마 19:14 (어린아이와 천국)
- 마 18:35 ↔ 마 6:14-15 (용서와 용서받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묻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신다. 작은 자를 실족시킴을 무겁게 경고하시고, 아흔아홉을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를 드시며 찾은 하나의 기쁨이 더 큼을 말씀하신다. 죄 지은 형제는 단둘에서 시작해 교회까지 단계로 권면하라 하시고, 두세 사람의 모임에 함께하심을 말씀하신다. 베드로의 "일곱 번" 물음에 "일흔 번씩 일곱 번" 하시고,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진 동료를 외면하다 임금의 진노로 옥에 넘겨지는 비유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한 줄에 이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 잃은 한 마리와 일흔 번씩 일곱 번"
- 초벌 부제: "큰 자를 묻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로, 잃은 한 마리에서 일흔 번씩 일곱 번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라멕의 셈·만 달란트 격차·연자 맺들·잃은 양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5-17절 권면 단계가 절차 규정으로 굳지 않도록 → 단계의 순서만 기록.
- 18절 "매고 꿇"이 제도 권위로 굳지 않도록 → 16:19과의 어휘 닿음만 기록.
- 35절 용서와 용서받음의 잇닿음은 분포만 보존,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8장은 큰 자를 묻는 자리에 어린아이가 세워지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며,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가 무자비한 종을 비추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누가 크니이까"는 위로 향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답은 가운데 세워진 어린아이고, 이어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으려 아흔아홉을 두고 떠나는 목자가 놓인다. 형제 권면이 단둘에서 교회까지 단계로 퍼지고, 베드로의 "일곱 번"은 "일흔 번씩 일곱 번"으로 열린다. 끝에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백 데나리온을 외면한 종이, 받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리로 비춰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버나움(17:24에서 이어진 자리, 1). 소품 = 어린아이·연자 맷돌·양·만 달란트·백 데나리온. 배경 = paidion·myrioi.
2 첫 느낌·분위기	큰 자의 물음에 어린아이로 답함. "작은 자" 반복. "한 마리·한 사람"의 강조.
3 시작과 끝	시작 — 위로 향한 물음(1). 끝 — 옆으로 향한 용서(35). 높이에서 관계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어린아이 / 목자와 양 / 형제 / 베드로 / 임금과 두 종. 사상 = 작은 자 하나(10·14).
5 장면 컷	컷 1 어린아이(1-5). 컷 2 잃은 양(6-14). 컷 3 형제 권면(15-20). 컷 4 일흔 번씩 일곱(21-22). 컷 5 무자비한 종(23-35).
6 의문·발견·정보	13절 하나의 기쁨. 22절 라멕의 썸. 26·29절 같은 간청. 33절 받은 자비의 기준.
7 동영상	큰 자의 물음 → 어린아이 → 잃은 한 마리 → 형제 권면 → 일흔 번씩 일곱 → 무자비한 종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 잃은 한 마리와 일흔 번씩 일곱 번". 부제 — "큰 자를 묻는 자리에서 어린아이로, 잃은 한 마리에서 일흔 번씩 일곱 번으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어린아이가 세워진 자리와 잃은 양의 산길과 두 종의 빛 앞을 걸으며 작은 한 사람을 지나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큰 자와 어린아이:** "누가 크니까"는 물음(1절)에 어린아이가 가운데 세워진다(2절). 위로 향한 헤아림이 가장 작은 자에게로 내려간다.
2. **결 2 — 다수와 한 마리:** 아흔아홉을 산에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며, 찾은 하나의 기쁨이 더 크다(12-13절). 썸의 크기가 하나의 무게로 뒤집힌다.
3. **결 3 — 받은 자비와 베풀지 않은 자비:**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을 외면한다(27·28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33절)가 비춤의 기준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6:19** (매고 푸는 말), **마 19:14** (어린아이와 천국), **마 6:14-15** (용서와 용서받음).
- 다른 권 — **눅 15:3-7** (잃은 양 비유 평행), **창 4:24** (라멕의 썸).
- 정경 흐름 — 18장의 용서는 주기도(6:12)의 "우리가 용서한 것같이"를 비유로 펼쳐, 천국의 크기를 작은 자와 용서로 다시 정의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누가 큰지 헤아리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가운데 세워진 어린아이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잃은 한 마리를 찾는 기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일흔 번씩 일곱 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받은 자비의 크기가 베풀의 기준이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이 닿은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큰 자를 묻는 물음에 어린아이가 세워진다
- [x]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신다
- [x]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
- [x] 형제 권면은 단계로 열린다
- [x] 용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다
- [x]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을 외면한다
- [x] 받은 자비가 베품의 기준이 된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치환"이며,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천국)로 비춘다. 18장은 그 호(arc)에서 천국 공동체의 내적 질서가 작은 자와 용서로 세워지는 국면이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1절)는 물음에 예수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함과 잃음에 대한 무거운 경고, 형제 권면의 단계, 그리고 끝없는 용서로 답하신다. 16장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면, 18장은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인다 — 권세가 아니라 낮아짐, 셈이 아니라 용서로.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의 명령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되는 자리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린 사랑이 받은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천국의 셈법은 무한한 탕감에서 시작해 무한한 용서로 흐른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누가 크니까"(위)→가운데 세워진 어린아이(paidion·아래, 2절) / 받은 만 달란트의 탕감→흘러보내야 할 백 데나리온의 용서(2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위에서 아래로, 받음에서 베품으로 미는 운동이다. "누가 크니까"(1절) →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3절) →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떠남(12절) → 형제 권면(15절) → "일흔 번씩 일곱 번"(22절) → 무자비한 종의 비유(23-35절). 큰 자를 헤아리던 시선이 작은 자 하나에게로 내려가고, 받은 자비가 흘러나가도록 미는 운동이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크기를 묻던 마음이 한 사람을 향한 용서로 기울어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큰 자 논쟁, 잃은 양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기를 헤아리던 마음이 한 사람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인격의 회복이다. 천국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작음이며, 잃은 한 마리·형제 하나를 향하는 마음이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이 모든 낮아짐과 용서의 원인 자체는 "먼저 받은 자비"(24절의 탕감)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받은 무한한 자비가 흘러나오는 자리다. 받은 것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 자비조차 거두어진다(34-35절). 빙산의 수면 위는 용서의 횡수 논쟁이지만, 아래는 받은 자비가 사람 전체를 통과해 작은 자에게로 흐르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큰 자가 누구인지 헤아리며 작은 한 사람을 지나치던 자리에 있는가 —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비가, 내 안에서 백 데나리온의 용서로 흘러나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결(온도)로 묻는다면 — 받을 때는 뜨겁고 베풀 때는 미지근하지 않은가. 사랑의 깊이로 보면, 이 장은 자기중심을 벗어나 잃은 한 마리에게로 가는 자(尺) 앞에 독자를 세운다. 본문은 큰 자를 묻는 자리와 무자비한 종의 자리에 독자를 나란히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용서.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작은 자를 받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 어린아이를 받으시던 손이, 둘이 한 몸이 된 창세의 "처음"을 묻고 어린이를 안수하시며 재물 앞에 돌아선 청년을 비추는 자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큰 자"를 묻는 물음에 어린아이를 답하셨는가?

- 헤아릴 크기를 물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작음으로 답하심.
- 방향의 뒤집힘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잃은 한 마리의 기쁨이 아흔아홉보다 더 큰가?

- 13절 "더 기뻐하리라".
- 다수와 하나의 기쁨 비교만 기록.

Q3. "일흔 번씩 일곱 번"(22절)은 셈인가 셈을 넘음인가?

- 라멕의 복수의 셈과 표현이 닿는다.
- 셈의 결만 보존, 해석은 보류.

Q4. 왜 같은 간청이 두 번(26·29절) 놓이는가?

- "참아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가 임금에게·동료에게 똑같이.
- 반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왜 받은 자비가 베풀의 기준이 되는가(33절)?

-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 받음과 베풀의 잇닿음만 기록,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19장

MAT-019 · 복음서 · 헬라어

둘이 한 몸이 된 처음을 묻고, 어린이를 막지 말라 하시며, 부자 청년이 재물 앞에서 돌아서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난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1절) — 예루살렘을 향한 길의 첫 장면.
- 소품 = 처음(4·8절), 이혼증서(7절), 어린아이들(13절), 재물(22절).
- "시험하여"(3절) 이혼 물음이 장을 연다.
- "처음·본래"(arche, 4·8절), "한 몸"(henoo, 6절), "마음의 완악함"(sklerokardia, 8절)이 배경에 깔린다.
- "낙타"(kamelos) / "바늘귀"(rhapsis)의 극단의 그림(2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시험(3절), 가운데는 어린이를 안음(13-15절), 끝은 떠남(22절). 따짐 사이 부드러움.
- "처음·본래"가 반복(4·8절) — 시작 자리로 돌아감.
- 처음으로 누군가 "근심하며" 돌아서 떠남(22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 규정의 물음으로 열림.
-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 순서의 역전으로 닫힘.
- 규정의 물음에서 순서의 역전으로. 14절(어린이를 금하지 말라)이 그 사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바리새인(3) / 제자들 / 어린아이들(13) / 부자 청년(16·22) / 베드로(27).
- 두 물음 — "옳으니이까"(3)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 청년만 근심하며 떠남(22).
- 사상 = 처음으로 돌아감(4·8절 창세 인용).
- 청년 — 지킴(20)·부족(20)·떠남(22)이 한 인물에.
- 베드로 — 버림과 받음(27·29절)이 마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이혼의 시험, "처음·한 몸",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컷 2 (10-12):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고자에 대한 말씀.
- 컷 3 (13-15): 어린아이들, 꾸짖음, "금하지 말라", 안수.

- 컷 4 (16-22): 부자 청년, 계명, "소유를 팔라", 근심하며 떠남.
- 컷 5 (23-30): "낙타가 바늘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베드로의 물음, "먼저와 나중".

6 – (1) 원어 카드

- arche(ἀρχή) — 처음·시작. 4·8절 "처음에·본래".
- henoo(ένώω) 계열 — 하나로 합함. 6절 "한 몸".
- sklerokardia(σκληροκαρδία) — 굳은 마음, 완악함. 8절.
- eunouchos(εὐνοῦχος) — 고자. 12절.
- teleios(τέλειος) — 온전·완전. 21절 "온전하고자".
- kamelos(κάμηλος) — 낙타. 24절.
- rhapsis(ῥαφίς) — 바늘. 24절 "바늘귀".

6 – (2) 문학 구조

- 관계(1-15: 혼인·어린이) → 재물(16-30: 청년·낙타·먼저와 나중)의 두 묶음.
- 두 묶음의 평행 — 3절(웁으나)과 16절(무엇을 하여야).
- 대조 쌍 — 어린이의 천국(14)과 부자의 어려움(23-24).
- "처음·본래"의 반복(4·8)이 규정을 시작 자리에 비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4·5절은 창 1:27("남자와 여자로")과 창 2:24("둘이 한 몸")를 본문이 함께 인용.
- 7절 "이혼 증서"는 신 24:1의 규정이 배경 — 배경으로만.
- 24절 "낙타·바늘귀"는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의 극단의 그림 — 무대 소재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19:4-5 ↔ 창 1:27 / 창 2:24 (창세 두 본문)
- 마 19:7 ↔ 신 24:1 (이혼 증서)
- 마 19:14 ↔ 마 18:3 (어린이와 천국)
- 마 19:21 ↔ 마 6:19-21 (하늘의 보화)
- 마 19:30 ↔ 마 20:16 (먼저와 나중, 다음 장에서 다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서 무리를 고치신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시험하니 창세의 두 본문을 들어 "둘이 한 몸이니 나누지 못한다" 하시고, 모세의 허락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제자들의 반문에 고자에 대해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기를 제자들이 막자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 하시며 안수하신다. 한 청년이 영생을 묻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매 "소유를 팔아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난다. "부자는 천국에 들기 어렵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남이 쉽다" 하시니,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는 물음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하시고, 베드로의 셈에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으리니 먼저와 나중이 뒤바뀐다" 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재물 앞에 돌아선 청년, 바늘귀의 낙타"
- 초벌 부제: "처음의 한 몸에서 어린이의 손으로, 재물 앞에 돌아선 청년과 바늘귀의 낙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창세 두 본문·신 24:1·낙타와 바늘귀·먼저와 나중)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9절 이혼 논의가 규정 판례로 굳지 않도록 → "처음·본래"(arche)의 위치만 기록.
- 21절 "소유를 팔라"가 일반 규범으로 굳지 않도록 → 한 인물의 떠남으로만 기록.
- 24절 "낙타·바늘귀"의 극단은 그림으로만 보존, 해석은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19장은 둘이 한 몸이 된 처음을 묻고, 어린이의 손을 받으시며, 부자 청년이 재물 앞에서 돌아서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이혼의 옳고 그름을 시험하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예수는 규정을 창세의 "처음"에 비추어 "둘이 한 몸"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허락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어린이를 막지 말라 하시며 안수하시고, 다 지킨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 하시니 그가 근심하며 떠난다. 끝에는 낙타와 바늘귀의 극단, 버린 자의 여러 배, 먼저와 나중의 역전이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유대 지경, 예루살렘을 향한 길(1). 소품 = 처음·이혼증서·어린이·재물. 배경 = arche·창세 두 본문.
2 첫 느낌·분위기	따짐 사이 부드러움(어린이). "처음·본래" 반복. 처음으로 근심하며 떠남.
3 시작과 끝	시작 — 규정의 물음(3). 끝 — 순서의 역전(30). 규정에서 역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바리새인 / 제자 / 어린이 / 부자 청년 / 베드로. 사상 = 처음으로 돌아감(4·8).
5 장면 컷	컷 1 이혼·처음(1-9). 컷 2 고자(10-12). 컷 3 어린이(13-15). 컷 4 부자 청년(16-22). 컷 5 낙타·먼저와 나중(23-30).
6 의문·발견·정보	8절 허락과 본래. 4-5절 창세 인용. 14·23절 어린이와 부자. 21·22절 온전함과 재물.
7 동영상	이혼의 시험 → 처음의 한 몸 → 어린이의 손 → 청년의 떠남 → 낙타와 바늘귀 → 먼저와 나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재물 앞에 돌아선 청년, 바늘귀의 낙타". 부제 — "처음의 한 몸에서 어린이의 손으로, 재물 앞에 돌아선 청년과 바늘귀의 낙타".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따짐의 자리와 어린이를 안으신 자리와 청년이 돌아선 길을 걸으며 다 지켰다 하고도 돌아서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규정과 처음:** 이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서 예수는 창세의 "처음"으로 거슬러 "둘이 한 몸"을 말씀하신다(4-6절). 허락은 완악함의 자리, 본래는 처음의 자리다(8절).
- 결 2 — 어린이와 부자:** 천국은 어린이 같은 이의 것이고(14절),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23절). 받는 손과 줌 손이 같은 장에서 마주 선다.
- 결 3 — 떠남과 역전:** 다 지킨 청년이 한 가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고(22절),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으며 "먼저와 나중"이 뒤바뀐다(29-30절). 줌 것을 놓지 못한 떠남과 놓은 버림이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8:3** (어린이와 천국), **마 6:19-21** (하늘의 보화), **마 20:16** (먼저와 나중, 다음 장에서 다시).
- 다른 권 — **창 1:27·창 2:24** (창세 두 본문), **신 24:1** (이혼 증서).
- 정경 흐름 — 19장의 "먼저와 나중"(30절)은 곧바로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이어져, 순서의 역전을 비유로 펼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규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처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린이를 안으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권 것을 놓지 못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이 닿은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혼의 물음에 "처음"으로 답하신다
- [x] 둘이 한 몸이니 나누지 못한다
- [x] 어린이를 금하지 말라 하신다
- [x] 부자 청년이 재물 앞에서 근심하며 떠난다
- [x] 낙타가 바늘귀로 지남이 더 쉽다
- [x]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 [x] 먼저와 나중에 뒤바뀐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전환"이다. 19장은 그 호(arc)에서 모세의 규정이 창세의 처음으로 거슬러 성취되고, 천국의 들어감이 가진 것과 같리는 국면이다. 이혼을 시험하는 물음 앞에서 예수는 모세의 허락(신 24장)보다 더 뒤, 창 1-2장의 "처음"(arche)으로 데려가신다 —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5절, 창 2:24 인용). 율법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은 본래의 자리가 아니었고, 그 본래가 여기서 회복된다. 이것이 마태의 **구약 성취**의 한 결 — 규정을 폐함이 아니라 그 기원으로 데려가 온전케 함이다. 동시에 어린이를 받으시고 부자 청년을 비추심으로, **하늘 나라(천국)**에 들어감이 가진 것이 아니라 빈손의 따름임을 보이신다. "낙타가 바늘귀로"(24절)의 불가능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26절)로 넘어간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창 1장의 **통치(다스리라)**가 가리킨 본래의 질서가 결혼과 소유의 자리에서 다시 드러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세의 규정→창세의 "처음"(arche, 4·8절) / 다 지켰다는 가진 손→소유를 놓고 따르는 빈손(21-22절)·바늘귀의 낙타(2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규정에서 기원으로, 가짐에서 따름으로 미는 운동이다. 이혼의 따짐(3절) → 창세의 "처음"·"한 몸"(4-6절) → 어린이를 받으심(13-15절) → "한 가지가 부족하다"·근심하며 돌아섬(20-22절) → 낙타와 바늘귀(24절) → 먼저와 나중의 역전(30절). 규정을 따지던 자리가 창조의 온전함으로 거슬러 가고, 가진 손이 빈손의 따름으로 부름받는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본래의 질서와 빈손의 천국이 함께 드러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이혼 논쟁, 어린이 안수, 부자 청년의 떠남이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깨어진 자리가 창조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도록 부름받는 인격**이다. 결혼은 규정의 문제 이전에 "처음" 한 몸 된 질서의 문제이며, 천국 들어감은 의의 성취 이전에 빈손의 따름의 문제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모든 규정과 의가 가리키던 원인 자체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이며, 그 처음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통치다. 부자 청년이 막힌 것은 계명이 아니라 손에 쥐는 것이었다 —

천국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들어가는 나라다. 빙산의 수면 위는 이혼·재물 논쟁이지만, 아래는 창조의 처음으로 사람 전체를 데려가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다 지켰다 하면서도 한 가지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서던 자리에 있는가 — 손에 쥘 것을 놓고 빈손으로 따르라는 그 부름이, 내 안에서든 따름으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결(진주)로 묻는다면 — 이 본문의 진주(천국)를 발견했는가, 모든 것을 팔아 살 결단인가,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서는가. 본문은 빈손으로 안기는 어린이와 가진 손으로 돌아서는 청년 사이에 독자를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처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먼저와 나중의 역전에서 천국의 셈법으로 — 빈손의 따름이, 늦은 일꾼에게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포도원 주인과 섬김·대속의 자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1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허락"(모세)과 "본래"(처음)가 갈리는가(8절)?

- 완악함의 허락과 처음의 한 몸이 마주 선다.
- 허락과 본래의 갈림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제자들은 어린이를 데려온 이들을 꾸짖었는가(13절)?

- 받아들여려는 자리에서 막으려 함.
- 막음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왜 다 지킨 청년에게 "한 가지"가 떠남이 되는가(21-22절)?

- 온전함을 향한 물음과 많은 재물이 한 사람에.
- 한 가지의 무게는 묵상에서 다시.

Q4. "낙타가 바늘귀로"(24절)는 왜 이렇게 극단의 그림인가?

-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
- 그림으로만 보존, 해석은 보류.

Q5. 왜 "먼저와 나중"이 뒤바뀌는가(30절)?

- 버림과 받음의 셈 뒤에 순서가 역전된다.
- 역전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0장

MAT-020 · 복음서 · 헬라어

같은 한 데나리온이 낮은 일꾼에게도 주어지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손 곁에 섬김과 대속이 놓이며, 길가의 두 맹인이 눈을 뜬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비유 속 포도원·장터(1절)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17절) → 여리고 길가(29절)로 옮겨간다.
- 소품 = 데나리온(2절), 잔(22절), 눈(34절).
-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으니"(1절) 비유가 장을 연다.
- "데나리온"(denarion, 하루 품삯), "선함"(agathos, 15절), "눈"(ophthalmos, 15·34절)이 배경에 깔린다.
- "섬기는 자"(diakonos) / "종"(doulos) / "대속물"(lytron)이 26-28절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썸(9-10절 같은 데나리온, 원망), 가운데는 수난 예고(18-19절), 직후는 높은 자리 청(20-21절). 낮아짐과 높아짐의 충돌.
- "먼저와 나중"(16절)이 19:30을 받아 비유로 설명됨.
- 끝은 길가의 두 맹인이 눈을 떠 따라감(34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 들어감으로 열림.
- 34절: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를 따르니라" — 따름으로 닫힘.
- 들어감에서 따름으로. 28절(섬기려·대속물)이 그 사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집 주인과 품꾼들(1-15) / 예수와 제자들 /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20) / 열 제자(24) / 두 맹인(30).
- 두 바람 — 먼저 온 자의 썸(10)과 세베대 아들들의 청(21). 둘 다 더 높은 몫.
- 사상 = 섬김으로의 뒤집힘(25-27절 주관함 vs 섬김).
- 셋째 수난 예고(17-19절)가 가장 구체적(조롱·채찍·십자가).
- 집 주인의 답 — 약속과 후함(13-15절)이 한 자리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6): 포도원 비유, 다섯 시간, 같은 데나리온, 원망과 답, "먼저와 나중".

- 컷 2 (17-19): 올라가는 길, 셋째 수난 예고.
- 컷 3 (20-28): 세베대 아들들의 청, "내 잔", 열 제자 분개, 섬김과 대속물.
- 컷 4 (29-34): 여리고 길가, 두 맹인, 꾸짖음, 눈을 만지심, 따름.

6 – (1) 원어 카드

- denarion(δηνάριον) – 데나리온, 하루 품삯. 2·9·10·13절.
- agathos(ἀγαθός) – 선함. 15절 "내가 선하므로".
- ophthalmos(ὄφθαλμός) – 눈. 15절("네 눈이 악하냐")·34절("눈을 만지시니").
- diakonos(διάκονος) – 섬기는 자. 26절.
- doulos(δοῦλος) – 종. 27절.
- lytron(λύτρον) – 대속물, 풀어 주는 값. 28절.
- splanchnizomai(σπλαγχνίζομαι) – 깊이 불쌍히 여기다. 34절.

6 – (2) 문학 구조

- 비유(1-16) → 길과 자리(17-28) → 치유(29-34)의 세 묶음.
- "먼저와 나중"(16절)이 19:30을 인클루지오처럼 받음.
- 두 물음의 평행 – 21절("무엇을 원하느냐", 아들들)과 32절("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 "눈"이 두 결로(15절 마음의 눈, 34절 육신의 눈) 한 장에.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절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의 표준 – 배경으로만.
- 15절 "네 눈이 악하냐"는 직역으로, '악한 눈'은 인색·시기의 관용 표현이 배경 – 배경으로만, 해석은 보류.
- 22절 "잔"은 닥쳐올 고난의 결로 본문이 쓰며, 23절은 자리의 예비를 아버지께 돌림 – 본문 안의 흐름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0:16 ↔ 마 19:30 (먼저와 나중)
- 마 20:17-19 ↔ 마 16:21 / 17:22-23 (수난 예고의 연쇄, 가장 구체적)
- 마 20:25-28 ↔ 막 10:42-45 (섬김과 대속물 평행)
- 마 20:22 ↔ 마 26:39 (잔을 마심)
- 마 20:29-34 ↔ 막 10:46-52 (여리고 맹인 치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천국을 포도원 주인에 견주신다. 이른 아침부터 십일시까지 품꾼을 들이고, 저물매 나중 온 자부터 다 한 데나리온씩 준다.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니 "약속대로 주었고 내 것을 내 뜻대로 함이 옳다,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하시며 "먼저와 나중이 뒤바뀐다" 하신다. 올라가는 길에 조롱·채찍·십자가·삼일의 부활을 자세히 예고하시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좌우편 자리를 청한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고, 열 제자가 분개하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도 섬기려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하신다. 여리고 길가의 두 맹인이 외치며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따라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같은 한 데나리온 — 섬기는 자리와 눈뜨는 두 맹인"
- 초벌 부제: "같은 한 데나리온에서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눈을 뜨는 두 맹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데나리온·악한 눈 관용·섬김과 대속물·수난 예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6절 비유가 노동·임금 규범으로 굳지 않도록 → "같은 데나리온"의 사건만 기록.
- 28절 "대속물"(lytron)이 속죄론으로 굳지 않도록 → 어휘 위치만 기록.
- 21·32절의 같은 물음(자리와 눈)은 분포만 보존,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0장은 같은 한 데나리온이 낮은 일꾼에게도 주어지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손 곁에 섬김과 대속이 놓이며, 길가의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포도원 비유로 시작한다. 이른 아침부터 십일시까지 들어온 품꾼이 모두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먼저 온 자의 원망에 주인은 "약속대로 주었고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하며 "먼저와 나중"의 역전을 말한다. 올라가는 길에 가장 구체적인 수난이 예고되고, 높은 자리를 청하는 손 곁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도 섬기려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하신다. 끝에는 여리고 길가의 두 맹인이 눈을 떠 따라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포도원·장터(1) → 올라가는 길(17) → 여리고 길가(29). 소품 = 데나리온·잔·눈. 배경 = denarion·악한 눈 관용.
2 첫 느낌·분위기	셈과 원망. 낮아짐(수난)과 높아짐(자리)의 충돌. "먼저와 나중". 끝의 눈뜸.
3 시작과 끝	시작 — 들어감(1). 끝 — 따름(34). 들어감에서 따름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집 주인과 품꾼 / 예수와 제자 / 세베대 아들들 / 열 제자 / 두 맹인. 사상 = 섬김으로의 뒤집힘(25-28).
5 장면 컷	컷 1 포도원 비유(1-16). 컷 2 수난 예고(17-19). 컷 3 자리·섬김(20-28). 컷 4 여리고 맹인(29-34).
6 의문·발견·정보	비유의 다섯 시간. 8절 나중부터 줌. 22-23절 잔과 자리. 21·32절 같은 물음.
7 동영상	같은 데나리온 → 먼저와 나중 → 수난 예고 → 섬김과 대속물 → 길가 두 맹인의 눈뜸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같은 한 데나리온 — 섬기는 자리와 눈뜨는 두 맹인". 부제 — "같은 한 데나리온에서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눈을 뜨는 두 맹인".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포도원의 저녁과 올라가는 길과 여리고 길가를 걸으며 더 받을 줄 알고 셈하며 원망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과 십일시의 품꾼이 같은 샅을 받는다(9-10절). 약속의 정당함과 주인의 후함이 한 데나리온에 함께 있고, 그 같음이 원망을 부른다.
2. **결 2 — 자리와 섬김:** 좌우편 자리를 구하는 청 곁에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26절)가 놓이고, "인자도 섬기려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28절)가 그 정점이 된다. 높음의 바람이 섬김으로 뒤집힌다.
3. **결 3 — 두 눈의 물음:** "무엇을 원하느냐"는 같은 물음이 높은 자리(21절)와 눈뜸(32절)에 두 번 놓인다. 한 물음 앞에 두 바람이 갈리고, 눈을 구한 이는 떠서 따라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9:30** (먼저와 나중의 원형), **마 16:21 · 17:22-23** (수난 예고의 연쇄), **마 26:39** (잔을 마심으로 이어짐).
- 다른 권 — **막 10:35-52** (자리·섬김·여리고 맹인 평행).
- 정경 흐름 — 20장의 섬김과 대속물(28절)은 마태복음이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한 절로 요약하며, 곧 21장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선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품삯을 셈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같은 한 데나리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무엇을 원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높음을 구하던 손이 섬김과 눈뜸의 자리로 돌려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물음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든 품꾼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 [x] 먼저 온 자가 원망한다
- [x] "먼저와 나중"이 뒤바뀐다
- [x] 가장 구체적인 수난이 예고된다
- [x] 높은 자리의 청에 섬김으로 답하신다
- [x] 인자가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 [x] 길가의 두 맹인이 눈을 떠 따라간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전환"이며,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천국)로 비춘다. 20장은 그 호(arc)에서 천국의 썬법이 사람의 썬을 뒤집고, 천국의 큰 자가 대속물로 내려가는 국면이다. 포도원 비유는 "천국은 마치 ...와 같으니"(1절)로 열린다 — 천국에서 받음은 일한 시간(공로)이 아니라 주인의 선함(은혜)으로 정해진다. 마지막에 온 자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16절)는 천국의 역전이 선언된다. 이 썬법은 곧 통치의 모양으로 이어진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lytron)로"(28절) 준다. 마태가 비추는 하늘 나라는 군림이 아니라 거저 주는 은혜와 값을 치르는 섬김의 나라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이 대속의 값으로 구체화되는 자리 — 십자가의 잔(22절)을 향해 올라가는 길 위에서 선언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썬(공로)→천국의 썬법(주인의 선함 agathos, 15-16절) / 군림하는 높은 자리(21절)→대속물(lytron)로 내려가는 섬김(2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썬에서 은혜로, 군림에서 섬김으로 미는 운동이다. 같은 한 데나리온(9-10절) →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15절) → 먼저와 나중의 역전(16절) → 수난 예고(18-19절) → "섬기는 자가 되라"(26절) → "대속물로 주려 함"(28절) → 눈을 뜬 두 맹인(34절). 받은 만큼 썬하던 자리가 거저 주는 선함 앞에 서고, 높은 자리를 구하던 손이 섬김과 대속으로 내려간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천국의 썬법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포도원 품삯 논쟁, 두 아들의 자리 청함, 두 맹인의 치유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공로로 썬하던 마음이 은혜로 받는 마음으로, 군림하던 자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인격의 회복이다. "악한 눈"(15절)은 남이 거저 받는 것을 미워하는 썬의 눈이며, "떠진 눈"(34절)은 부르짖어 자비를 구해 따라가는 눈이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모든 썬법과 자리의 원인 자체는 "주인의 선함"과 인자의 "대속물"이다 — 천국은 공로의 거래가 아니라 거저 주는 선함과 값을 치르는 섬김에서 흐른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값을 치르는 그 자리가 천국 썬법의 진원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품삯 논쟁이지만, 아래는 은혜와 대속으로 흐르는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더 받을 줄 알고 셈하며 원망하던 "악한 눈"의 자리에 있는가 — 거저 주는 선함과 대속물로 내려가신 섬김 앞에서, 셈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떠진 눈"이 내 안에서 열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결(온도)로 묻는다면 — 거저 받을 때는 뜨겁고 남이 거저 받을 때는 미지근하지(악한 눈) 앓은가. 사랑의 깊이로 보면, 이 장은 자기중심의 셈을 벗어나 거저 주는 선함을 받는 자(尺) 앞에 독자를 세운다. 본문은 셈하며 원망하는 품꾼과 부르짖어 눈을 뜬 맹인 사이에 독자를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섬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대속물로 내려가는 섬김에서 입성으로 — 거저 주는 천국의 셈법이, 나귀를 타고 도성에 들어서 성전을 비우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자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늦게 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주셨는가(8절)?

-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 그 순서가 원망을 부른다.
-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같은 한 데나리온이 후함이자 원망이 되는가?

- 약속(13)과 후함(15)이 한 자리에.
- 같음의 양면만 기록.

Q3. 왜 잔은 주시되 자리는 보류하시는가(22-23절)?

- "잔은 마시려니와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의 것".
- 줌과 보류의 갈림만 기록.

Q4. "대속물"(28절)은 왜 "많은 사람"을 위한가?

- 본문이 풀이를 더하지 않는다.
- 위치만 보존, 해석은 보류.

Q5. 왜 "무엇을 원하느냐"가 자리(21절)와 눈(32절)에 두 번 놓이는가?

- 같은 물음에 높은 자리와 눈뜸이 마주.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1장

MAT-021 · 복음서 · 헬라어

나귀를 타고 들어선 도성에서 성전이 비워지고,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마르며, 두 아들과 악한 농부가 '돌'을 가리킨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감람산 벳바게(1절) → 예루살렘 성안(10절) → 성전(12절) → 무화과나무 길(18절) → 다시 성전(23절)으로 드나든다.
- 소품 = 나귀와 나귀 새끼(2·7절), 겔옷·나뭇가지(7·8절), 무화과나무(19절), 버린 돌(42절).
- "호산나"(hosanna, 9절, 시 118:25)와 속 9:9 인용(5절)이 배경에 깔린다.
- "성전"(hieron, 12절), "강도"(lestes, 13절)가 무대를 채운다.
- "포도원"(ampelon, 33절), "돌"(lithos, 42절)이 두 비유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환호("호산나", 9절), 뒤는 다툼(권위 시비·날카로운 비유). 받침에서 노림으로.
- 들어올 때 겔옷·가지(8절), 끝엔 잡으려는 손(46절).
- 비유 둘이 연달아(두 아들·악한 농부) 같은 결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 나귀를 부르는 채비로 열림.
- 45-46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라" — 적의의 노림으로 닫힘.
- 환호의 입성에서 적의의 노림으로. 13절(강도의 소굴)·42절(버린 돌)이 그 사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1) / 큰 무리(8) / 온 성(10) / 매매하는 자들(12) / 대제사장·서기관(15·23) / 비유의 두 아들·농부·종·아들(28-39).
- 환호(9절)와 권위 시비(23절)가 마주.
- 사상 = 열매(19·34·43절)가 세 곳을 묶음.
- 두 아들 — 말과 행함의 어긋남(29-30절).
- 악한 농부 — 보냄의 단계가 거절의 단계로(34-3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나귀, 겔옷·가지, "호산나", 온 성의 소동.
- 컷 2 (12-17): 성전 비움,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 치유, 아이들의 호산나.
- 컷 3 (18-22):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마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 컷 4 (23-27): 권위 시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는 되물음.
- 컷 5 (28-32): 두 아들, 말과 행함, "세리와 창녀가 먼저".
- 컷 6 (33-46): 악한 농부, 아들을 죽임, "버린 돌이 머릿돌", 잡으려다 무서워함.

6 — (1) 원어 카드

- hosanna(ὡσαννά) — 호산나, 본래 "구원하소서"(시 118:25). 9·15절.
- praus(πραύς) — 온유·겸손. 5절(속 9:9 인용).
- hieron(ἱερόν) — 성전(뜰). 12·14·15·23절.
- lestes(ληστής) — 강도. 13절 "강도의 소굴".
- syke(συκῆ) — 무화과나무. 19-21절.
- ampelon(ἀμπελών) — 포도원. 28·33절.
- lithos(λίθος) — 돌. 42·44절 "버린 돌·머릿돌".

6 — (2) 문학 구조

- 입성·성전(1-17) → 무화과나무(18-22) → 권위·두 비유(23-46)의 세 묶음.
- 시 118편이 양 끝에 — 9절(118:25 호산나)과 42절(118:22 버린 돌).
- 무화과나무 마름(18-19)과 성전 비움(12-13)이 나란히(잎/매매 vs 열매/기도).
- "열매"가 세 곳(19·34·43)을 묶는 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4·5절은 속 9:9("네 왕이... 나귀를 탔도다")를 본문이 직접 인용.
- 13절은 사 56:7("기도하는 집")과 렘 7:11("강도의 소굴")을 묶어 인용.
- 42절은 시 118:22("버린 돌이 머릿돌")를 인용 — 모두 배경으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1:5 ↔ 속 9:9 (나귀를 탄 왕)
- 마 21:9 ↔ 시 118:25-26 (호산나)
- 마 21:13 ↔ 사 56:7 / 렘 7:11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
- 마 21:42 ↔ 시 118:22 (버린 돌·머릿돌)
- 마 21:21 ↔ 마 17:20 (믿음과 산 옮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감람산 벧바게에서 나귀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고 겔옷을 엮어 타신다. 무리가 겔옷과 가지를 퍼며 "호산나" 외치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한다. 성전에 드사 매매상의 상을 엮으시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 이튿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믿고 의심

하지 않으면" 하신다. 성전에서 권위 시비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로 되물으시고, 두 아들 비유로 말과 행함의 어긋남을 드시며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 하신다. 악한 농부 비유로 마지막에 아들을 죽인 농부를 말씀하시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겨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잡으려 하나 무리를 무서워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호산나에서 버린 돌로 — 비워진 성전과 마른 나무"
- 초벌 부제: "나귀를 타고 들어선 도성에서 비워진 성전으로, 마른 나무와 버린 돌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숙 9:9·시 118편·사 56:7·렘 7:11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무화과나무 마름(19절)이 즉각의 알레고리로 굳지 않도록 → "있만 있고 열매 없음"의 사실만 기록.
- 두 비유(28-44)가 단일 적용으로 굳지 않도록 → 말/행함, 보냄/거절의 구조만 기록.
- 9:42절의 시 118편 앞뒤 절 병치는 분포만 보존,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1장은 나귀를 타고 들어선 도성에서 성전이 비워지고,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마르며, 두 아들과 악한 농부가 '버린 돌'을 가리키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호산나"의 환호 속 나귀를 탄 입성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성전에 드시자 매매상의 상이 엮어지고 "기도하는 집"이 회복을 요구받으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마른다. 권위를 따지는 손 앞에서 되물음으로 답하시고, 두 아들 비유로 말과 행함의 어긋남을, 악한 농부 비유로 보냄과 거절의 단계를 펴신다. 끝에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잡으려는 손이 무리를 무서워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감람산 벧바게(1) → 성안(10) → 성전(12) → 무화과나무 길(18) → 성전(23). 소품 = 나귀·겔옷·가지·무화과나무·돌. 배경 = hosanna·속 9:9·시 118편.
2 첫 느낌·분위기	환호(호산나)에서 다툼으로. 겔옷·가지에서 잡으려는 손으로. 비유 돌이 연달아.
3 시작과 끝	시작 — 나귀를 부르는 채비(1). 끝 — 적의 노림(46). 입성에서 노림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무리 / 온 성 / 매매하는 자 / 대제사장·서기관 / 두 비유의 인물. 사상 = 열매(19:34·43).
5 장면 컷	컷 1 입성(1-11). 컷 2 성전(12-17). 컷 3 무화과나무(18-22). 컷 4 권위 시비(23-27). 컷 5 두 아들(28-32). 컷 6 악한 농부(33-46).
6 의문·발견·정보	4-5절 속 9:9 인용. 13절 두 옛 글의 결합. 무화과나무와 성전의 병치. 42절 버린 돌.
7 동영상	나귀의 입성 → 호산나 → 비워진 성전 → 마른 나무 → 권위 시비 → 두 비유 → 버린 돌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호산나에서 버린 돌로 — 비워진 성전과 마른 나무". 부제 — "나귀를 타고 들어선 도성에서 비워진 성전으로, 마른 나무와 버린 돌로".
9 동영상 안건 가·기도	나귀가 지나간 길과 비워진 성전과 마른 나무 길을 걸으며 앞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잎과 열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마르고(19절), 매매로 찬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을 요구받는다(13절). 겔의 무성함과 속의 빈 열매가 두 장면에서 나란히 비춰진다.
- 결 2 — 말과 행함:** 두 아들 비유에서 "싫소이다" 했다가 간 아들과 "가겠나이다" 했으나 가지 않은 아들이 마주 선다(29-30절). 입의 답과 발의 행함이 갈린다.
- 결 3 — 버린 돌의 뒤집힘:** 환호의 "호산나"(시 118:25)와 "건축자들이 버린 돌"(시 118:22)이 같은 노래의 앞뒤에서 와, 한 장의 양 끝을 묶는다(9·42절). 버려진 것이 머릿돌이 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7:20** (믿음과 산 옮김의 재등장, 21절), **마 20:18-19** (앞 장의 수난 예고가 입성으로 이어짐), **마 22:1-14** (다음 장의 혼인 잔치 비유로 비유가 계속됨).
- 다른 권 — **속 9:9** (나귀를 탄 왕), **시 118:22-26** (호산나·버린 돌), **사 56:7·렘 7:11** (기도하는 집·강도의 소굴).
- 정경 흐름 — 21장의 입성과 성전 비움은 마태복음의 수난 주간을 여는 문으로, 이후 성전에서의 논쟁들(22-23장)이 곧바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호산나의 환호 속 입성을 바라보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비워진 성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잎만 무성하다 마른 나무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버린 돌이 머릿돌"이라는 뒤집힘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결의 무성함이 아니라 열매가 묻는 자리에 선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는 말이 닿은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나귀를 타고 호산나의 환호 속에 입성하신다
- [x] 성전을 비우시며 "기도하는 집"을 부르신다
- [x]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마른다
- [x] 권위 시비에 되물음으로 답하신다
- [x] 두 아들 비유가 말과 행함을 가르친다
- [x] 악한 농부가 마지막에 아들을 죽인다
- [x]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율법의 성취에서 천국으로의 전환"이며, 유대인을 일차 독자로 삼아 **구약 성취를 압도적**으로 비춘다. 21장은 그 호(arc)에서 **왕이 예언대로 도성에 들어와 성전과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국면**이다. 입성은 속 9:9("네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의 성취로 명시되고(5절), 무리는 시 118:25-26의 "호산나"로 맞는다. 성전 정확는 사 56:7("내 집은 기도하는 집")과 렘 7:11("강도의 소굴")을 겹쳐 읽으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42절)은 시 118:22의 인용이다. 마태가 비추는 하늘 나라가 옛 성전·옛 포도원의 청지기를 지나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43절)로 옮겨가는 자리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통치(다스리라)**의 왕이 겸손한 나귀로 임해 그 나라의 열매를 따져 묻는 국면 — 십자가의 주간을 여는 입성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산나"의 환호의 입성(겸손한 왕 praus, 5절)→비워진 성전·마른 무화과나무(잎만 무성, 19절) / 버린 돌 (lithos)→모퉁이의 머릿돌(42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들어옴에서 비움으로, 앞에서 열매로 따져 미는 운동이다. 나귀 탄 입성·"호산나"(1-11절) → 성전의 상이 엮어짐·"기도하는 집"(12-13절) → 잎만 무성한 나무가 마름(18-19절) → 두 아들·악한 농부 비유(28-41절) → "버린 돌이 머릿돌"·"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42-43절). 겸손한 왕이 들어와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모양을 열매로 따지고, 거절당한 돌이 도리어 머릿돌로 세워진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환호와 거절이 갈리며 나라가 열매로 옮겨가는 한 운동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명의→대의→신의)

명의(현상):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나귀 탄 입성, 성전 정화, 마른 무화과나무, 권위 논쟁과 두 비유다. **대의(마음·인격):**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양은 있으나 열매 없는 자리가 드러나고 회복으로 부름받는 인격**이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잃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으며, 한 아들은 말로만 "가겠나이다" 한다 — 모두 겉과 속, 말과 행함의 어긋남이다. **신의(원인):** 더 깊이 보면, 모든 심판과 비유의 원인 자체는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43절)는 통치의 이동이며, 그 진원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이다 — 거절당한 그분이 도리어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입성·성전 논쟁이지만, 아래는 모양에서 열매로, 옛 청지기에서 새 백성으로 옮겨가는 통치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잃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나무 곁에서 있는가 — 말로만 "가겠나이다" 하지 않고, 버린 돌을 머릿돌로 받아 열매 맺는 백성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영적 점검의 한 결(온도)로 묻는다면 — 환호로 맞이할 때는 뜨겁고, 열매로 따져질 때는 미지근하지 않은가. 본문은 "호산나"로 맞이하는 무리와 권위를 따지며 버리는 손 사이에 독자를 세우고,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열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열매를 따져 묻는 자리에서 혼인 잔치와 가장 큰 계명으로 —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자리가, 청함받은 자들의 비유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매듭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잎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19절)?

- 본문은 "잎사귀만 있고 다른 것이 없으므로"라고만 적는다.
- 마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무화과나무 마름과 성전 비움이 나란히 놓이는가?

- 잎만 무성한 나무와 매대로 찬 성전.
- 두 장면의 병치만 기록.

Q3. 왜 권위 시비에 답 대신 되물으셨는가(25절)?

-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 되물음으로 막으심의 까닭은 위치만 보존.

Q4. 왜 "버린 돌이 머릿돌"(42절)인가?

- 버린 것이 머릿돌이 되는 뒤집힘.

- 뒤집힘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왜 환호(호산나)와 버려짐(버린 돌)이 같은 시편에서 오는가?

- 시 118:25과 118:22가 양 끝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2장

MAT-022 · 복음서 · 헬라어

혼인 잔치의 빈 자리와 던져진 질문들. 세금·부활·계명·다윗의 자손이 차례로 시험으로 오고, 끝엔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한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앞 무대는 비유 속 임금의 혼인 잔치(2절), 차린 상(4절), 길에서 모은 손님(9-10절), 예복 없는 한 사람(11절).
- 뒤 무대는 성전 뜰(21장에서 이어짐). 무리가 교대로 오름 — 바리새인(15)·헤롯당(16)·사두개인(23)·율법사(35).
- 소품 = 혼인 예복, 데나리온 한 닢(19절). "이 형상과 글이 뉘 것이냐"(20절)에 동전이 중앙.
- 제도 배경 =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23절). 24절은 모세의 계대결혼 규례 인용.
- 본문이 의도 밝힘 — 35절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잔치인데 빈 자리(오지 않음). 흥겨움과 웅함이 함께.
- 뒤는 팽팽한 질문 대결 — 묻는 말마다 올라가미. 끝의 침묵이 크게 남음.
- 잔치(1-14) → 논쟁(15-46)으로 또렷이 둘로 갈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 예수께서 비유로 여심.
- 46절: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 침묵으로 닫힘.
- 비유로 열려 침묵으로 닫힘. 41절에서 받기만 하던 자리가 되묻기로 뒤집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임금·종·청함 받은 자·예복 없는 자(비유) / 바리새인·헤롯당·사두개인·율법사 / 무리·제자.
- 상황 = 거듭된 시험(15·18절). 본문이 시험임을 밝힘.
- 사상 네 마디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21), "산 자의 하나님"(32), "주·이웃 사랑"(37·39), "다윗의 자손" 물음(45).
- 인용 — 신 6:5 + 레 19:18(두 사랑, 37·39), 출 3:6(산 자의 하나님, 32), 시 110:1(다윗의 주, 4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4): 혼인 잔치 비유, 예복 없는 자,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음".
- 컷 2 (15-22): 세금 질문, 데나리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놀라 떠남.

- 컷 3 (23-33): 사두개인 부활 질문, "산 자의 하나님", 무리 놀람.
- 컷 4 (34-40): 가장 큰 계명, 두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 컷 5 (41-46): 다윗의 자손 물음(시 110), 한마디도 대답 못함, 침묵.

6 – (1) 원어 카드

- gamos(γάμος) – 혼인·잔치. 2-12절 비유 무대.
- denarion(δηνάριον) – 데나리온, 로마 은전. 19절 "세금 낼 돈".
- eikon(εἰκών) – 형상·초상. 20절 "이 형상이 닮 것이냐".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23·28·30·31절.
- entole(ἐντολή) – 계명. 36·38·40절 "큰 계명".
- agapao(ἀγαπάω) – 사랑하다. 37·39절(주·이웃 사랑).
- kyrios(κύριος) – 주. 44절 시 110:1 인용("주께서 내 주께").
- christos(χριστός) – 그리스도. 42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6 – (2) 문학 구조

- 비유(1-14) → 세 질문(15-40) → 되묻기(41-46)의 골격.
- 세 질문의 동형 반복 – 무리가 옴 → 시험 질문 → 답 → 반응(놀람/떠남).
- 구약 인용 사슬 4회 – 출 3:6(32), 신 6:5·레 19:18(37·39), 시 110:1(44).
-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46)가 21~23장 논쟁을 닫는 경첩.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데나리온에는 당대 황제의 초상·명문이 새겨짐 – 20절 "형상과 글"의 배경.
-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한 집단(23절 본문 명시), 계대결혼(신 25:5)을 들어 부활을 반박함.
- 바리새인·헤롯당은 평소 대립 집단이나 시험을 위해 함께 옴(16절) – 인물 배치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2:21 ↔ 창 1:27 (eikon·형상)
- 마 22:32 ↔ 출 3:6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
- 마 22:37 ↔ 신 6:5 / 마 22:39 ↔ 레 19:18 (두 사랑)
- 마 22:44 ↔ 시 110:1 (주께서 내 주께)
- 마 22:1-14 ↔ 눅 14:16-24 (잔치 비유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차리고 종을 보내 청하나 오지 않는다. 다시 보내도 밭으로 장사로 가버리고, 더러는 종을 죽인다. 임금은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와 상을 채운다. 그 가운데 예복 없는 한 사람이 묶여 바깥 어둠으로 던져지고,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으니라"로 비유가 닫힌다. 무대가 성전 뜰로 바뀐다. 바리새인이 헤롯당과 함께 세금을 묻자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일곱 형제로 묻자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율법사가 큰 계명을 묻자 "주를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가 강령이라 하신다. 끝으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을 거꾸로 물으시니,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는 침묵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빈 자리의 잔치, 잿아드는 질문 —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 초벌 부제: "줄지은 질문이 한 물음 앞에서 잿아드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테나리온·계대결혼·구약 인용 4회)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21)가 정치 교리로 굳지 않도록 → eikon 어휘와 동전 소품 위치만 기록.
- "산 자의 하나님"(32)이 부활 교리 진술로 가지 않도록 → 출 3:6 인용 위치만 보존.
- "예복 없는 자"(11-13)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 없음 → 인물 반응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2장은 잔치의 빈 자리로 열려 줄지은 질문이 한 되묻기 앞에서 잿아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임금의 혼인 잔치를 차리지만 청함 받은 이들은 오지 않고, 길에서 모은 손님으로 상이 채워진다. 그 뒤 무대가 성전 뜰로 바뀌면, 바리새인·헤롯당·사두개인·율법사가 차례로 와서 세금·부활·계명을 묻는다. 묻는 말마다 시험이지만,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을 거꾸로 물으시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는 침묵으로 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비유 — 혼인 잔치·예복·길의 손님. 성전 뜰 — 교대로 오르는 무리. 소품 = 데나리온(eikon).
2 첫 느낌·분위기	잔치인데 빈 자리, 뒤는 팽팽한 질문. 끝의 침묵이 큼.
3 시작과 끝	시작 — 비유로 여심(1절). 끝 —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46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임금·예복 없는 자 / 바리새인·헤롯당·사두개인·율법사. 네 마디 — 가이사·산 자의 하나님·두 사랑·다윗의 주.
5 장면 컷	컷 1 잔치 비유(1-14). 컷 2 세금(15-22). 컷 3 부활(23-33). 컷 4 큰 계명(34-40). 컷 5 다윗의 자손(41-46).
6 의문·발견·정보	두 번의 청함. 예복 없는 자. eikon·창 1:27. 출 3:6→산 자의 하나님. 끊긴 질문.
7 동영상	빈 잔치 → 길의 손님 → 세금·부활·계명 → 되묻기 → 침묵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빈 자리의 잔치, 잿아드는 질문". 부제 — "줄지은 질문이 한 물음 앞에서 잿아드는 자리".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잔칫집과 성전 뜰을 걸으며 불러와 상에 앉은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채워지는 빈 자리:** 청함 받은 이들이 오지 않자 길에서 모은 손님으로 상이 채워진다. 비는 자리와 채워지는 자리가 한 잔치에 있다.
2. **결 2 — 형상이 가르치는 두 영역:** 동전의 eikon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기준으로 놓인다. 한 동전이 두 영역을 묻게 한다.
3. **결 3 — 잿아드는 질문:** 세 번의 시험이 들어오고, 한 번의 되묻기에 모두 잠잠해진다. 본문은 질문의 무리에서 침묵의 한 점으로 좁아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6:16** (그리스도 고백), **마 21:33-46** (앞 장 포도원 비유의 결).
- 다른 권 — **출 3:6** (산 자의 하나님), **신 6:5 / 레 19:18** (두 사랑), **시 110:1** (주께서 내 주께), **창 1:27** (형상), **눅 14:16-24** (잔치 비유).
- 정경 흐름 — 22장의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 물음은 복음서의 그리스도 물음을 한 줄로 모은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길에서 불러와 잔칫상에 앉은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예복 없는 한 사람이 물음 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손바닥에 놓인 동전 — "이 형상이 뉘 것이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두 잠잠해진 침묵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묻기를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들린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마디도 대답 못한 침묵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청함 받은 이들이 오지 않는다
- [x] 길의 손님으로 상이 채워진다
- [x] 예복 없는 한 사람이 던져진다
- [x]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선포된다
- [x]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이 답해진다
- [x] 두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 된다
- [x] 끝은 감히 묻지 못하는 침묵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마가=권능의 메시아, 누가=내면의 인격적 통치, 요한=우주적 완성),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2장은 그 호(arc)에서 5대 대명령 척추의 셋째 기둥, '사랑(Love)'이 솟는 자리다. 성경 전체를 꿰는 다섯 대명령(통치·축복·사랑·제자·거룩) 가운데, 22장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37절)는 **가장 큰 계명(The Greatest Commandment)**이 선포되는 마태복음의 첫째 기둥이다. 결정적인 것은 40절이다 —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구약 전체(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사랑에 매달려(krematai) 있다**. 마태의 '구약 성취'가 한 강령으로 압축되는 자리이며, 이 사랑 명령은 곧 28장의 제자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향해 떼는 첫 발이다 — 가장 큰 계명에서 지상 대위임령으로의 한 운동이 여기서 시작된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줄지는 시험(세금·부활·계명)→가장 큰 계명으로 수렴 / 흠어진 율법→두 사랑의 척추("온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 매달림", 40절) / 다윗의 자손→다윗의 주(시 110편, 41-46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흠어진 시험에서 한 척추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율법 전체가 한 사랑의 강령으로 성취되는 자리다. 잔칫상의 비유(1-14절) → 가이사 세금(15-22절) → 부활 논쟁(23-33절) → 가장 큰 계명(34-40절) → 다윗의 주에 대한 되물음(41-46절) → 감히 묻지 못하는 침묵. 던져진 질문들이 두 사랑에 매달려 한 중심으로 좁혀지고, 끝내 예수의 한 물음 앞에 다 잦아든다. 정지된 논쟁이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한 강령에 매달리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비유와 세 차례의 논쟁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 층 — 마음·인격), 시험하러 온 자들의 미움의 자리에서 율법 전체를 떠받치는 **한 사랑**이 길어 올려진다 — 바리새인·헤롯당·사두개인·율법사가 덮을 놓는 자리에서, 가장 큰 계명이 드러난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린 사랑의 통치**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40절)는 빙산의 수면 아래, 구약 전체가 한 사랑에 매달려 있는 구속사의 뿌리를 본다. 표면은 논쟁의 승패이지만, 아래는 율법의 척추가 사랑임이 드러나는 자리다.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43절)는 되물음은, 혈통의 자손을 넘어선 통치의 차원을 마태식으로 못 박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린 그 사랑 — "마음·목숨·뜻을 다하여"의 '다함'이 내 안에서도 점화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시험하러 온 자리와 가장 큰 계명이 드러나는 자리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두 사랑의 척추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사랑의 깊이를 재는 자(尺)로 보면, 22장의 부름은 나를 다해 사랑하는 그 '다함'의 자리다 — 십자가를 통과한 천국 복음이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곳.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잦아든 질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2장에서 율법의 척추로 드러난 사랑이, 23장에서는 그 사랑이 빠진 걸(외식)을 향한 일곱 번의 화로 — 사랑의 강령을 짊어져야 할 자들의 비어 있는 길이 "예루살렘아"라는 탄식 앞에 드러난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예복 없는 한 사람만 물으셨는가?(12절)

- 다 길에서 막 데려온 손님인데 한 사람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 예복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나뉘는가?(21절)

- 동전의 형상(eikon)이 기준으로 놓임.
- 두 영역의 경계는 본문이 더 풀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옛 구절(출 3:6)이 어떻게 부활의 답이 되는가?(32절)

-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에서 "산 자의 하나님"으로.
- 옛 본문이 그 자리에 오는 길은 묵상으로 이월.

Q4. 두 계명이 어떻게 "온 율법의 강령"인가?(40절)

- 신 6:5와 레 19:18이 한 자리에 묶임.
- 둘이 전체를 떠받친다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는 어떻게 함께인가?(45절)

- 시 110:1의 두 kyrios가 물음으로 놓임.
- 자손이자 주이심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46)는 무엇을 여는가?

- 질문이 끊긴 침묵이 다음(23장 화)으로 이어짐.
- 그 침묵의 자리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3장

MAT-023 · 복음서 · 헬라어

안에서 비어 있는 걸,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 무거운 짐과 회칠한 무덤을 지나, 끝은 "예루살렘아"라는 탄식으로 잣아든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 뜰(22장에 이어짐). 청중 = 무리·제자(1절), 대상 = 서기관·바리새인.
- 소품 = 모세의 자리(2), 경문 띠·옷술(5), 윗자리·높은 자리(6), 박하·회향·근채(23), 잔과 대접(25), 회칠한 무덤(27).
- 호칭 소재 = 랍비·아버지·지도자(7-10).
- 옛 인물 = 아벨·사가랴(35), 호명되는 도시 = 예루살렘(37).
- 경문 띠(phylakterion)·옷술(kraspedon)은 제도된 표지(민 15:38) —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화 있을진저"가 파도처럼 반복되어 무거워짐. 37절 "예루살렘아"에서 공기가 풀림.
- 앞은 날카롭고 단단, 37절부터 부드러움 — 책망과 탄식이 한 장에.
- 청중이 무리·제자(1-12) → 서기관·바리새인 직접 호명(13~)으로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 가르침으로 열림.
-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 떠남으로 닫힘.
- 가르침 → 일곱 화 → 탄식(37) → 떠남(39)으로 결이 바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무리·제자 / 서기관·바리새인 / (옛) 아벨·사가랴 / (호명) 예루살렘.
- 상황 = 책망(13-33)과 탄식(37-39).
- 사상 = 겉과 속의 어긋남(3·25·28). 가운데 11-12절 "큰 자는 섬기는 자".
- hypokrites(외식·가면) 6회(13·15·23·25·27·29), typhlos(맹인) 5회(16·17·19·24·26)가 장을 꿰뚫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 무리·제자에게, 모세의 자리·무거운 짐·경문 띠·호칭, "큰 자는 섬기는 자".
- 컷 2 (13-22): 화 1~3 — 천국 문, 교인 하나, 맹세 분별.
- 컷 3 (23-33): 화 4~7 — 십일조와 정의·공흠·믿음, 잔의 걸, 회칠한 무덤, 선지자 무덤.
- 컷 4 (34-39): 보냄받는 선지자, 아벨·사가랴의 피, "예루살렘아" 탄식, "보지 못하리라".

6 – (1) 원어 카드

- ouai(ούαί) – 화 있을진저. 13~29절 일곱 번 후렴.
- hypokrites(ὑποκριτής) – 외식하는 자·배우·가면. 13·15·23·25·27·29절.
- typhlos(τυφλός) – 맹인. "맹인 된 인도자"(16·17·19·24·26).
- phylakterion(φυλακτήριον) – 경문 띠·성구함. 5절.
- kraspedon(κράσπεδον) – 옷술. 5절(민 15:38 배경).
- rabbi(ῥαββί) – 랍비·선생. 7-8절(받기 좋아하는 호칭).
- taphos(τάφος) – 무덤. 27절 "회칠한 무덤".
- ornis(ὄρνις) – 새·암탉. 37절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

6 – (2) 문학 구조

-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여" 일곱 번 후렴(13~29).
- 겹/속 대비 모티프 반복(3:25·27·28).
- 가운데 박힌 섬김의 겹(11-12) – 책망 앞의 경첩.
- 책망(13-33) → 보냄·피(34-36) → 탄식(37-39)의 하강 구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경문 띠·옷술은 율법 표지(신 6:8·민 15:38) – 본문은 "넓게·길게" 한 것을 짚음.
- 회칠한 무덤은 부정을 표시하던 관습 – 겹의 아름다움과 속의 뼈가 대비됨.
- "하루살이 거르고 낙타 삼킴"(24)은 극단 대비의 과장 그림 – 수사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3:5 ↔ 민 15:38 / 신 6:8 (옷술·경문 띠)
- 마 23:11-12 ↔ 마 20:26-27 (큰 자는 섬기는 자)
- 마 23:35 ↔ 창 4:8(아벨) / 대하 24:20-21(사가랴)
- 마 23:37 ↔ 시 91:4 (날개 아래)
- 마 23:39 ↔ 시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말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경문 띠를 넓게 옷술을 길게 하며, 윗자리와 "랍비" 소리를 좋아한다 하시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다. 이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여"가 일곱 번 되울린다. 천국 문을 닫고, 박하·회향은 드리되 정의·공휼·믿음은 버리며, 잔의 겹만 닦고, 회칠한 무덤 처럼 겹은 아름답되 안은 죽은 자의 뼈라 하신다. 보냄받는 선지자를 죽이리라 하시며 아벨에서 사가랴까지의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신다. 그러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는 탄식으로 풀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일곱 번의 화, 한 번의 탄식 – 겹과 속, 그리고 예루살렘아"

- 초벌 부제: "되올리는 책망이 한 도시의 이름 앞에서 풀리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경문 띠·웃술·회칠한 무덤·일곱 화 후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일곱 "화"(13-29)가 정죄 설교로 굳지 않도록 → ouai 반복 횟수와 위치만 기록.
- 35절 "이 세대에 피가 돌아가리라"는 신학 진술로 가지 않도록 → 아벨·사가랴 호명 위치만 보존.
- 37절 "암탉"의 걸은 목상으로 이월 → ornis와 도시 이름의 대비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3장은 겉과 속의 어긋남을 일곱 번 짚은 책망이 한 도시의 이름을 부르는 탄식 앞에서 풀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먼저 무리와 제자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무거운 짐과 넓은 경문 띠를 짊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한다. 이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이여"가 일곱 번 되올리며 천국 문, 십일조, 잔의 걸, 회칠한 무덤을 차례로 부른다. 그러다 끝에 가서 목소리가 풀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라는 탄식으로 잣아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는 한 줄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개	성전 뜰, 소품 — 모세의 자리·경문 띠·옷술·잔·회칠한 무덤, 호칭 — 랍비·아버지.
2 첫 느낌·분위기	"화"가 파도처럼 반복되어 무거움, 37절에서 풀림 — 책망과 탄식이 한 장에.
3 시작과 끝	시작 — 가르침(1절), 끝 — "보지 못하리라"(39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무리·제자 / 서기관·바리새인 / 아벨·사가랴 / 예루살렘, 사상 = 겔과 속의 어긋남, hypokrites·typhlos 반복.
5 장면 컷	컷 1 무리·제자에게(1-12), 컷 2 화 1~3(13-22), 컷 3 화 4~7(23-33), 컷 4 피·탄식(34-39).
6 의문·발견·정보	일곱 화 후렴, "둘 다"(23), 하루살이·낙타(24), 한 세대의 피(35), 암탉(37).
7 동영상	무거운 짐 → 일곱 화 → 보냄·피 → "예루살렘아" 탄식 → 떠남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일곱 번의 화, 한 번의 탄식", 부제 — "되울리는 책망이 한 도시의 이름 앞에서 풀리는 자리".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성전 뜰에 서서 겔과 속을 묻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겔과 속의 어긋남:** 잔의 겔(25), 회칠한 무덤(27), 겔의 의로움(28)이 거듭 대비된다. 같은 어긋남이 다른 소품으로 되 돌아온다.
2. **걸 2 — 되울리는 후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가 일곱 번 같은 박자로 친다. 한 문장이 장 전체의 골격을 만든다.
3. **걸 3 — 책망에서 탄식으로:** 단단하던 목소리가 37절 "예루살렘아"에서 풀려 작은 암탉의 그림으로 내려앉는다. 본문은 책망의 높이에서 탄식의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0:26-27 (큰 자는 섬기는 자), 마 6:1-18 (외식에 대한 산상수훈의 걸).
- 다른 권 — 민 15:38 / 신 6:8 (옷술·경문 띠), 창 4:8 / 대하 24:20-21 (아벨·사가랴), 시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 91:4 (날개 아래).
- 정경 흐름 — 23장의 탄식은 곧이어 오는 감람산 강화(24-25장)의 성전 멸망 예고로 자리를 넘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성전 뜰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손을 본다.
- 멈춤 1: 일곱 번 되울리는 "화" 가운데 멈춘다.
- 멈춤 2: 겔은 아름답고 속은 빼인 회칠한 무덤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갑자기 풀린 "예루살렘아"의 탄식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겔과 속이 한자리에 놓이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겔을 손에 친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암탉의 날개 아래로 부르는 탄식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무거운 짐이 보인다
- [x] "큰 자는 섬기는 자"가 가운데 박힌다
- [x]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 되울린다
- [x] 겔과 속이 거둬 대비된다
- [x] 회칠한 무덤이 그림으로 선다
- [x] "예루살렘아"의 탄식이 책망을 푼다
- [x] 끝은 "보지 못하리라"는 떠남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둬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3장은 그 호(arc)에서 22장에 솟은 사랑의 척추가 빠진 길을 향한 책망의 자리다. 5대 대명령 척추(통치·축복·사랑·제자·거룩)에서 보면, 직전 22장이 '사랑(Love)'의 가장 큰 계명을 세웠다면, 23장은 그 사랑을 짊어져야 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정작 그것을 비워 둔 자리를 일곱 번 짊는다 —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23절). 책망은 옛 선지자들의 길을 잇는다("선지자들의 피"가 이 세대에 돌아온다, 35-36절). 그러나 마태식 성취는 분노로 끝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아"라는 탄식과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37절)는, 심판의 외침 아래 거둬 품으려 한 사랑이 깔려 있음을 드러낸다. 22장의 사랑 명령이 그 거울로 23장의 비어 있는 길을 비춘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곱 번의 화(겔과 속의 어긋남)→한 도시를 향한 탄식 / 길을 향한 책망("회칠한 무덤", 27절)→속을 품으려는 사랑("암탉이 모음 같이", 37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책망에서 탄식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겔로 보면 이는 사랑의 척추가 빠진 길을 향한 슬픔의 성취다. 모세의 자리의 무거운 짐(1-12절) →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13-33절) → 선지자들의 피(34-36절)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의 탄식(37절) → 황폐한 집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38-39절). ouai(화)의 외침이 ornis(암탉)의 품으로 기울어, 심판이 모으려는 손으로 풀려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일곱 번의 책망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길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비어 있는 길을 갖춘 자들의 속이 드러난다 — 넓은 경문 띠(phylakterion)와 긴 옷자락(kraspedon), 잔의 걸만 닦음, 회칠한 무덤(taphos). 사람에게 보이려는 겔과 비어 있는 속의 어긋남이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거둬 모으려 하신 사랑과 원하지 않은 거절이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37절)는 빙산의 수면 아래, 일곱 번의 책망조차 품으려는 사랑에서 나왔음을 본다. 표면은 분노의 외침이지만, 아래는 거절당한 모으심의 슬픔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거듭 모으려 하신 그 날개 앞에서 — 내 곁과 속의 어긋남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책망받는 곁의 자리와 품으려는 날개 아래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모으심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온도(뜨거움/미지근함)를 재는 자(尺)로 보면, 23장의 부름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곁이 아니라 속의 정직으로 향한다 — 회칠한 곁이 아니라 모으심에 응답하는 속을 향해.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탄식.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3장 끝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38절)는 한 줄이, 24장에서는 무너질 돌 하나로 — 황폐한 집이 곧 헐릴 성전 건물 앞 물음으로 이어져, 탄식이 종말의 징조와 깨어 있음의 강화로 번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말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3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가르침은 따르되 행위는 따르지 말라.
- 가르침과 사람의 어긋남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라"(23절)인가?

- 작은 십일조와 정의·공흠·믿음을 둘 다.
- 둘을 함께 두는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왜 곁과 속이 거듭 대비되는가?(25·27·28절)

- 잔의 곁, 회칠한 무덤, 곁의 의로움.
- 같은 대비의 반복만 기록, 까닭은 보류.

Q4. 옛 모든 피가 왜 한 세대에 돌아가는가?(35절)

- 아벨에서 사가랴까지가 "이 세대"에.
- 한 세대에 모이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책망 한 가운데 "암탉"(37절)은 왜 놓이는가?

- 큰 도시 이름 옆의 작은 새 한 마리.
- 대비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보지 못하리라"(39절)는 무엇을 여는가?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의 조건.

- 떠남과 다시 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4장

MAT-024 · 복음서 · 헬라어

무너질 돌 하나 위에서 시작된 물음. 미혹·전쟁·해산의 고통을 지나, 무화과나무의 연한 가지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로 흐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을 나오는 길(1-2) → 감람산(3절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 소품 = 큰 돌들(2), 번개(27), 독수리(28), 구름·나팔(30-31), 무화과나무 연한 가지(32).
- 물음의 두 핵심어 = parousia(임하심)·synteleia(세상 끝), 3절.
- 인용 = 다니엘 "멸망의 가증한 것"(bdelygma, 15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 시간 배경 = "겨울에나 안식일에"(2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웅장한 성전이 곧 무너짐으로 바뀐. 미혹·전쟁·기근·지진이 "재난의 시작"(8)이라 더 팽팽.
- "미혹을 주의하라"(4·5·11·24)가 후렴처럼 반복.
- 징조를 다 말한 뒤 "그날과 그때는 모름"(36)으로 결이 뒤집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성전 건물들" /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 무너질 건물로 열림.
- 51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 깨어 있지 못한 종으로 닫힘.
- 36절 "모름"이 경첩 — 앞은 징조, 뒤는 "깨어 있으라"(42).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제자 / (비유·예) 거짓 그리스도·거짓 선지자 / 노아 / 밭의 두 사람·뱀들의 두 여인 / 충성된 종·악한 종.
- 상황 = 세 겹 물음(3절: 때·임하심·세상 끝).
- 사상 = "끝까지 견딤"(13)·"깨어 있음"(42·44).
- planao(미혹) 4·5·11·24, eklektos(택함) 22·24·31 — 미혹과 택함이 나란히. parousia 27·37·39.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성전을 나옴, "돌 하나도 남지 않음", 세 물음.
- 컷 2 (4-14): 재난의 시작, "끝까지 견딤", 복음이 온 세상에.
- 컷 3 (15-28): 멸망의 가증한 것, 도망,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 번개 같은 임함.
- 컷 4 (29-31): 해·달·별 변동, 구름 탄 오심, 나팔과 택하신 자들을 모음.

- 컷 5 (32-35): 무화과나무 비유, "여름이 가까움",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음".
- 컷 6 (36-51): "그때는 모름", 노아 때, 둘 중 하나, "깨어 있으라", 두 중.

6 – (1) 원어 카드

- parousia(παρουσία) — 임하심·강림. 3·27·37·39절.
- synteleia(συντέλεια) — 세상 끝·완성. 3절.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 21·29절 "큰 환난".
- odin(ὠδίν) — 해산의 진통·재난. 8절 "재난의 시작".
- planaο(πλανάω) — 미혹하다. 4·5·11·24절.
- eklektos(ἐκλεκτός) — 택하신 자. 22·24·31절.
- bdelygma(βδέλυγμα) — 가증한 것. 15절(단 9:27 인용).
- syke(συκῆ) — 무화과나무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있다. 32절 / 42·43절.

6 – (2) 문학 구조

- 세 겹 물음(3) → 징조(4-31) → 비유·권면(32-51)의 골격.
- "미혹을 주의하라" 후렴 반복(4·5·11·24).
- 큰 그림(번개·구름·별)과 작은 그림(무화과·맷돌·종)의 교차.
- 36절 "모름"을 경첩으로 "깨어 있으라"(42)로 하강.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멸망의 가증한 것"(15)은 다니엘 9:27·11:31·12:11의 표현 — 본문이 직접 가리킴.
- "재난"(odin, 8)은 해산의 진통 — 시작과 더 큰 것의 결이 어휘에 담김.
- "겨울·안식일"(20)은 도망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시간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4:15 ↔ 단 9:27 / 11:31 (멸망의 가증한 것)
- 마 24:29 ↔ 사 13:10 / 욥 2:31 (해·달·별의 변동)
- 마 24:30 ↔ 단 7:13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 마 24:37-39 ↔ 창 6-7 (노아 때)
- 마 24:42 ↔ 마 25:13 (깨어 있으라 — 다음 장 다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며 큰 건물들을 가리키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하신다. 감람산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묻는다. "미혹을 주의하라" 하시며 전쟁·기근·지진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고,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인자의 임함은 번개 같으리라 하신다. 해·달·별이 변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팔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무화과나무의 연한 가지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같이 이 일을 보거든 가까운 줄 알라 하시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신다. 노아 때 처럼, 둘 중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듯, "깨어 있으라" 하시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다른 끝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둘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 징조와 모름, 그리고 깨어 있음"
- 초벌 부제: "징조를 다 말한 뒤 모름을 두고, 깨어 있음으로 달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다니엘 인용·해산의 진통·무화과나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징조 목록(4-31)이 종말 시간표로 굳지 않도록 → parousia·thlipsis 어휘 위치만 기록.
- 36절 "모름"과 앞의 징조가 모순처럼 다루어지지 않도록 → 앎·모름의 병치만 보존.
- 40-41절 "둘 중 하나"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 같은 자리의 갈림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4장은 무너질 돌 하나에서 시작된 물음이 징조를 다 말한 뒤 "그때는 모른다"를 두고 깨어 있음으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제자들이 가리킨 성전 건물 앞에서 "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한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때와 임하심과 세상 끝을 묻자, 미혹·전쟁·기근·지진은 "재난의 시작"이며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한다. 큰 환난과 번개 같은 임함, 구름을 타고 오심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심을 지나, 무화과나무의 연한 가지로 가까움을 알라 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시고, 노아 때처럼 깨어 있으라는 권면과 두 종의 다른 끝으로 달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전 → 감람산. 소품 — 큰 돌·번개·구름·나팔·무화과나무. 인용 — 다니엘(bdelygma).
2 첫 느낌·분위기	웅장함이 무너짐으로. "미혹을 주의하라" 후렴. 36절 "모름"에서 결이 뒤집힘.
3 시작과 끝	시작 — 무너질 건물(1-2). 끝 — 깨어 있지 못한 종(51).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제자 / 거짓 그리스도·노아·두 사람·두 종. 사상 = 끝까지 견딜·깨어 있음. planao·eklektos 병치.
5 장면 컷	컷 1 세 물음(1-3). 컷 2 재난의 시작(4-14). 컷 3 환난·번개(15-28). 컷 4 구름 탄 오심(29-31). 컷 5 무화과(32-35). 컷 6 모름·두 종(36-51).
6 의문·발견·정보	세 겹 물음. odin의 진통. 무화과 일상. 36절 "모름". 둘 중 하나.
7 동영상	무너질 돌 → 미혹·환난 → 구름 탄 오심 → 무화과 → 모름·깨어 있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 징조와 모름". 부제 — "징조를 다 말한 뒤 모름을 두고, 깨어 있음으로 달는 자리".
9 동영상 안건기·기도	감람산에서 무너질 성전을 마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무너지는 돌:** 제자들이 가리킨 큰 건물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가 놓인다. 웅장함과 무너짐이 한 물음을 연다.
2. **결 2 —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번개·구름·별의 큰 그림 다음에 무화과나무 연한 가지와 맷돌의 두 여인이 온다. 본문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번갈아 보인다.
3. **결 3 — 징조와 모름:** 모든 징조를 말한 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가 온다. 앞의 목록 끝에 모름이 놓이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가 나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5:13** (깨어 있으라 — 다음 장), **마 16:27** (인자가 영광으로 오심).
- 다른 권 — **단 7:13** (구름 탄 인자), **단 9:27** (멸망의 가증한 것), **사 13:10 / 율 2:31** (해·달·별), **창 6-7** (노아 때).
- 정경 흐름 — 24장의 "깨어 있으라"는 곧 25장의 열 처녀·달란트·양과 염소 비유로 풀려 나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성전의 큰 돌 앞에서 "남지 않으리라"를 듣는다.
- **멈춤 1:**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번개 같은 임함과 무화과나무 가지 사이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때를 모르는 자리에서 깨어 있음이 시작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모르는 그때를 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선포된다
- [x]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묻는다
- [x] 미혹·전쟁·지진은 재난의 시작이다
- [x] 인자의 임함이 번개·구름으로 그려진다
- [x] 무화과나무가 가까움의 표지가 된다
- [x]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가 놓인다
- [x] 끝은 깨어 있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4장은 그 호(arc)에서 천상 차원의 임함(parousia)이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다 — 마태의 좌표가 가장 멀리,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30절)까지 펼쳐진다. 23장 끝의 "황폐한 집"(23:38)이 24장 첫머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2절)로 이어져, 험릿 성전 건물 앞에서 종말 강화가 열린다. 다니엘의 "멸망의 가증한 것"(15절)과 구약 예언의 결을 인용하며, 마태식 '구약 성취'가 종말의 지평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강화의 도달점은 천상의 도래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다 —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36절)와 "깨어 있으라"(42절)로, 천상 차원의 시야가 다시 오늘의 깨어 있음으로 내려앉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너질 돌 하나(성전 건물)→종말의 징조→"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36절) / 때를 아는 앎→깨어 있는 마음("깨어 있으라", 42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징조에서 깨어 있음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천상의 도래(parousia)가 일상의 깨어 있음으로 내려앉는 성취다. 험릿 성전 앞 물음(1-3절) → 재난의 시작(odin, 4-14절) →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15-28절) → 인자의 임함과 택하신 자들을 모음(29-31절) → 무화과나무의 비유(32-35절) → "모른다"와 깨어 있음(36-51절). 징조를 다 말한 뒤 '모름'으로 돌려, 계산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좁혀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전쟁·기근·지진·번개 같은 임함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때를 알고 싶은 제자들의 물음과, 미혹받지 말라(planao)·끝까지 견디라는 마음의 권면이 움직인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모르는 그때를 두고 깨어 사는 통치다. "재난의 시작"이 odin(해산의 진통)인 것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을 향한 진통임을 수면 아래에서 본다. 표면은 무너지는 징조이지만, 아래는 그 무너짐 너머로 모으심(31절)과 깨어 있음을 향하는 마음이다. 천상 차원의 시야가 결국 오늘의 일상(먹고 마시고 장가가던 노아 때, 38절)을 깨어 사는 자리로 내려앉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에 오히려 — "깨어 있으라"는 부름이, 먼 종말이 아니라 내 오늘의 마음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때를 묻는 자리와 깨어 있으라는 권면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모르는 그때 앞에 깨어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온도(뜨거움/미지근함)를 재는 자(尺)로 보면, 24장의 부름은 계산하는 **앞이 아니라 깨어 있는 준비**로 향한다 — 천상의 도래를 향해 오늘을 깨어 사는 자리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깨어 있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4장의 "깨어 있으라"가, 25장에서는 세 비유로 풀린다 — 등잔의 기름(열 처녀), 말 긴 달란트, 좌우로 나뉘는 양과 염소. 깨어 있음의 추상이 준비·충성·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구체로 번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세 겹 물음(3절)에 답은 어떻게 짜이는가?

- 때·임하심·세상 끝이 한 번에 물어짐.
- 세 겹이 섞여 답해지는 짜임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큰 재난이 "재난의 시작"(8절)인가?

- odin(해산의 진통)이라는 어휘.
- 시작과 더 큰 것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번개 같은 임함"(27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그림과 "주검·독수리"(28)가 나란히.
- 두 그림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큰 그림 뒤에 왜 무화과나무 한 그루인가?(32절)

- 별과 구름 다음에 마당의 일상 관찰.
-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의 교차는 보류.

Q5. 징조 뒤에 왜 "모름"(36절)이 오는가?

-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 앎과 모름이 함께인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같은 자리의 둘은 왜 갈리는가?(40-41절)

- 발의 두 사람, 멧돌의 두 여인 — 하나는 데려감.
- 갈림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5장

MAT-025 · 복음서 · 헬라어

꺼져 가는 등잔과 땅에 묻힌 한 달란트, 그리고 좌우로 나뉘는 양과 염소. 깨어 있음이 셋의 비유로 풀리고, 끝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모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비유 속 무대 셋 — 혼인 잔치의 밤(1·6), 떠난 주인의 집·결산 자리(14·19), 인자의 영광의 보좌(31).
- 소품 = 등잔·기름·그릇(1-4), 달란트 다섯·둘·하나(15), 땅에 묻은 돈(18), 떡·물·옷·옥(35-36).
- 원어 무대어 — parthenos(처녀)·lampas(등)·elaion(기름)·nymphios(신랑).
- 양(probaton)·염소(eriphos)를 가르는 목자 풍습(32-33) — 배경.
- 달란트는 큰 단위의 돈(배경). "각각 그 재능대로"(15절) 말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세 비유가 다 "나눔"으로 닫힘 — 슬기/미련, 남김/묻음, 양/염소.
- "문이 닫혔다"(10)의 서늘함. 안과 밖이 한순간에 갈림.
- "깨어 있으라"(13)가 24장에서 이어져 25장으로 넘어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 작은 등잔으로 열림.
- 46절: "영벌에 / 의인들은 영생에" — 좌우의 나눔으로 닫힘.
- 한 무리(열 처녀)에서 모든 민족으로 폭이 넓어짐. "깨어 있으라"(13)가 다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열 처녀·신랑 / 주인·세 종 / 인자(임금)·양·염소(모든 민족).
- 상황 = 기다림과 정산(5·19·31).
- 사상 = 맡은 것의 결과 — "착하고 충성된 종"(21·23), "악하고 게으른 종"(26),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40·45).
- doulos(종) 21·23, elachistos(지극히 작은 자) 40·45가 거울처럼 놓임. 한 종의 까닭 = "두려움"(25).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3): 열 처녀, 기름, 닫힌 문, "깨어 있으라".
- 컷 2 (14-18): 달란트 말김, 장사 / 땅에 묻음.
- 컷 3 (19-30): 결산, "충성된 종" / "게으른 종", 바깥 어둠.
- 컷 4 (31-40): 보좌, 양과 염소 나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오른편).

- 컷 5 (41-46): 같은 말의 뒤집힘(원편), "영벌 / 영생".

6 — (1) 원어 카드

- parthenos(παρθένος) — 처녀. 1·7·11절.
- lampas(λαμπάς) — 등잔. 1·3·4·7·8절.
- elaion(ἔλαιον) — 기름. 3·4·8절.
- nymphios(νυμφίος) — 신랑. 1·5·6·10절.
- talanton(τάλαντον) — 달란트. 15~28절.
- doulos(δοῦλος) — 종. 14·19·21·23·26·30절.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있다. 13절(24장에서 이어짐).
- probaton(πρόβατον) / eriphos(ἔριφος) / elachistos(ἐλάχιστος) — 양 / 염소 / 지극히 작은 자. 32-33·40·45절.

6 — (2) 문학 구조

- 세 비유의 병렬 — 기다림 → 정산 → 나눔의 동형 반복.
- "착하고 충성된 종아"(21·23) 두 번 동일 반복(다섯·둘 받은 종).
- 섬김 목록(35-36 / 42-43)이 긍정·부정으로 두 번 거울 반복.
-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40·45) 좌우 거울.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혼인 잔치는 밤에 신랑을 맞아 함께 드는 풍습 — "밤중"(6)·"문이 닫힘"(10)의 배경.
- 달란트는 큰 액수의 돈 — "하나"도 적지 않음(배경).
- 목자가 양과 염소를 우리로 나눔(32) — 일상 풍습이 심판 그림으로 쓰임.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5:13 ↔ 마 24:42 (깨어 있으라)
- 마 25:21 ↔ 마 24:45-47 (충성된 종)
- 마 25:31-33 ↔ 겔 34:17 (양과 염소를 나눔)
- 마 25:35-36 ↔ 사 58:7 (주린 자에게 떡, 나그네를 영접)
- 마 25:29 ↔ 마 13:12 (있는 자는 받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다섯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고 다섯은 등만 가진다. 신랑이 더디 오자 다 졸며 자고, 밤중에 외침이 난다.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 가나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고,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깨어 있으라." 한 사람이 떠나며 종들에게 다섯·둘·한 달란트를 맡기고, 둘은 장사하여 곱절을 남기되 하나는 땅에 묻는다. 오랜 후 주인이 결산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바깥 어둠으로 내보낸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가른다. 오른쪽에게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쪽에게는 같은 말이 뒤집힌다. 그리고 "영벌 / 영생"의 두 갈래로 닫힌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꺼져 가는 등, 묻힌 달란트, 좌우의 나눔 — 지극히 작은 자에게"
- 초별 부제: "기다림의 세 비유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모이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혼인 풍습·달란트·목자의 양 염소 분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세 비유(처녀·달란트·양 염소)가 행위 구원 교리로 굳지 않도록 → 비유 구조와 어휘 위치만 기록.
- 9절 "나눠 주지 않음"이 윤리 진술로 가지 않도록 → 비유 내 대사 위치만 보존.
- 40·45절 "지극히 작은 자"의 결은 목상으로 이월 → elachistos 거울 반복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5장은 기다림의 세 비유가 나란히 놓여 좌우로 나누는 한 심판 자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모이는 자리이다.

한 문단: 본문은 등잔과 기름을 든 열 처녀로 열린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신랑과 함께 들고 문이 닫히며, "깨어 있으라"가 첫 비유를 닫는다. 이어 다섯·둘·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결산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갈린다. 마지막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한 문장이 좌우에 거울처럼 놓이며 "영벌 / 영생"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밤의 잔치 / 결산 자리 / 영광의 보좌. 소품 — 등잔·기름·달란트·떡·물·옷.
2 첫 느낌·분위기	세 비유가 다 "나눔"으로 닫힘. "문이 닫혔다"의 서늘함.
3 시작과 끝	시작 — 열 처녀의 등잔(1). 끝 — 모든 민족의 좌우 나눔(46).
4 등장인물·상황·사상	처녀·신랑 / 주인·세 종 / 인자·양·염소. 사상 = 말은 것의 결과. doulos·elachistos.
5 장면 컷	컷 1 열 처녀(1-13). 컷 2 달란트 맡김(14-18). 컷 3 결산(19-30). 컷 4 양(31-40). 컷 5 염소(41-46).
6 의문·발견·정보	나눠 주지 않음(9). 있는 자(29). 두려움(25). 같은 물음(37-44). 섬김 목록 두 번.
7 동영상	꺼져 가는 등 → 문힌 달란트 → 결산 → 양과 염소의 나눔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꺼져 가는 등, 문힌 달란트, 좌우의 나눔". 부제 — "기다림의 세 비유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모이는 자리".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밤의 등불과 결산 자리와 보좌 앞을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기름의 준비:** 같은 열 처녀, 같은 등잔인데 기름의 있고 없음이 안과 밖을 가른다. 작은 차이가 닫힌 문 앞에서 드러난다.
2. **결 2 — 맡김과 결산:** 다섯·둘·하나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지고, 끝에 곱절과 물음이 걸린다. 말은 양이 아니라 그 끝이 두 갈래를 만든다.
3. **결 3 — 지극히 작은 자:** 큰 보좌의 심판이 떡 한 조각, 물 한 잔, 옷 한 벌의 작은 일로 풀린다. 가장 큰 자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로 모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4:42-51** (깨어 있으라·충성된 종), **마 13:12** (있는 자는 받음).
- 다른 권 — **겔 34:17** (양과 염소를 나눔), **사 58:7** (주린 자에게 떡·나그네 영접).
- 정경 흐름 — 25장은 감람산 강화를 달고, 곧 26장의 향유 부음과 최후의 만찬으로 자리를 넘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밤중에 등을 든 채 졸고 있는 자리를 본다.
- **멈춤 1:** 닫힌 문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땅에 문힌 한 달란트와 "두려워하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장 큰 자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로 모인다*는 결을 손에 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기름을 준비한 다섯과 그렇지 못한 다섯이 갈린다
- [x] 문이 닫힌다
- [x] 세 종이 다섯·둘·한 달란트를 맡는다
- [x] 한 종은 땅에 묻는다
- [x] 인자가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가르다
- [x]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두 번 놓인다
- [x] 끝은 영벌과 영생의 두 갈래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5장은 그 호(arc)에서 **감람산 강화의 도착점, '천국'이 세 비유로 풀려 한 심판 자리로 모이는 곳**이다. 24장의 "깨어 있으라"가 여기서 "천국은 마치..."(1절)로 시작하는 세 비유 —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 로 구체화된다. 5대 대명령 척추(통치·축복·사랑·제자·거룩)에서 보면, 25장은 22장의 '사랑(Love)'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자리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40절)은, 가장 큰 계명의 둘째("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22:39)가 보좌 앞에서 심판의 척도가 됨을 보인다. 마태식 성취가 천상의 보좌(영광의 보좌, 31절)에서 가장 작은 자 곁으로 내려앉는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깨어 있음(추상)→세 비유(준비·충성·행함)→"지극히 작은 자에게"(40절) / 막연한 기다림→한 사람을 향한 행함 / 영광의 보좌→굶주린 자·혈벗은 자 곁.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기다림에서 행함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천상의 심판 기준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으로 도착하는 성취다. 열 처녀의 기름(1-13절) → 달란트의 결산(14-30절) → 양과 염소의 갈림(31-46절) →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의 거울 문장. 세 비유가 점점 좁혀져, 막연한 깨어 있음이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 행함으로 모이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등불·달란트·양과 염소의 갈림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준비된 자와 준비 없는 자, 행하고도 모른 자(37절)의 마음이 드러난다 — "어느 때에 우리가 주리신 것을 보고..." 자기가 한 줄도 몰랐던 행함.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가장 큰 분이 가장 작은 자(elachistos)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통치다**. "내게 한 것이니라"(40절)는 빙산의 수면 아래, 보좌에 앉은 인자가 굶주린 자·나그네·갈진 자 곁에 자기를 두는 자리를 본다. 표면은 좌우의 심판이지만, 아래는 작은 자 곁의 작은 행함이 곧 그분께 한 일로 받아지는 사랑의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가장 작은 자 곁의 작은 행함이 그분께 한 일로 받아진다는데 — 그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준비된 자의 자리와 작은 자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의 자리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사랑의 깊이를 재는 자(尺)로 보면, 25장의 부름은 자기를 넘어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닿는 사랑으로 향한다 —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 채 건넨 작은 일조차 받으시는 그 곁으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지극히 작은 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5장에서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그분이, 26장에서는 친히 잔을 드신다 —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던 사랑이, 향유의 헌신과 새 언약의 떡·잔, 그리고 겿세마네의 "아버지의 원대로"로 자기를 내어 주는 자리로 번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슬기로운 자들은 왜 기름을 나눠 주지 않는가?(9절)

- "다 부족할까 하니 파는 데 가서 사라."
- 나눌 수 없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있는 자에게 더 주어지는가?(29절)

- "있는 자는 풍족하게,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 이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한 종의 까닭이 "두려움"(25절)인 것은 무엇을 여는가?

- 다른 둘은 "바로 가서 장사", 한 종은 "두려워하여 묻음".
- 두려움과 묻음의 결은 보류.

Q4. 양도 염소도 왜 똑같이 "언제"라 되묻는가?(37·44절)

- 양쪽 다 자기가 한 일을 몰랐다고 함.
- 같은 물음이 좌우에서 나오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이 왜 한 분에게 돌아가는가?(40·45절)

-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 그 돌아감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세 비유는 왜 모두 "나눔"으로 닫히는가?

- 슬기/미련, 남김/묻음, 양/염소.
- 같은 골격의 반복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6장

MAT-026 · 복음서 · 헬라어

깨뜨린 옥합과 떼어 준 떡, 그리고 잠든 동산의 기도. 한 밤 안에서 향유의 헌신과 은 삼십과 닭우는 소리가 차례로 놓인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줄줄이 옮겨감 — 베다니의 집(6) → 성내 유월절 자리(18) → 갯세마네(36) → 가야바의 집(57) → 바깥뜰(69).
- 소품 = 옥합·향유(7), 떡과 잔(26-27), 검과 몽치(47·51), 닭(74).
- 원어 무대어 — pascha(유월절)·myron(향유)·alabastron(옥합)·diatheke(언약)·poterion(잔).
- 은 삼십(15),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16). 속 13:7 인용(31).
- 시간 표지 — "저물 때에"(20), "닭 울기 전"(34), "때가 가까이"(45).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향유의 따뜻함에서 시작해 점점 어두워짐 — 은 삼십·동산·닭 울음으로 가라앉음.
- 시간이 한 밤으로 모임 — "그 밤에"가 깔림.
- 배신(14-16)과 부인(69-75)이 양 끝에 — 두 제자의 다른 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 미리 아심으로 열림.
- 75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 한 제자의 무너짐으로 닫힘.
- 39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경첩 — 말김의 기도가 한가운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열두 제자 / 향유 부은 여자(7) / 유다(14·47) / 베드로·야고보·요한(37) / 가야바(57) / 비자·결의 사람들(69-73).
- 상황 = "때"가 가까워 옴(18·45).
- 사상 = "잔"과 "말김" — 만찬의 잔(27-28)과 기도의 잔(39·42).
- poterion(잔)이 식탁·동산 두 자리. arneomai(부인) 3회(70·72·74). 베드로의 장담(33-35)과 부인(69-75)의 거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6): 모의, 향유 부음, 은 삼십 — 헌신과 배신 나란히.
- 컷 2 (17-30): 유월절, "하나가 팔리라", 떡과 잔, 감람산으로.

- 컷 3 (31-35): "목자를 치리니", 베드로의 장담, "세 번 부인".
- 컷 4 (36-46): 갯세마네, 세 번의 기도, 잠든 제자.
- 컷 5 (47-56): 입맞춤, "칼을 칼집에", 체포, 도망.
- 컷 6 (57-75): 가야바 앞 심문, 세 번 부인, 닭 울음, 통곡.

6 – (1) 원어 카드

- pascha(πάσχα) — 유월절. 2·17·18·19절.
- myron(μύρον) — 향유. 7·12절.
- alabastron(ἀλάβαστρον) — 옥합. 7절.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28절 "언약의 피".
- poterion(ποτήριον) — 잔. 27절(만찬)·39·42절(기도).
- gregoreo(γρηγορέω) — 깨어 있다. 38·40·41절 "깨어 있으라".
- arneomai(ἀρνέομαι) — 부인하다. 70·72·74절(세 번).
- alektor(ἀλέκτωρ) — 닭. 34·74·75절.

6 – (2) 문학 구조

- 헌신(향유)과 배신(은 삼십)을 나란히 배치(6-16).
- "잔" 모티프가 식탁(27)과 동산(39·42)에 거듭.
- 세 번의 기도(39·42·44)와 세 번의 부인(70·72·74)이 짝.
- 예고(34)와 성취(74-75)의 맞물림 — 닭 울음.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유월절 식탁의 떡과 잔(26-28) — 출애굽 절기의 배경 위에 놓임.
- "언약의 피"(28)는 출 24:8의 표현과 같은 결 — 배경.
- 갯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지명), 감람산 자락의 동산 — 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6:28 ↔ 출 24:8 (언약의 피)
- 마 26:31 ↔ 속 13:7 (목자를 치리니)
- 마 26:39 ↔ 마 20:22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 마 26:64 ↔ 단 7:13 / 시 110:1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 마 26:34 ↔ 마 26:74-75 (닭 울기 전 — 예고와 성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유월절 이틀 전, 대제사장들이 모의한다. 베다니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 기념하리라" 하신다. 유다가 은 삼십에 넘길 기회를 찾는다. 저물 때에 함께 앉아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떡을 떼어 "내 몸", 잔을 주며 "언약의 피"라 하신다. 감람산으로 나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 시자 베드로가 장담하나,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다. 갯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세 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든다. 유다가 입을 맞추고 무리가 잡으

니, "칼을 칼집에" 하시고 제자들은 도망한다. 가야바 앞에서 심문받으시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다. 닭이 울고,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며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깨뜨린 옥합, 떼어 준 떡, 잠든 동산 — 한 밤의 헌신과 부인"
- 초벌 부제: "한 밤 안에 헌신과 배신과 부인이 차례로 놓이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유월절 식탁·언약의 피·겻세마네 지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만찬의 떡·잔(26-28)이 성례 교리로 굳지 않도록 → diatheke·poterion 어휘 위치만 기록.
- 겻세마네 기도(39-44)가 신학 진술로 가지 않도록 → 세 번 기도의 어휘 변화만 보존.
- 수난 장면(47-56·57-68)은 절제하여 사건 사실만 기록, 선정적 묘사 없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6장은 한 밤 안에서 향유의 헌신과 은 삼십의 배신과 닭 우는 소리의 부인이 차례로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베다니에서 깨뜨린 옥합의 향유로 시작해, 곧 은 삼십을 받는 유다의 자리로 옮겨간다.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어 "내 몸", 잔을 주며 "언약의 피"라 하시고, 겻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세 번 기도하신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 유다의 입맞춤으로 체포되시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뜰에서 세 번 부인한다. 닭이 울고, 미리 하신 말씀이 기억나며 한 제자의 통곡으로 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베다니 → 다락방 → 겐세마네 → 가야바의 뜰. 소품 — 옥합·향유·떡·잔·검·닭.
2 첫 느낌·분위기	향유의 따뜻함이 점점 어두워짐. 한 밤으로 모임. 배신과 부인이 양 끝.
3 시작과 끝	시작 — 미리 아심(1-2). 끝 — 베드로의 통곡(75).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열둘 / 향유 부은 여자 / 유다 / 베드로. 사상 = 잔과 맡김. poterion·arneomai.
5 장면 컷	컷 1 향유·은 삼십(1-16). 컷 2 만찬(17-30). 컷 3 예고(31-35). 컷 4 겐세마네(36-46). 컷 5 체포(47-56). 컷 6 부인(57-75).
6 의문·발견·정보	"기념하리라"(13). 기록과 책임(24). 옮겨가는 기도(39-42). 멀찍이(58). 닭 울음(74).
7 동영상	깨뜨린 옥합 → 떼어 준 떡 → 잠든 동산 → 입맞춤 → 닭 울음·통곡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깨뜨린 옥합, 떼어 준 떡, 잠든 동산". 부제 — "한 밤 안에 헌신과 배신과 부인이 차례로 놓이는 자리".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식탁과 동산과 뜰을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헌신과 배신의 병치:** 깨뜨린 옥합(6-13)과 은 삼십(14-16)이 바로 잇닿아 놓인다. 가장 값진 드림과 가장 싼 값이 한 자리에 온다.
- 결 2 — 한 잔의 두 자리:** 식탁의 "언약의 피" 잔(27-28)과 동산의 "이 잔을 지나가게" 잔(39-42)이 같은 poterion으로 놓인다. 나눠 주는 잔과 받아 드는 잔이 한 단어다.
- 결 3 — 예고와 성취:** "닭 울기 전에 세 번"(34)이 그대로 일어나(74-75) 통곡으로 닫힌다. 미리 한 말과 일어난 일이 맞물린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0:22**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 16:21-23** (수난 예고와 베드로).
- 다른 권 — **출 24:8** (언약의 피), **숙 13:7** (목자를 치리니), **단 7:13 / 시 110:1** (권능의 우편).
- 정경 흐름 — 26장은 곧 27장의 빌라도 재판과 십자가로 이어지며, 한 밤에서 한 낮으로 자리를 넘긴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깨뜨려 부어지는 향유의 냄새 가운데 선다.
- **멈춤 1:** 떡과 잔이 건네지는 식탁에서 멈춘다.
- **멈춤 2:**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동산에서 멈춘다.
- **멈춤 3:** 닭 우는 소리와 통곡의 뜰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헌신과 부인이 같은 밤에 함께 있다*는 결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멀찍이 따라가 앉은 뜰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
- [x] 유다가 은 삼십을 받는다
- [x] 떡과 잔이 "내 몸·언약의 피"로 건네진다
- [x] 겿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신다
- [x] 입맞춤으로 체포되신다
- [x]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
- [x] 끝은 닭 울음과 통곡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둬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6장은 그 호(arc)에서 새 언약(diatheke)이 잔으로 세워지는 자리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8절)는, 출 24장 시내산 언약의 피를 다시 여는 마태식 성취다 — 옛 언약 곁에 새 언약이 한 잔으로 선다. 유월절(pascha) 식탁에서 떡과 잔이 세워지는 것은, 구약의 구속 사건(유월절·시내산)이 한 사람의 몸과 피로 성취되는 곳이다. 겿세마네의 "이 잔"(39절)은 25장에서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던 사랑이 자기를 내어 주는 데까지 이르는 자리이며, 27장 십자가의 "잔"을 미리 받는 동산이다. 마태복음의 수난은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새 언약이 세워지는 천국 복음의 절정으로 그려진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깨뜨린 향유(헌신)→떼어 준 떡과 새 언약의 잔(28절)→겿세마네의 "아버지의 원대로"(39절) / 흠어지는 밤(배신·잠·부인)→자기를 내어 주는 한 분.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헌신에서 내어 줌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경로 보면 이는 새 언약이 한 잔으로 세워지는 성취다. 베다니의 옥합(1-13절) → 은 삼십의 모의(14-16절) → 유월절 식탁의 떡과 잔(17-30절) → 겿세마네의 세 기도(36-46절) → 입맞춤의 체포(47-56절) → 뜰의 세 부인(57-75절). 한 밤 안에서 헌신과 배신이 나란히 흐르며, 자기를 내어 주는 잔 앞으로 좁혀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만찬·체포·부인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떠나가는 자들의 무너짐이 드러난다 — 팔아넘기는 유다, 잠든 세 제자, 멀찍이 따라가(58절)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통곡(75절).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흠어지는 밤 한복판에서 스스로 잔을 받는 순종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38절)의 떨림이 "아버지의 원대로"(39절)로 풀리는 것은, 빙산의 수면 아래 새 언약의 피가 자기를 내어 주는 순종에서 흐르는 자리를 본다. 표면은 배신과 체포이지만, 아래는 깨뜨린 향유처럼 자기를 깨뜨려 내어 주는 사랑의 통치다. (수난의 무게는 본문이 보고하는 만큼만 둔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떨림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원대로"라 받으신 그 잔 앞에서 — 자기 원을 내려놓는 받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옥함을 깨뜨린 여인의 자리와 멀찍이 따라가 부인한 베드로의 자리, 그 사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아버지의 원대로"의 잔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사랑의 깊이를 재는 자(尺)로 보면, 26장의 부름은 **자기를 깨뜨려 내어 주는 헌신**으로 향한다 —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처럼, 떡과 잔으로 자기를 내어 주신 그 결 결으로.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잔.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6장 동산에서 받기로 한 그 잔이, 27장에서는 갈라진 휘장으로 — 동산의 "아버지의 원대로"가 골고다의 어둠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지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으로 성취된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한 작은 일이 "기념하리라"(13절)인가?

- 향유 부음을 "장례를 위한 것"이라 하시며 온 천하에 기념되리라 하심.
- 작은 일과 큰 기억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기록된 길과 한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함께인가?(24절)

-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 두 결의 병치는 묵상으로 이월.

Q3. 세 번의 기도(39·42·44)는 왜 말이 옮겨가는가?

- "지나가게 하옵소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로.
- 기도의 옮겨감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막을 능력과 이루심은 어떻게 한 자리인가?(53-54절)

- "열두 군단 천사"와 "어찌 성경을 이루리요".
- 능력과 이루심의 결은 보류.

Q5. "멀찍이 따라가 앓음"(58절)은 무엇을 여는가?

- 결말을 보려고 앓은 그 자리가 곧 부인의 자리.
- 멀찍이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6. 예고와 닭 울음(34·74-75)의 맞물림은 무엇인가?

- 미리 하신 말과 일어난 일이 맞물림.

- 그 맞물림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7장

MAT-027 · 복음서 · 헬라어

손 씻는 빌라도와 두 갈래의 외침, 갈라진 휘장. 한 낮의 어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가 한 번 울린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 빌라도의 재판 자리(2), 골고다(33), 새 무덤(60).
- 소품 = 손 씻는 물(24), 홍포·가시관·갈대(28-29), 제비 뽑은 옷(35), 신 포도주(48), 찢어진 휘장(51), 큰 돌·인봉(60·66).
- 원어 — hegemon(총독)·golgotha(해골)·skotos(어둠)·katapetasma(휘장)·kentyrion(백부장).
- 아람어 음역 — "Eli Eli lama sabachthani"(46절), 본문이 뜻을 풀어 줌(시 22:1의 곁).
- 시간 표지 — "열두 시부터 세 시까지"(45), "저물 때"(57).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 낮의 어둠(45)이 분위기를 통째로 바꿈.
- 두 갈래의 외침 — 무리의 "못 박으소서"와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 "유대인의 왕" 호칭이 조롱과 함께 거듭(11·29·37·42).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 넘겨짐으로 열림.
- 66절: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 인봉된 무덤으로 닫힘.
- 50-51절이 경첩 — 영혼이 떠나심과 휘장이 찢어짐이 한 자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빌라도·그의 아내(19) / 무리·대제사장 / 바라바 / 구레네 시몬(32) / 강도 둘(38) / 백부장(54) / 여자들(55-56) / 아리마대 요셉(57).
- 상황 = 넘겨짐과 갈라짐(17·24).
- 사상 = "왕"과 "버림" — 패의 글(37), 조롱(42), 부르짖음(46).
- 아람어 음역(46) 한 번 울림. "왕" 호칭 거듭. 백부장의 다른 고백(5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빌라도에게 넘겨짐, 유다의 은 삼십, 토기장이의 발.
- 컷 2 (11-26): 심문, 바라바냐 예수냐, 손 씻음, 넘겨줌.
- 컷 3 (27-31): 군병의 조롱, 홍포·가시관, "유대인의 왕이여".

- 컷 4 (32-44): 구레네 시몬, 골고다, 옷, 패, 두 강도, 조롱.
- 컷 5 (45-56): 어둠, 부르짖음, 떠나심, 찢어진 휘장, 백부장의 고백.
- 컷 6 (57-66):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 큰 돌, 인봉.

6 – (1) 원어 카드

- hegemon(ἡγεμών) — 총독. 2·11·14·15·27절.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32·40·42절.
- golgotha(Γολγοθᾶ) — 해골의 곳. 33절(아람어 유래).
- skotos(σκότος) — 어둠. 45절 "온 땅에 어둠".
- katapetasma(καταπέτασμα) — 휘장. 51절 "성소 휘장이 찢어짐".
- kenturion(κεντυρίων) — 백부장. 54절(고백자).
- 아람어 "Eli Eli lama sabachthani" — 46절(시 22:1의 결, 본문이 음역+풀이).
- taphos(τάφος) — 무덤. 60·61·64절 "새 무덤".

6 – (2) 문학 구조

- 재판(1-26) → 처형의 길(27-44) → 어둠·떠나심(45-56) → 장사(57-66)의 하강.
- "유대인의 왕" 호칭의 거듭(11·29·37·42).
- 구약의 겹침 — 은 삼십·토기장이(숙 11·렘), 제비 뽑은 옷(시 22:18), 쓸개·신 포도주(시 69:21), 부르짖음(시 22:1).
- 떠나심과 함께 겹치는 표적들(51-53) — 휘장·지진·바위·무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총독은 로마의 재판권을 가진 자 — "넘겨줌"(2)의 배경.
- "성소 휘장"(51)은 성전 안의 가림막 —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을 본문이 보고.
- 아람어 음역(46)은 시 22:1의 첫 줄과 같은 결 — 본문이 뜻을 직접 풀어 줌(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7:9-10 ↔ 숙 11:12-13 / 렘 32 (은 삼십·토기장이의 발)
- 마 27:35 ↔ 시 22:18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음)
- 마 27:34·48 ↔ 시 69:21 (쓸개·초)
- 마 27:46 ↔ 시 22:1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마 27:51 ↔ 출 26:31-33 (성소 휘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새벽에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긴다. 뉘우친 유다가 은 삼십을 던지고 물러가며,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산다.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묻고, 아내가 꿈 이야기를 전하나 무리는 "못 박으소서" 한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넘긴다. 군병들이 홍포·가시관으로 조롱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에 이른다. 옷을 제비 뽑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를 둔다. 낮 열두 시부터 세 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세 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성소 휘장이 위

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한다.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다. 저물 때 아리마 대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 새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막으며, 이튿날 경비병과 함께 인봉하는 것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 씻은 빌라도, 한 낮의 어둠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초벌 부제: "한 낮의 어둠 가운데 한 번 울린 부르짖음과 갈라진 휘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헬라어 7 + 아람어 음역 1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총독·성소 휘장·구약 겹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수난 묘사 절제·비선정적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처형 장면(27-44)이 선정적 묘사로 가지 않도록 → 소품과 사건 사실만 절제하여 기록.
- 46절 부르짖음이 신학 진술로 굳지 않도록 → 아람어 음역과 시 22:1의 절만 보존.
- 51-53절의 겹친 표적은 한 자리에 놓인 사실로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7장은 손 씻는 재판 자리에서 시작해 한 낮의 어둠 가운데 한 번 울린 부르짖음과 갈라진 휘장으로 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새벽에 넘겨짐으로 열린다.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묻고 손을 씻어 책임을 옮기며, 무리는 한 갈래로 외친다. 조롱의 흥포와 가시관, 골고다의 패와 제비 뽑은 옷을 지나, 낮 열두 시부터 세 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한 번 울리고,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

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조롱 곁에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저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막아 인봉하는 것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재판 자리 → 골고다 → 새 무덤. 소품 — 손 씻는 물·가시관·옷·신 포도주·찢어진 휘장·큰 돌.
2 첫 느낌·분위기	한 낮의 어둠. 두 갈래의 외침. "유대인의 왕" 호칭의 거듭.
3 시작과 끝	시작 — 넘겨짐(1-2). 끝 — 인봉된 무덤(66).
4 등장인물·상황·사상	빌라도·아내 / 바라바 / 구레네 시몬 / 백부장 / 여자들 / 아리마대 요셉. 사상 = 왕과 버림.
5 장면 컷	컷 1 넘겨짐(1-10). 컷 2 심문(11-26). 컷 3 조롱(27-31). 컷 4 골고다(32-44). 컷 5 어둠·떠나심(45-56). 컷 6 장사(57-66).
6 의문·발견·정보	아내의 꿈(19). 손 씻음(24). 시 22:1의 결(46). 겹친 표적(51-53). 끝까지 본 여자들(55-56).
7 동영상	손 씻는 재판 → 조롱의 길 → 한 낮의 어둠·부르짖음 → 갈라진 휘장 → 인봉된 무덤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손 씻은 빌라도, 한 낮의 어둠". 부제 — "한 낮의 어둠 가운데 한 번 울린 부르짖음과 갈라진 휘장".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재판 자리와 골고다와 무덤 앞을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손 씻음과 외침:** 빌라도가 손을 씻어 책임을 옮기고(24), 무리는 한 갈래로 외친다. 재판 자리에서 책임이 여러 손으로 갈린다.
- 결 2 — 한 낮의 어둠:** 정오의 빛이 세 시까지 어둠으로 덮인다(45).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둠이 무대를 바꾼다.
- 결 3 — 갈라진 휘장과 두 외침:** 떠나심과 함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51), 조롱 곁에서 백부장의 다른 고백이 나온다. 닫힘의 자리에서 갈라짐과 고백이 함께 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26:63-64** (대제사장 앞의 답), **마 16:21** (수난 예고).
- 다른 권 — **시 22:1-18** (버림·제비 뽑은 옷), **시 69:21** (쓸개·초), **숙 11:12-13** (은 삼십), **출 26:31-33** (성소 휘장).
- 정경 흐름 — 27장의 인봉된 무덤은 곧 28장의 빈 무덤으로 이어지며, 닫힘에서 열림으로 자리를 넘긴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손 씻는 물이 담긴 재판 자리를 본다.
- **멈춤 1:** "바라바냐 예수냐"는 선택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낮을 덮은 어둠 가운데 멈춘다.
- **멈춤 3:** 한 번 울린 부르짖음과 갈라진 휘장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달힘의 자리에 갈라짐과 고백이 함께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멀리서 끝까지 바라보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
- [x] 무리가 한 갈래로 외친다
- [x]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놓인다
- [x] 한 낮에 어둠이 임한다
- [x]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울린다
- [x]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 [x] 끝은 인봉된 무덤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7장은 그 호(arc)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가 가장 짙게 겹치는 자리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46절)는 시편 22편 첫 절의 부르짖음이며, 제비 뽑아 옷을 나눔(35절)·은 삼십·머리 흔드는 조롱이 시편과 선지서의 결을 잇는다 — 마태식 '구약 성취'의 밀도가 절정에 이른다. 26장 동산에서 받기로 한 잔이 여기서 십자가로 성취되고,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katapetasma)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51절). 이 갈라짐은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가로막힘이 끝나는 천상 차원의 사건으로 마태가 그린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54절)는, 28장 "모든 민족"을 향한 보냄을 미리 비추는 첫 이방의 고백이다. (수난의 무게는 본문이 보고하는 만큼만 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손 씻는 재판(책임 회피)→골고다의 어둠과 한 번의 부르짖음(46절)→갈라진 휘장(51절) / 가로막힘→열림 / 조롱→이방인의 고백("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가로막힘에서 열림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구약 예언이 가장 짙게 성취되는 자리다. 빌라도의 손 씻음(11-26절) → 조롱의 홍포와 가시관(27-31절) → 골고다와 제비 뽑은 옷(32-44절) → 낮의 어둠과 부르짖음(45-50절) → 찢어진 휘장과 백부장의 고백(51-54절) → 새 무덤의 인봉(57-66절). 사람의 책임 회피에서 시작해, 가로막던 휘장이 갈라지고 한 이방의 눈이 열리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재판·십자가·어둠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결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책임을 미루고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55-56절)과, 정작 알아본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드러난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의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버림받음의 자리에서 가로막힘이 열리는 통치**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부르짖음과 바로 그때 찢어진 휘장이 한 자리에 놓이는 것은, 빙산의 수면 아래, 성소를 가리던 천이 갈라져 가로막힘이 끝나는 자리를 본다. 표면

은 한 처형이지만, 아래는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는 사건이다 — 본문이 보고하는 그 한 컷의 무게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조롱의 한복판에서 멀리서 바라보던 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알아본 것처럼 — 그 갈라진 휘장 앞에서 알아보는 눈이 내 안에서도 열리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조롱하는 무리의 자리와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의 자리, 그 사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갈라진 휘장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마태복음의 온도(뜨거움/미지근함)를 재는 자(尺)로 보면, 27장의 부름은 **조롱의 자리에서도 알아보는 눈으로 향한다** — 가로막힘이 끝난 그 자리를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곳으로. (가르침·단정 없이,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갈라진 휘장.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27장 끝 큰 돌로 막아 인봉한 새 무덤이, 28장에서는 굴러진 돌로 — 가로막힘이 열린 그 자리가 빈 무덤의 "살아나셨느니라"로 이어져, 갈라진 휘장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보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로 번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재판 한가운데 왜 아내의 꿈(19절)이 들어오는가?

- "그 무죄한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 꿈의 자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손 씻음(24절)은 무엇을 옮기는가?

-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 책임이 옮겨지는 결은 묵상으로 이월.

Q3.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절)는 무엇을 여는가?

- 시 22:1의 첫 줄과 같은 결, 그 시편은 뒤에 찬송으로.
- 첫 줄만 울리는 자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떠나심과 함께 왜 표적이 겹치는가?(51-53절)

- 휘장·지진·바위·무덤이 한 자리에.
- 겹침의 결은 보류.

Q5. 조롱 곁에서 왜 다른 고백(54절)이 나오는가?

- 지키던 백부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 같은 자리의 두 외침은 묵상에서 다시.

Q6. 멀리서 끝까지 본 여자들(55-56절)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끝까지 바라봄.
- 그 증인의 자리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8장

MAT-028 · 복음서 · 헬라어

굴러진 돌과 빈자리,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서 산으로, 두려움에서 보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마태복음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돌 — 무덤 앞(1)과 갈릴리의 산(16).
- 소품 = 굴러진 돌(2), 빈자리 "누우셨던 곳"(6), 천사의 흰 옷(3), 물(세례)·모든 민족(19).
- 원어 — egeiro(살아나심)·angelos(천사)·mnemeion(무덤)·phobos(두려움)·chara(기쁨).
- 다른 소문 = 경비병의 보고와 돈,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11-15).
- 명령어 — matheteuo(제자 삼다)·baptizo(세례)·exousia(권세)·synteleia(세상 끝날, 24:3과 같은 단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 장의 어둠 다음에 새벽이 환하게 열림 — 무거움 다음의 밝음.
- "두려움과 큰 기쁨"(8)이 한 문장에 함께.
- "가라"가 반복(7·10·19) — 보냄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 빈 무덤을 보러 감으로 열림.
-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함께 계심으로 닫힘.
-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가 경첩 — 빈자리의 까닭.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막달라 마리아·다른 마리아(1) / 천사(2) / 경비병(4·11) / 예수(9·16) / 열한 제자(16) / 대제사장·장로(12).
- 상황 = "무서워 말라"와 "가라"(5·10).
- 사상 = 권세 → 보냄 → 함께(18·19·20).
- 중심 동사 "제자로 삼으라"(matheteuo)를 "가서·세례·가르쳐"가 둘러쌌. "경배와 의심"의 병치(17).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새벽, 두 여자, 지진, 천사가 돌을 굴림, 경비병이 죽은 자같이.
- 컷 2 (5-8): "살아나셨느니라", 빈자리, "가서 이르라", 두려움과 큰 기쁨.
- 컷 3 (9-10): 길의 만남, 발을 붙잡고 경배, "가서 내 형제들에게".

- 컷 4 (11-15): 경비병의 보고, 돈, "도둑질" 소문.
- 컷 5 (16-20): 갈릴리의 산, 경배와 의심,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함께 있으리라".

6 – (1) 원어 카드

- egeiro(ἐγείρω) – 살아나다·일으키다. 6·7절.
- angelos(ἄγγελος) – 천사. 2·5절.
- mnemeion(μνημεῖον) – 무덤. 1·8절.
- phobos(φόβος) / chara(χαρά) – 두려움 / 기쁨. 8절(나란히).
- matheteuo(μαθητεύω) – 제자로 삼다. 19절(중심 동사).
- baptizo(βαπτίζω) – 세례를 베풀다. 19절.
- exousia(ἐξουσία) – 권세. 18절 "모든 권세".
- syntelesia(συντέλεια) – 세상 끝날. 20절(24:3과 같은 단어).

6 – (2) 문학 구조

- 무덤(1-15) → 산(16-20)의 두 묶음.
- "가라"의 반복(7·10·19) – 보냄의 결.
- 빈 무덤을 둔 두 이야기의 병치 – "살아나셨다"(6)와 "도둑맞았다"(13).
- 수미 구조 – 20절 "함께"가 1:23 "임마누엘"과 책 전체를 감쌌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 후 첫날"(1)은 한 주의 첫날 새벽 – 시간 배경.
- 경비병·인봉(27:66)에 이어 28장의 보고가 이어짐 – 앞 장과의 연결.
- "세상 끝날"(syntelesia, 20)은 24:3 제자들의 물음에 쓰인 같은 단어 – 어휘 연결.

6 – (4) 교차 참조 노트

- 마 28:20 ↔ 마 1:23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 계심)
- 마 28:7 ↔ 마 26:32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 마 28:18 ↔ 단 7:14 (권세를 받음)
- 마 28:19 ↔ 마 24:14 (모든 민족에게)
- 마 28:20 ↔ 마 24:3 (syntelesia·세상 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식 후 첫날 새벽,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간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 그 위에 앉으니,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희며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된다. 천사가 "무서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빨리 가서 이르라" 한다. 두 여자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신다. 한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자 돈을 받고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는 소문이 퍼진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의 산에 이르러 경배하되 의심하는 이도 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달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굴러진 돌, 빈자리 — 세상 끝날까지 함께"
- 초벌 부제: "빈 무덤에서 산으로, 두려움에서 보냄으로, 함께 계심으로 달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 후 첫날·수미 구조·synteleia 연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부활 보고(5-7)가 교리 진술로 굳지 않도록 → egeiro 어휘와 빈자리 사실만 기록.
- 19-20절의 명령을 선교 강령으로 풀지 않도록 → 동사 구조(matheteuo 중심)만 관찰로 보존.
- 20절 "함께"와 1:23의 수미 구조는 위치 연결만 기록,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마태복음 28장은 굴러진 돌과 빈자리에서 시작해 무덤에서 산으로, 두려움에서 보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간 두 여자로 열린다. 천사가 돌을 굴러 빈자리를 보이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한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가서 갈릴리로" 보냄받는다. 빈 무덤을 둔 다른 소문이 곁에 갈라지는 가운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의 산에서 경배하되 의심도 있다. 끝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한 줄로 한 권을 매듭짓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덤 앞 → 갈릴리의 산. 소품 — 굴러진 돌·빈자리·천사의 흰 옷·물(세례).
2 첫 느낌·분위기	어둠 다음의 새벽. "두려움과 큰 기쁨". "가라"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무덤을 보러 감(1). 끝 — "함께 있으리라"(20).
4 등장인물·상황·사상	두 마리아 / 천사 / 경비병 / 예수 / 열한 제자. 사상 = 권세 → 보냄 → 함께.
5 장면 컷	컷 1 천사·지진(1-4). 컷 2 빈자리(5-8). 컷 3 길의 만남(9-10). 컷 4 소문(11-15). 컷 5 산의 명령(16-20).
6 의문·발견·정보	돌의 까닭(6). 두려움·기쁨(8). 두 소문(6·13). 경배와 의심(17). 1:23과의 수미(20).
7 동영상	굴러진 돌 → 빈자리 → 길의 만남 → 갈라진 소문 → 산의 보냄·"함께"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굴러진 돌, 빈자리 — 세상 끝날까지 함께". 부제 — "빈 무덤에서 산으로, 두려움에서 보냄으로, 함께 계심으로 닫는 자리".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새벽 무덤과 길과 갈릴리의 산을 걷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빈자리를 보이는 돌:** 천사는 예수를 나오게 하려고가 아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려고 돌을 굴린다(6). 비어 있음 자체가 첫 표지가 된다.
2. **결 2 — 두려움과 기쁨의 한 걸음:** 두 여자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동시에 달린다(8). 두 결이 한 걸음 안에 함께 놓인다.
3. **결 3 — 보냄과 함께:** "가서 모든 민족을"(19)과 "끝날까지 함께"(20)가 한 자리에 놓인다. 멀리 보내는 말과 곁에 있겠다는 말이 함께 닫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마 1:23** (임마누엘 — 책을 감싸는 수미), **마 26:32** (갈릴리로 먼저), **마 24:3·14** (세상 끝·모든 민족).
- 다른 권 — **단 7:14** (권세를 받음).
- 정경 흐름 — 28장은 마태복음을 닫고, 복음서의 "함께 계심"을 매듭지으며 한 권의 관찰 여정을 마무리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새벽 무덤 앞, 굴러진 돌과 빈자리를 들여다본다.
- **멈춤 1:**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인 걸음에서 멈춘다.
- **멈춤 3:** 경배와 의심이 같이 선 산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보냄과 함께 계심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라는 약속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두 여자가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간다
- [x] 천사가 돌을 굴러 빈자리를 보인다
- [x]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가 선포된다
- [x]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달린다
- [x] 빈 무덤을 둔 다른 소문이 갈린다
- [x] 산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다
- [x] 끝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마태복음의 운동은 "구약의 압도적 성취에서 하늘 나라(천국)의 천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복음이다. 4복음서가 한 그리스도를 네 좌표에서 비추는데, 마태는 천국을 거듭 부르며 지상 국가를 넘어 천상 차원으로 비춘다. 28장은 그 호(arc)의 도착점이자 둘째 기둥, 지상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 선포되는 자리다. 5대 대명령 척추(통치·축복·사랑·제자·거룩)에서 보면, 22장이 셋째 기둥 '사랑(Love)'의 가장 큰 계명을 세웠다면, 28장은 넷째 기둥 '제자(Disciple)'의 명령을 세운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19절).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한 운동이다: **가장 큰 계명(The Greatest Commandment, 마 22)→지상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 즉 사랑 명령이 제자 명령으로 꺾인다.** "마음·목숨·뜻을 다한 사랑"이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냄으로 흘러, 한 민족(유대)을 넘어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번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0절)는 1장 첫머리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1:23)와 수미상관(inclusio)을 이룬다. 마태복음은 '함께 계심'으로 열고 '항상 함께'로 닫는 한 권이다 — 천상에 박힌 그 이름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로 함께 가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 무덤("살아나셨느니라", 6절)→모든 민족을 향한 보냄("제자로 삼으라", 19절)→"세상 끝날까지 함께"(20절) / 닫힌 돌→열린 땅끝 / 가장 큰 계명(마 22의 사랑)→지상 대위임령(마 28의 제자) / 임마누엘(1:23)→항상 함께(28:20).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빈 무덤에서 땅끝으로 미는 운동이다. 마태의 결로 보면 이는 사랑 명령이 제자 명령으로 흘러 모든 민족을 향해 열리는 성취다. 굴러진 돌과 빈자리(1-7절) → 두려움과 큰 기쁨의 달음질(8-10절) → 갈라지는 다른 소문(11-15절) → 갈릴리 산의 경배와 의심(16-17절) → "모든 권세"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18-19절) → "항상 함께"의 약속(20절). 한 무덤 안의 사건이, 22장의 사랑을 짊어진 채 땅끝을 향한 보냄으로 활짝 열리는 한 운동이다 — 그리고 "임마누엘"로 열린 책이 "항상 함께"로 닫힌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빈 무덤·만남·보냄이다(명의를 층 — 현상). 그러나 그 아래 인물의 걸을 보면(대의의 층 — 마음·인격),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달리는 여자들(8절)과, "경배하되 의심하는"(17절) 열린 제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흠어졌다 다시 모인, 아직 떨고 있는 자들. 더 깊은 원인의 층(신의를 층 — 원인을 맑게)에서 보면, 본질은 **흔들리는 자들에게 맡겨진 함께 계신 통치**다.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노라"(18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0절)는 빙산의 수면 아래, 의심이 남은 자들이 땅끝을 향해 가게 하는 힘이 명령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음을 본다. 표면은 한 산 위의 위임이지만, 아래는 가장 큰 계명의 사랑이 가장 큰 위임의 제자됨으로 흐르고, 임마누엘의 함께 계심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동행하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가장 큰 계명의 사랑(마22)이 가장 큰 위임의 보냄(마28)으로 흐르는데 — "항상 함께"에 기대어, 그 땅끝을 향한 한 발이 내 안에서도 떼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자리와 갈릴리 산의 경배하되 의심하는 자리, 그 사이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모든 민족"과 "항상 함께" 사이에 머물도록 부른다. 연쇄 폭발의 결로 보면, 28장의 부름은 한 사람의 내면(불씨)에서 모든 민족(핵)으로 번져 가는 운동의 진원이다 — 사랑(마22)이 제자됨(마28)으로, 임마누엘(1:23)이 항상 함께(28:20)로 도착한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의심을 안은 채로도 함께 계심에 기대어 한 발을 떼는 곳. (가르침·명령의 단정이 아니라, 본문이 미는 운동에의 초대로.)

한 권을 마치며 가져갈 한 단어: 함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마태복음이 "항상 함께"로 닫히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이 열린다 — 산 위에 맡겨진 "모든 민족을 제자로"가 성령 충만으로 점화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번져 가는 연쇄폭발의 핵으로 이어진다.

미해결 질문

마태복음 2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돌은 왜 굴러졌는가?(2·6절)

- 나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려는 자리.
- 빈자리를 보이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두려움과 큰 기쁨(8절)은 어떻게 한 걸음인가?

- phobos와 chara가 한 문장에.
- 두 결의 함께함은 묵상으로 이월.

Q3. 빈 무덤을 둔 두 이야기(6·13절)는 무엇을 나누는가?

- "살아나셨다"와 "도둑맞았다"의 갈라짐.
- 두 소문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의심하는 자에게도 왜 같은 보냄인가?(17·19절)

-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바로 뒤의 큰 명령.
- 의심과 보냄의 함께함은 보류.

Q5. "모든 권세"(18절)와 "가라"(19절)는 어떻게 잇닿는가?

- 권세 → 보냄의 "그러므로".

- 그 잇닿음의 결은 목상에서 다시.

Q6. 끝의 "함께"(20절)는 처음과 어떻게 만나는가?

- 1:23 "임마누엘"과 20절 "함께"가 책을 감쌌.
- 수미 구조의 결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 권의 관찰을 마친다.
